

하나님의 경륜

위트니스 리

하나님의 경륜

The
ECONOMY OF GOD

위트니스 리

한국복음서원
www.kgbr.co.kr

© 2004 Korea Gospel Book Room

모든 권리는 본사 소유입니다. 본 출판사의 명기된 허락 없이는 이 책의 어떤 부분도 복사, 녹음, 정보 저장 및 검색 체계를 포함하여 도안, 전자, 기계상의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 재생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무료 배포를 위한 초판 1쇄 / 2004년 4월 30일

ISBN 89-8478-213-0 03230

무료 배포처

레마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437-1

Originally Published by
Living Stream Ministry, Anaheim, California U. S. A.
Korean Copyright © 2004 Korea Gospel Book Room,
Seoul, Korea.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목 차

- 서문 · 5
- 제1장 삼일 하나님의 경륜 · 7
- 제2장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영 · 17
- 제3장 신성한 영의 거처 · 27
- 제4장 내주하시는 영에 이르는 열쇠 · 37
- 제5장 하나님의 세 위격과 사람의 각 부분 · 45
- 제6장 속 부분들과 감추어진 부분들 · 55
- 제7장 속 부분들과 감추어진 부분들의 기능 · 67
- 제8장 마음과 영의 처리 · 77
- 제9장 혼의 처리 · 87
- 제10장 속 부분들과 감추어진 부분들을 파냄 · 95
- 제11장 영과 혼의 분별 · 103
- 제12장 사람과 두 나무 · 113
- 제13장 십자가와 혼 생명 · 123
- 제14장 십자가의 원칙 · 133
- 제15장 부활의 원칙 · 139

- 제16장 부활의 풍성 · 147
- 제17장 생명의 교통과 생명의 느낌 · 155
- 제18장 영의 훈련과 영 안에 들어감 · 163
- 제19장 영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 173
- 제20장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교회 · 181
- 제21장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 · 191
- 제22장 하나님의 건축물의 덮개 · 201
- 제23장 교회—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 · 209
- 제24장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의 이상 · 221

서문

이 책의 내용은 196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여름 특별 집회 때 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구어체를 유지하였다. 모든 독자들에게 문장 자체보다는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영적 실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간청하고 싶다.

이 책의 제목에 있는 ‘경륜’이라는 단어는 독자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oikonomia)’인데, 주로 ‘가정의 경영’, ‘가정의 관리’, 또는 ‘(재산이나 물건 등의) 배분, 분배’를 의미한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자신을 사람 속에 넣어 주고 분배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사업의 중심 요점을 강조할 목적으로 쓰였다.

신격의 세 위격은 하나님의 경륜인 신성한 배분과 거룩한 분배를 위해 존재하신다. 근원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었고, 과정이신 아들은 전달이신 그 영 안에서 실재가 되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요(요 4:24), 마지막 아담이신 아들 하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모든 것이 영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분이 신약 성경에 계시된 성령이시다. 오늘날 이 성령은 아들의 풍성 안에 있는 아버지의 충만과 함께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 그곳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속에 나눠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신성한 분배이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삼일(三一) 하나님의 비밀스런 분배의 초점이자 표적이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다. 오, 간교한 대적은 여러 가지 선한 것들과 심지어 성경적인 것들을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심지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에서 벗어나게 해 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디모데서가 쓰인 때와 같이 혼탁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표

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만유를 포함하신 신성한 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 거하며,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을 실제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참여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매일의 생활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기 바란다.

이 책에 담긴 모든 메시지들을 기도하는 영으로 읽을 때 우리는 이 메시지들을 합당하게 적용하고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용된 모든 성경 말씀을 기도로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이 책을 읽는다면 더욱 유익이 있을 것이다.

모든 독자들이 영 안에서 이 메시지를 읽을 때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고 주님의 달콤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흐르기를 바란다.

위트니스 리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1968년 1월 11일

제 1 장 삼일 하나님의 경륜

여기에서 전할 모든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 까지를 읽어 보자. “...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표적을 놓쳐, 원문 참조)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우리가 이 구절의 신약 헬라어 원문을 볼 때 매우 중요한 두 어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표적을 놓침’이라는 표현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책임지도록 택정함을 입었으며 그는 이 경륜 안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테를 훈련시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래의 노선에서 빗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테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표적에서 벗어나 다른 것들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

역사를 보면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교와 영지주의(靈知主義)였다. 종교적인 교리와 형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도들과 철학을 소

유한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했다.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길로 빗나가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유대교와 영지주의에 있던 좋은 것들이었다. 만일 그것들이 좋은 것들이 아니었다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유대교인들은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강조했다. 율법에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주신 것으로서 올바르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과 관계가 없다. 인간의 관념으로 볼 때 영지주의에도 나름대로 선한 원칙들이 있다. 실제로 영지주의는 인류 문명이 발명한 최상의 것들 중 하나이며 이방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철학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려 했으며,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에서 빗나가게 했다.

오늘날에는 우리를 요동케 하는 유대교도나 영지주의자들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거의 이천 년 동안 간교한 자는 겉으로 보기에 선한 것들을 이용하여 성도들이 올바른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다. 대적은 심지어 기독교에 있는 좋은 것들까지 이용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이 나라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간교한 대적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들과 심지어 영적인 것들을 이용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인가? 66권으로 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성경을 철저히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다만 '하나님 자신을 인성 안으로 분배해 주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분배이며,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인류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분배(分配, dispensation)라는 용어가 기독교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 단어는 헬라어의 '경륜' 과 거의 동일하게 정의된다. 이 단어는 행정적 안배, 관리하는 경영,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하고 분배하는 청지기 직분 등을 의미한다. 이 신성한 '분배' 안에서, 전능하며 만유를 포함하신 하나님은 오직 그분 자신만을 우리에게 분배하고자 하신다. 우리는 이 말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여러 번 이 문장을 반복해야 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부요하시다. 그분은 마치 거대한 자본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와 같으시다.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한 가지 사업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광대한 재산이 바로 그분의 자본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지는 헤아릴 길이 없다. 그러나 자본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은 다름 아닌 그분 자신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 자본으로 그분 자신을 대량으로 '생산' 할 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업가요 자본이며 생산품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많은 사람에게 값없이 분배하시어 그분 자신을 대량 생산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인성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러한 신성한 안배와 경영과 분배와 경륜을 필요로 하신다.

이제 더욱 구체적인 것을 보기로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임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께서 '무엇' 을 분배하시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 이신지 알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떤 사업가가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세울 때는 가장 먼저 제품의 본질이나 그 기본적인 구성 성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다(요 4:24). 전능하시며 만유를 포함하시며 우주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 본질은 다름 아닌 영이다. 하나님은 제조자이시며, 제조자이신 그분의 목적은 바로 그분 자신을 재생산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생산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 자신의 본질인 영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단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하시는지 알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통해 어떻게 분배되시는지 깨달아야 한다. 바꾸어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분배하시는

것은 영이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바로 삼일성(三一性)에 의해 분배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바로 신격의 경륜이다. 과거 수세기 동안 기독교에는 삼일성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었다. 그러나 삼일성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하나님의 세 위격이 모두 필요한가?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이 아니라 세 위격 안에서 표현되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신격의 세 위격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그 이유는 오직 삼일성을 통해서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삼일성에 의한 하나님의 경륜의 단계를 보여 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아들의 은혜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들은 무엇인가? 이들은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이인가?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서로 다른 것들인가? 그렇지 않다.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세 단계에 있는 한 요소이다. 사랑은 근원이며, 은혜는 사랑의 표현이고, 교통은 은혜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전달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도 세 위격 안에서 표현되신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근원이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시요,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 안에 가져다주는 전달이시다. 그러므로 삼일성의 세 위격은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을 구성하는 연속적인 세 단계이다. 이러한 세 단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 안으로 분배될 길이 없다. 하나님의 경륜은 아버지 ‘로부터’ 시작하여, 아들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 통하여’ 발전한다.

(1)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데(딤후전 6:16)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 만일 하나님께서 단지 아버지이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분께 접근할 수 없고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실 길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경륜의 신성한 안배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해 삼일성의 둘째 위격인 그분의 아들 안에 자신을 넣으셨다. 이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은 아들 안에 거하며(골 1:19, 2:9), 아들을 통해 표현된다(요 1:18). 만유의 무한한 근원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체현(體現)되셨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고(요 1:1),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다(골 1:15). 그러므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요(요 10:30), 아들은 심지어 아버지라고 불리신다(사 9:6).

전에는 사람이 아버지를 접촉할 수 없었다. 그분 홀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본성만 유일하게 신성했다. 아버지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을 이어줄 다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체현 되셨을 뿐 아니라 인성 안에서 성육신하셨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자신의 신성을 인성과 연합하기를 기뻐하셨다. 가까이할 수 없었던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의 성육신을 통해 가까이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이로써 사람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흰 수건에 푸른색 물을 들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아버지의 신성이 흰 수건이라면, 푸른 염료로 적셔진 손수건은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인성 안에서 성육신하신 것을 나타낸다. 흰 손수건은 이제 푸른색 손수건이 되었다. 푸른색이 흰 손수건에 더해졌듯이, 인성이 신성에 더해진 것이다. 즉 이전에는 떨어져 있던 성분들이 이제 하나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자신을 분배하는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아들 안에서 체현되고 성육신하시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 안에 재생산 하셨다.

(2) 아들 안에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는 둘째 단계는 삼일성의 둘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경륜의 둘째 단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어떤 성분들이 함께 결합하여 그리스도를 조성하였는가?

이 놀라운 인격은 모두 일곱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여섯 가지 요소는 그분의 역사(歷史)를 통해 더해진 것들이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체현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째 요소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이요, 본성이다.

둘째 요소인 그분의 성육신은 그분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의 연합이다.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오셨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을 인성과 연합되게 하셨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며 동시에 사람도 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더해진 셋째 요소는 바로 인간 생활이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사람은 이 땅 위에서 삼십삼 년 반을 사시면서 일상생활에서 매일 일어나는 크고 작은 온갖 것들을 체험하셨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분이 피곤하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우셨다는 것도 보여 주고 있다. 그분께서 겪으신 고난들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으며, 그 고난에는 땅에 속한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와 시험과 박해들이 포함된다.

넷째 요소는 그분의 죽음의 체험이다. 그분은 죽음 안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 '속에 들어가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셨다'. 이것은 매우 효능 있는 죽음을 산출하였다. 아담의 죽음은 끔찍한 파멸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놀랍고도 효능 있는 것이다. 아담의 죽음은 우리를 '사망의 종'이 되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아담의 타락은 우리 안으로 여러 가지 악한 요소를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의 효능 있는 죽음은 우리 안에서 아담의 본성에 속한 모든 요소를 죽이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 고난의 인생과 죽음의 효능이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세 가지 요소가 더 있다. 다섯째 요소는 바로 그분의 부활이다.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는 사람에 속한 것은 다 벗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부활 생명의 요소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되어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더해진 것

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섯째 요소는 그분의 승천이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과 정사(政事)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권세들을 초월하였다. 모든 것이 그분의 발밑에 있다. 그러므로 승천의 초월하는 능력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곱째 요소는 보좌에 앉으심이다. 신성을 소유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머리로 높여지시고 셋째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 하늘에 속한 그분은 만주(萬主)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일곱 가지 놀라운 요소, 곧 신성과 인성, 고난의 인생과 죽음의 효능,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초월하는 능력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요소들이 놀라운 한 분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다.

(3) 영을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없다. 경륜의 처음 두 단계에 따라 아버지는 자신을 아들 안에 넣으셨고 그런 다음 아들은 자신 안에 일곱 가지 요소들을 연합시키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단계, 즉 마지막 셋째 단계가 필요하다. 첫 단계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체현되신 것이요, 둘째 단계는 아들께서 인성 안에서 성육신하심으로 일곱 가지 놀라운 요소를 자신과 연합시키신 것이다. 이제 셋째 단계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영 안에 계시는 것이다.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은 이제 구약 시대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더 이상 똑같지 않으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단 한 가지 요소, 즉 하나님의 신성만 갖고 계셨다. 신성한 영이신 그분은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의 효능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의 요소를 갖고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 경륜 아래서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성분이 모두 영 안에 있고, 그러한 만유를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위에' 오셨다. 바꿔 말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실제로 연합한 것이며, 우리는 어느 때라도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는 안팎으로 성령과 연합되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요 15:26).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 헬라어에서 '진리' 라는 단어는 '실재' 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실재의 영,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실재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하셨듯이 그리스도는 성령의 놀라운 인격 안에서 실재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리된 분이 아니고 성령도 그리스도와 분리된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표현된 하나님이시요, 성령은 실재가 된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주는 영이시니”(고후 3:17). 이 구절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분리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 자신이신 주님이 영이시라고 말한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 15:45). 여기에서도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이심을 지적해 주고 있다. 우리는 이 생명 주는 영께서 성령이심을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도 영이시다(요 4:24).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 위격은 모두 영이시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아들 하나님께서 영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가? 아버지와 아들께서 모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

다음 구절들을 주의해 보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 만유 안에 계시도다”(엡 4:6). “...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고후 13:5).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롬 8:11).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그 영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는가? 셋인가, 하나인가? 우리는 분리된 세 위격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한 위격만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다만 셋-하나이신 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야 한다. 신격의 세 위격은

세 영들이 아니라 한 영이시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일곱 가지 놀라운 요소를 포함한 아들은 성령 안에 계신다. 이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분배되시는 것이다. 세 위격이 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다. 나중에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계시며 우리의 영적이고 내적인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이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는 방법이다. 신성한 경륜의 목적은 한 영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영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삼일 하나님에 의해 사는 문제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난다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선하고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을 놓친 것이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신성한 경륜의 이 표적에 되돌아오게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신다.

오, 주님만이 내 생명 나에게 모든 것 되니
참 친절하고 편리해 영원히 쓰고도 남네

후렴

오, 주는 생명 주는 영 참 친근하시니
주 아는 사람 그를 좋아해 항상 새롭네

오, 주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공급되시니
참 완전하고 풍족해 내 영을 사용할 때에

주 내게 기름 부으며 인도해 날 도우시니
주 능력으로 내 약함 변하여 강함이 되네

영 안에 율법 생명률 내 생활 자유케 하며
주 주신 풍성 실제로 내 온몸 충만케 하네

주 나와 한 영 됴므로 영원히 거리가 없네
이 같은 거룩한 연결 무엇과 비할 수 없네

(한국복음서원 찬송가 400장)

제 2 장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영

영은 하나님의 전달이심

제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신격의 세 위격에 의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임을 보았다. 우리는 전기를 예로 들어 삼일성의 경륜을 설명할 수 있다. 전기에는 전원(電源)과 전류(電流)와 송전(送電)이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전기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이다. 전원과 전류와 전송은 모두 전기 자체이다. 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원도, 전류도, 송전도 존재할 수 없다. 하나의 전기에 서로 다른 세 단계가 있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께도 세 위격이 있으시다. 한쪽 끝에는 전기의 전원인 발전소가 있으며, 다른 쪽 끝에는 우리의 가정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송전이 있고, 이 양쪽 사이에 전류가 흐른다. 이것은 한 가지 실체의 세 단계를 보여 주고 있는 한 예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시요, 아들 하나님은 과정이자 아버지의 표현이시며, 영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전송과 같다. 아버지는 영이시고, 아들 또한 영이시며, 그 영도 물론 영이시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영 안에 계시며,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전송이 되시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어퍼함과 그분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달하신다.

성령은 만유를 포함한 약이심

오늘날 사람들은 의학 분야에서 많은 약품을 개발했다. 그중에는 여

러 요소가 복합되어 단 한 번의 복용으로 그 모든 성분을 투여할 수 있는 약들이 있다. 비록 한 포의 약이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어떤 성분은 세균을 죽일 수 있고, 다른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며, 또 다른 성분은 영양을 공급하여 몸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분을 포함한 한 포의 약이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단 한 포의 약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가 넉넉히 채워질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어머함과 모든 소유가 이 놀라운 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얼마나 많은 요소가 이 한 포의 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상상해 보라. 신성과 인성, 세상에서 겪은 고난의 인생과 죽음의 놀라운 효능,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어떤 약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매일 이 약을 누릴 수 있다. 이 세상의 어떤 과학자나 의사라도 이 놀라운 약을 분석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분배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것은 교리를 배우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젊었을 때 다양한 시대들(dispensations, 영어에서 'dispensation'은 분배라는 의미 외에 시대라는 의미도 있다—역자 주)에 대한 모든 교리를 배웠다. 나는 적어도 일곱 가지 시대가 있다고 배웠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시대, 즉 하나님 자신의 시대이다. 성경 66권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는 이 한 시대에 대한 완전한 기록이다. 우리가 이 놀라운 영 안에서 만유를 포함한 약이신 하나님께 매일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제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누려야 한다.

당신은 약한 형제인가? 여기에 놀라운 약, 즉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당신에게 힘을 주는 놀라운 약이 있다. 당신은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 약 속에 치료가 있다. 한 포의 성령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실 것이다.

젊었을 때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고 배웠다. 그래서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긴장하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려고 애썼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수록 나는 더욱 살아났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었기 때문에 통하지 않았다.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주님은 나의 눈을 여시어 그리스

도의 죽음의 실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을 누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 계시된다. 로마서 6장에는 단지 죽음에 대한 정의만 있으나,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실재를 제시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죽게 된다. 한 포의 만유를 포함한 성령 안에는 죽이는 요소가 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놀라운 한 포의 약이신 그분을 누리기 때문이다. 이 약을 누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병균들이 죽게 될 것이다.

전에 나는 어떤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들은 권면은, '미워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려고 애써 보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수록 더욱더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나는 내 안에 죽이는 능력이 있고 그것이 나의 증오와 교만을 죽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리며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왔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한 포의 놀라운 약 속에 든 죽이는 요소, 즉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이다.

이 예수의 영 안에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이 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있는 '도우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풍성한 혹은 만유를 포함한 공급'이라는 뜻이다. 예수의 영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만유를 포함한 공급이다. 무엇이 필요한가? 위로인가? 아무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다. 우리의 자녀나 부모, 또는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이 놀라운 영 안에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밖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속에는 안식과 위로가 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나에게서는 인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살아 있는 인도는 바로 성령 안에 있

다.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자연히 우리 속에는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있을 것이다. 인도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성령 안에 다 들어 있다. 오늘날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약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울며 애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분을 취하고 누리며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

어떤 자매가 어려움에 처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 자매는 분명한 인도가 없었지만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여, 나에게 인도가 없음을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음을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두움 속에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는가? 찬양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욱 빛 가운데 있게 되었다.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하자. “주여, 이 환경에서 제가 약함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이렇게 접촉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얼마나 놀라운 영이시며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풍성하고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이 되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독교 안에 있는 너무도 많은 교리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을 잃어버리게 했다.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이 무엇인가? 그 표적은 바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는 만유를 포함한 성령이다. 온종일 성령을 접촉하고 따르기를 배우라. 그분과 교통하며 행하기를 배우라. 기독교는 형식과 규칙과 교리들을 지키라고 가르친다.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을 거의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조차도 바르게 읽지 못한다. 단지 흑백 문자로 된 교리들만 배운다. 성경을 읽을 때 글자를 보려고 눈만 사용하거나 단지 가르침만 이해하려고 생각을 사용하지 말고, 성령을 접촉하기 위해 영을 사용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분과 교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 예수님의 풍성한 공급이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상호 거처이심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아버지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

께하시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당신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당신과 거처를 함께하러 오신 것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교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이다. 이 거처는 양 방면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처가 된다. 이것이 상호 거처이다. 어떻게 이런 상호 거처가 가능할 수 있는가? 단지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이 상호 거처를 체험할 수 있다. 그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요, 동시에 아들과 아버지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서로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친밀한 교통과 연결을 갖는다. 우리는 내적인 '대화'를 한다. 우리는 주님께 말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상호 거처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다.

성령은 내적인 생명이자 외적인 의복이심

주님은 또한 생수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속생명으로 채워 주시는 생명의 영이시다(요 7:37-39).

성령이신 주님은 또한 의복에 비유된다(눅 24:49). 의복은 능력과 권위를 나타낸다. 어떤 사람이 공적 임무를 수행하려면 제복이 필요하다. 제복을 입지 않고 평복을 입은 채 차도나 인도에 서 있는 교통경찰을 상상해 보라. 누가 그를 교통경찰로 여기겠는가? 그는 제복을 입지 않았으므로 권위를 상실한 것이다. 우리가 운전할 때 제복을 입은 교통경찰을 보면 즉시 조심스러워진다. 제복을 입을 때 그는 곧 권위로 옷 입을 것이다. 안에 계신 성령은 생명 공급이시며, 밖에 계신 성령은 권위의 제복이시다. 그분을 입을 때 우리는 우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셨다(요 20:21, 22). 주님은 그 '호흡'을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 자신이 곧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은 모두 성령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호흡이란 생명에 속한 것이며 생명을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은 그들에게 그분의 생명의 영을 나눠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하

신 그날, 제자들은 모두 그들 속에 생명의 영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안으로 생수를 들이마셨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다. 아직 제복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승천하셔서 우주의 머리와 권위로서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눅 24:49). 승천하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비로소 주님은 권위이신 성령 안에서 그분 자신을 부어 주실 위치를 얻으신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분은 생명이 아닌 능력으로서 내려오셨다(행 1:8).

부활하신 날, 즉 생명의 날에 성령은 주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생명의 호흡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가셨다. 그러나 오순절날, 즉 능력의 날에는 성령께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머리로부터 나오셔서 봉사를 위해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제복과 같은 능력의 성령이다.

어떤 교통경찰이 근무에 임할 준비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근무를 시작하기 전 그는 무엇을 하겠는가? 이른 아침에 먼저 기운을 차리고 힘을 얻기 위해 한두 잔의 음료수를 마실 것이다. 그러나 음료수를 마신 것이 교통경찰의 임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게 하는가? 만일 그 경찰이 제복을 입지 않고 거리에 나가서 “배가 부르니 이제 나는 교통경찰이다.”라고 외친다면 누가 그를 인정하겠는가?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가 교통경찰이라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제복을 입지 않고는 권위를 행사할 길이 없다. 제복을 입을 때 그는 비로소 권위의 힘을 갖게 된다. 일단 제복을 입고 거리에 나가면 모든 사람은 그를 교통경찰로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제복을 무시할 수 없다. 이 제복은 정부의 권위를 대표한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교통경찰이 아침에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다면 힘이 없을 것이다. 제복을 입고 권위를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속에는 힘과 활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내적인 충만은 있는데 외적인 제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합당한 제복은 있는데 속이 공허한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는 안의 충만과 밖의 권위가 다 필요하다. 우리는 부활의 날의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가져야 하며, 오순절날의 성령을 우리 ‘위에’ 있는 능력으로 가져야 한다. 성령의 충만은 내적으로 필요한 것이요, 성령을 입는 것은 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두 방면

이 모두 있다면 우리는 안팎으로 성령과 연합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바로 삼일 하나님의 실재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고 성령을 입을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연합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이다.

공허한 교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을 주목하자. 어떤 사람은 교리에 대해 변론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휴거(들림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후 휴거, 환난 전 휴거, 부분 휴거, 혹은 그 밖의 것들로 인해 골치를 앓는다. 전에 나는 어떤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형제는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리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배우라.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을 목적 삼고, 성령 안에 있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을 입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보증에 대해서 변론한다. 그러나 참된 보증은 영원한 보증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보증이 있다. 만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보증도 없다. 영원한 보증에 대한 교리 자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교리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분열만 일으킨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아 계신 성령에 의해 행동하되 교리는 강조하지 말라.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하나 될 것이다.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수록 더욱더 다투게 된다. 이 시간 놀라운 약이신 성령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모두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친다. 그러나 내일 영원한 보증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미안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즉시 우리는 나눌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표적을 놓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의문을 품게 하는 가르침을 주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무엇이 표적인가? 그것은 바로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와 성령 안에 계신 아들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다.

다른 이들은 침례에 대해서 논쟁한다. 예를 들면 물을 머리 위에 뿌리는 약세(略洗)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 역시 교리의 문제이지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즉 그리스도 자신만을 붙잡아야 하며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 자신께만 붙잡혀야 한다. 우리는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법을 알아야 하고 성령께 붙잡히는 법을 알아야 한다. 비록 우리가 어느 정도 교리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교리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살아 계신 한 분이다.

성령은 생명을 주고 자유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영이심

우리가 온종일 놀라운 성령 안에 있는 살아 계신 한 분을 접촉한다면 세 가지 사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생명 주는 영께서 생명을 공급하신다(고후 3:6). 이 놀라운 영을 접촉할 때마다 우리는 내적으로 신선해지며, 힘이 솟고, 만족하고,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험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더욱더 공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80년 이상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공급하고, 신선하게 하고, 힘과 만족과 빛 비춤을 주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놀라운 영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놀라운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나눠 주신다.

그다음 성령은 우리를 계속 자유롭게 하신다(고후 3:17).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고 침체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약해진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슬픈 얼굴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때로는 당신의 아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당신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당신은 집회에 가서도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형제여,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소한 일로 인해 마음이 우울해지고 침체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접촉한다면 그분은 즉시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당신은 아내에게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높이 초월할 것이며 그때 모든 우울함은 당신의 발아래 놓일 것이다. 당신은 해방되어 삼층천에 있는 보좌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사역 집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매우

자주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나는 배운 것이 있다. 나는 “주여, 나는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로 인해 요동치 않습니다.”라고 선포한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초월할 수 있다. 그 까닭은 승천과 초월의 요소들이 이 놀라운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는 이 요소들이 온종일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같이 주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하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변화하여’라는 단어가 흄정역(King James Version)에서는 ‘바뀌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의 “...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에서 ‘변화를 받아’와 같은 단어이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밖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본성과 외적인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반사할 때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에 이르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거울은 어떤 물건을 비추든지 그 비춘 것을 반사한다. 그러나 만일 그 거울에 가려진 것이 있다면, 즉 거울의 표면이 가려져 있다면 어떤 물건을 비춘다 하더라도 반사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가 가려진 것이 없는 거울과 같다면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그분을 반사할 것이다. 이것이 변화의 과정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영이시다. 아무리 우리가 천연적이며 심지어는 죄로 가득할지라도 그 영은 우리의 천연적인 형상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우리가 온종일 그 영 안에 산다면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 자신으로 적시심으로 우리 존재의 모든 속 부분을 점유하실 것이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미움, 우리의 갈망,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모두 그분의 형상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며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오늘은 영광의 처음 단계로 변화되고, 내일은 영광의 둘째 단계로 변화되며, 모레는 셋째 단계로 변화될 것이다. 매일 매일 영광은 증가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분배하시고 우리를 영광 안에 계신 그분 자신과 연합시키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목적에 신실하고, 이 표적을 꼭 붙잡고,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제 3 장 신성한 영의 거처

요한복음 3장 6절은 “... 영(the Spirit)으로 난 것은 영(spirit)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구절은 두 영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다른 하나는 소문자로 시작한다. 대문자로 시작된 영(Spirit)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소문자의 영(spirit)은 사람의 영을 말한다. 성령으로 난 것은 사람의 영이다. 이 두 영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이다. “하나님은 영(Spirit)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spirit) 안에서 ...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도 첫째 영은 대문자로 시작하며, 둘째 영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경배해야 한다. 로마서 8장 16절 또한 두 영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증해 준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서 ‘우리’라는 대명사는 분명히 ‘우리 영’이 사람의 영임을 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 죽는 것이나 영은 ... 생명이니라”. 흠정역(KJV)은 10절의 영을 대문자 영(Spirit)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미국 표준역(ASV)과 같이 더 잘된 번역본들은 소문자 영(spirit)으로 번역하고 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지적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성령의 처소요 거처인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등한시하고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를 방

문하기 원한다고 하자. 그는 먼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만일 그가 내 집의 위치를 알 수 없다면 방문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그 성령께서 어디에 거하시지는 모르고 있다. 로마서 8장 9절은 분명히 성령을 말하지만, 10절은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한다. “몸은 … 죽은 것이나 영은 … 생명 이니라”. 논리상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비교되실 수는 없다. 이 비교는 사람의 몸과 성령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명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에 대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롬 1:9)라고 말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섬김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이 구절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섬김을 받으신다고 선포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 성령을 좇아 행하라 …”에서 ‘성령’은 흠정역(KJV)에서 정관사가 있는 대문자 영(the Spirit)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행간역(Greek interlinear)에서는 정관사가 없고 대문자도 아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흠정역 번역 때문에 이 구절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성경의 올바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는 것은 큰 유익이 있다. 이 밖에도 대문자가 소문자로 되어야 할 구절들은 많이 있다.

성경 번역가들은 어떤 단락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가리키는 지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지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어려운 까닭은 믿는 이 안에서 성령과 사람의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 6:17).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지만, 이 한 영은 분명히 성령과 연합된 영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연합된 영이 성령인지 사람의 영인지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둘이 하나로 연합되었다. 우리는 그것이 성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람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가끔 파인애플 주스와 포도 주스를 섞어 음료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섞인 후에는 어떤 종류의 주스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그것이 파인애플인가, 포도인가? 우리는 그것을 파인애플-포도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신약 성경에

서 두 영, 곧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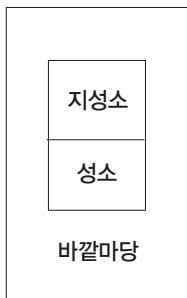
사람의 영의 위치

제1장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엡 4:6),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고후 13:5),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았다(롬 8:11). 삼일 하나님의 세 위격 모두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나 이 삼일 하나님은 우리 속 어디에 계시는가? 어느 부분에 계시는가? 변론의 여지없이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증해 준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오,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 주께서 네 영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딤후 4:22, 원문 참조).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시려면 먼저 그분께서 영이 되셔야 하고, 다음으로 우리에게 영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 두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되어야 한다. 만일 주님께서 영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우리 영 안에 계실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한 영이 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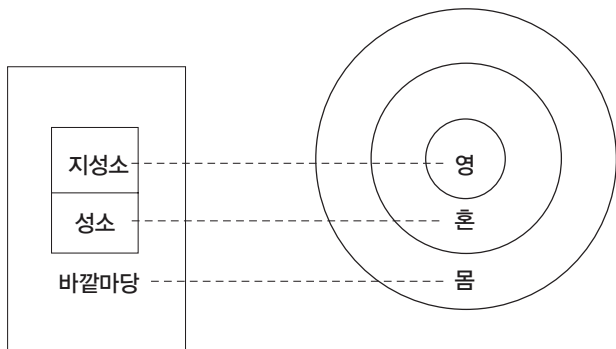
사람의 영의 위치를 알려면 영과 혼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찌르며 영과 혼을 분리하는 예리한 칼이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바깥마당이며, 둘째는 성소요, 셋째는 지성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에 계셨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성전의 어느 부분에 계셨는가? 바깥마당인가? 아니면 성소인가? 아니다. 그분은 지성소에 계셨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 있었다. 바깥마당에는 십자가의 예표인 제단이 있었으며, 제단 바로 뒤에는 성령의 일을 예표하는 물두멍이 있었다. 성소에는 진설대와 등대와 분향단이 있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지성소에 계셨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도 역시 지성소에 있었다.

성경은 우리가 또한 성전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전 3:16). 우리는 몸과 혼과 영,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느 부분에 계시는가?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따르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우리의 영이 바로 지성소이다. 구약의 성전의 예표는 이에 대한 매우 분명한 그림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이 예표는 오늘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우리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몸은 바깥마당과 일치하고 우리의 혼은 성소와 일치하며 우리 사람의 영은 지성소와 일치하는데, 이 영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다음의 그림은 이것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히 10:19).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오늘 우리가 들어갈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가? 위의 그림을 보라. 우리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거처,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내실(內室)인 바로 그 지성소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하늘로 갈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의 영과 혼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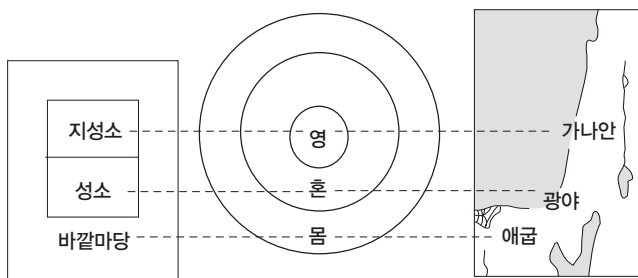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혼을 분리시켜야 한다(히 4:12). 만일 우리가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없다면, 결코 주님을 접촉할 수 없다. 그림을 보라. 만일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을 접촉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다. 먼저 그는 바깥마당에 들어가야 했고, 다음에는 성소로, 마지막에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다. 거기에 이르러서야 그는 하나님을 만나며 찬란한 광채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혼과 영을 분별해야 한다. 마치 뼈가 골수를 감추고 있듯이 혼은 영을 덮어 감추고 있다. 뼈를 보기는 쉬워도 속에 감추어

진 골수를 보기란 쉽지 않다. 만일 우리가 골수를 얻고자 한다면, 뼈를 부수어야 한다. 때로는 골수를 뼈에서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오! 우리의 영은 얼마나 혼에 견고히 붙어 있는지! 우리의 영은 혼 안에 숨겨 있고 감추어져 있다. 혼은 쉽게 인지(認知)되지만 영을 알기는 어렵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지만 사람의 영은 모르고 있다. 그 까닭은 사람의 영이 혼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혼이 파쇄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관절이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 이듯이 우리의 혼도 매우 강하다. 우리의 영은 혼에 덮여 있다. 날카로운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서부터 혼을 분리하기 위하여 혼을 찢러 쪼개야 한다.

“그러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히 4:9, 11). 여기에서 안식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려면 구약의 또 다른 예표를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구출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적으로 광야로 인도되었다. 가나안 땅은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처였다. 그리스도는 가나안 좋은 땅이요, 우리의 안식처이다.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늘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 다만 혼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서가 쓰인 이유는 많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혼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좋은 땅, 즉 그들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혼 안에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음 그림을 본 후에 좀더 설명하겠다.



고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바깥마당만 출입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더욱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일 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다. 애굽 땅에서 구출되어 광야로 인도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 극소수만이 가나안 좋은 땅에 들어갔다.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났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혼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 좋은 땅에 있는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면, 여러분 자신이 직접 주님께 묻고 찾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 안에서, 즉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 아침에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오후에는 우울한 얼굴을 하며 슬퍼한다. 어제는 하늘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 같더니 오늘은 땅 아래에 내려와 있다. 그들은 날마다 다람쥐 쳃바퀴 돌듯 안식이 없이 혼의 광야를 맴돌고 있다. 그들이 20년 동안 주님을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진보하거나 진전하지 못한 채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왜 그런가? 그들이 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혼 안에 있을 때 광야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영과 혼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이다. 우리가 어떻게 혼에서 좋은 땅과 지성소인 사람의 영으로 계속 나아가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찢러 쪼개야 한다.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안식이 없는 혼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이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육체를 상징하는 그 휘장은 반드시 찢어져 나뉘어야 했다 (히 10:20).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요단 강을 건너야 했다. 그들은 요단 강 물밑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돌을 묻었다. 그리고 부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열두 개의 돌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의 옛 세대는 요단 강의 죽음의 물속에 장사되었다. 이 모든 것은 천연적인 사람, 혼 생명, 혹은 옛 본성이 휘장처럼 찢어지고 옛사람이 장사되듯 장사되어야 함을 예표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지성소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의 영에서 빛나감

이 그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한 영 안에 계신 이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하기를 배워야 한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타고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 선택해야 한다든지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분배해 넣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뜻대와 표적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빛나가서는 안 된다. 선하게 되고자 하는 갈망이나 선한 일을 하려는 것은 모두 잊으라. 모든 선한 것을 떨쳐버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깥 마당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지성소는 그들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하나님께 붙잡히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을 그들의 모든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의 영을 분별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분과 교통하라. 그

분께서 당신을 점유하고 소유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라.

우리를 빚나가게 하는 또 하나의 종교적인 생각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강해지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위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데에도 어떤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은 외적으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의 거처인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알고 우리의 혼을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경륜의 이 표적을 놓치고 있다. 다시 한번 묻겠다. 오늘 이 삼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주님을 찬양하라. 이 놀라운 삼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다. 우리는 영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이 놀랍고 만유를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만일 우리가 믿는 이라면 우리의 영 안에는 삼일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우리의 필요는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이다. 영과 혼을 분별하는 올바른 길을 알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접촉하는 표적을 명증시킨 것이다.

라디오의 부속품 중에는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기가 있다. 우리가 정확하게 라디오의 주파수를 조정할 때 공중에 있는 전파는 그 수신기에 잡힐 것이다. 오늘 삼일 하나님은 영적인 전기이시다. 그분은 온 우주 가운데 퍼져 있는 전파이시며 우리는 바로 라디오이다. 우리 안에 있는 수신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영이다. 우리가 상하고 통화하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 놓을 때 우리의 영은 곧 조정된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영을 갖고 있다면 놀라운 영이시요, 영적인 전기이신 삼일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영에 흐르실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만 이 수신기의 주파수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과 같은 다른 모든 것들에서부터 우리의 영을 분별하면서 사람의 영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혼에 속한 모든 것들과 영을 분별할 때 삼일 하나님의 놀랍고도 만유를 포함한 영이신 신성한 영을 어떻게 접촉하는지 알게 된

다. 그리고 우리는 영과 혼을 분리하는 예리한 검(劍)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알게 될 것이며,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그분께 참여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 4 장

내주하시는 영에 이르는 열쇠

20개 이상의 신약 성경 영문 번역본들은 ‘영’을 각각 다르게 쓰고 있다. 어떤 번역은 대문자(Spirit)로 쓰고 있지만 다른 번역은 소문자(spirit)로 쓴다. 예를 들면 흠정역은 로마서 8장 2절의 “생명의 영의 법”에서 ‘영’을 대문자(Spirit)로 썼다. 그러나 헬라어 행간역은 이 구절의 ‘영’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쓰지 않고 있다. 로마서 8장 4절의 “영을 좇아 행하는”에서 흠정역은 ‘영’이라는 말을 대문자로 썼으나 헬라어 행간역은 대문자로 쓰고 있지 않다. 또 흠정역은 5절의 “영을 좇는 자”에서 ‘영’을 대문자로 쓰고 있지만 헬라어 행간역에서는 그 단어를 대문자로 쓰지 않고 있다.

번역본들마다 이러한 불일치가 생기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번역자들이 이런 구절들에서 ‘영’이 성령을 말하는 것인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인지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두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된 것이다(고전 6:17). 그러므로 어떤 이는 이 영을 사람의 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다른 이는 이 영을 성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어떤 구절에서는 문맥상 영이 성령인지 사람의 영인지 분명히 나타날 때도 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곳 로마서 8장 10절에서 언급한 영은 문맥상 분명히 성령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몸과 비교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을 우리의 몸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과 비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영이다. 이 구절은 무엇을 뜻하는가? 본래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죽어 있었다. 이제 그리스

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 죄의 몸은 죄로 인하여 여전히 죽어 있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 있고 생명으로 충만하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언급한 ‘영’은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비교되는 사람의 영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로마서 8장 11절에서 첫째 영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영’은 이 영이 누구의 영인지 분명히 보여 준다.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여전히 죽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11절은 우리의 연약하고 죽을 몸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고 소생되어 강해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므로,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죽을 몸까지도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신성한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실 뿐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몸까지도 소생시키신다.

사람의 영이 열쇠임

왜 우리는 성령과 사람의 영의 차이를 강조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의 영이 바로 성령의 거처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이 두 영이 한 영으로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모른다. 이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적을 놓치고 있다. 열쇠가 없다면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집 안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수세기 동안 대적은 그 열쇠를 감추었다. 그렇다면 그 열쇠는 무엇인가? 그 열쇠는 바로 사람의 영이 성령의 거처가 된다는 것이며, 우리 사람의 영이 놀라운 성령과 하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훨씬 더 예리하여 영과 혼을 찢어 찌른다. 나는 왜 이 말씀이 쓰였고, 왜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쓰였는지 알기 위해 30년 동안이나 노력했다. 주님은 그 이유를 계시해 주셨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좋은 땅으로, 방황하는 단계에서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단계로 계속 나아갈 것을 격려하는 책이다.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떠나 유대교로 흘러 떠나려갈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구출되어 안식할 좋은 땅에 들어가야 했지만, 도중에 유대교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히브리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유를 포함한 생명과 안식으로 취함으로써 방황하는 단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였다.

히브리서도 역시 지성소를 말하고 있다. 수년 동안 나는 지성소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주님의 도움으로 지성소가 어떤 면에서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람의 영이 지성소이다. 성전의 세 부분은 사람의 세 부분인 몸과 혼과 영에 일치한다. 성전의 가장 속 부분인 지성소는 바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인 사람의 영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베편가 지성소 안에 있었듯이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지성소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을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성소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오늘날 삼일 하나님께서 창조와 성육신과 인간 생활과 이 땅에서의 고난 등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다. 놀라운 삼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이제 이 모든 실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안에 있다. 요점은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으며, 이제는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이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담는 기관이다. 만일 우리가 이 놀라운 영을 접촉하려면 우리의 영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접촉하고자 한다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쓰였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오늘날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 지성소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

로 분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영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분별하고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 침투되고 적셔져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열쇠에서 빛나가게 하는 것들

(1) 선(善)

대적은 우리가 영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애쓴다. 그래서 대적은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선을 행할 것을 결심하도록 한다. 아무도 이 간교한 제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은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좋은 기도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에서 나온 기도는 아니다. 그것은 대적에게서 온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펄쩍 뛰며 사탄에게 우리를 떠나라고 외쳐야 한다. 나의 그리스도인 사전에는 ‘악’이라는 단어도 ‘선’이라는 단어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그리스도인 사전에는 오직 한 단어, ‘그리스도’만 있다. 나는 선이나 악이라는 말을 이해조차도 못한다. 나는 선을 행하도록 돕고 싶지 않다. 나는 다만 그리스도를 원한다!

이제 여러분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노력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내주하시는 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허락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은 다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결과일 뿐이다. 우리는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가지요 그분은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 살아가야 하며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열쇠이다.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실로 큰 유혹이며 그

리스도를 체험하는 데서 멀리 빛나가게 하는 것이다.

(2) 교리

교리는 추구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 대적이 사용하는 또 다른 도구이다. 수세기에 걸쳐 영원 보증, 시대들, 예정, 절대 은총 등과 같은 교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 대적에게 많이 사용되었다. 나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다. 심지어 그들 중 한 사람은 ‘걸어 다니는 성구 사전’이라고 불렸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 어느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면 그들은 즉시 그 부분이 성경 어느 책 몇 장 몇 절인지 말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과 살아 계신 주님을 아는 문제는 전혀 별개이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손이나 기억 속에만 가지고 있을 뿐 그들의 영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었고, 그리스도를 대신해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율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돕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고 그리스도는 무시했다. 그러므로 율법은 잘못 사용된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 문제는 동일하게 남아 있다. 같은 원칙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교리들에 적용된다. 교리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수단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와 지식을 사용해 그리스도를 대치한다.

(3) 은사

대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것은 영적인 은사들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은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면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 원칙은 모든 은사에 적용된다. 은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은사에만 지나치게 집착할 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소홀히 한다. 오직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이며, 모든 은사는 이 표적을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법과 병 고치는 법은 알고 있지만 영을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법은

모르고 있다. 나는 은사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은사에만 집착하고 그리스도를 접촉하기 위해 영을 분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로마서는 은사에 거의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생활에 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인 로마서에서는 은사가 그다지 많이 언급되지 않는다. 전체 열여섯 장에서 오직 12장만이 은사에 관하여 다룬다. 12장 전체를 읽어 본다면 예언뿐만 아니라 공회를 베푸는 것과 구제하는 것도 은사 중에 열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5-8절). 여기에 언급된 은사들은 믿는 이들 각자가 그들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은혜로 체험한 결과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언은 단지 많은 은사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어떤 은사들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은사를 동일하게 관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을 잃을 것이다.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고린도의 성도들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육신에 속했고 아주 어렸다(고전 3:1). 우리는 은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육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알아야 한다. 표적과 지체도 은사이다(고전 1:22).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바울의 유일한 의도는 은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지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데 있었다. 은사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목표와 표적은 아니다. 표적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다. 은사들은 다만 이 표적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줄 뿐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방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언급하지만, 12장 끝에서 바울은 '제일 좋은 길'을 말하고 있다. 헬라어 원문은 '가장 탁월한 길'이라는 한층 강조된 표현을 쓰고 있다. 무엇이 가장 탁월한 길인가? 13장은 이 구절의 연속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다만 울리는 팽과 리일 뿐이다. 소리만 들을 수 있을 뿐 그 생명은 결코 볼 수 없을 것이

다. 사랑은 생명의 표현이다. 엄밀히 말해 이것은 방언이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준다. 생명을 주의하지 않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울리는 팽과리일 뿐이다.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피상적이며 성숙하지 못하다.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하라고 격려한다. 이것이 14장 전체의 결론이다. 비록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뛰어나게 했을지라도, 그는 일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집회에서 깨달은 다섯 마디의 말을 말하기 원했다(고전 14:18-19). 이 여러 장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은사를 사용하라고 격려하기보다는 바로잡는 가르침으로 고린도인들을 조정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존재하며 적절하고 균형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오신 만유이신 그리스도이다. 물론 우리에게 그 표적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어떤 가르침과 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리나 은사가 이 표적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이 표적은 그리스도, 즉 우리 영 안에 살아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표적을 깨닫도록 돕는 데 한 가지 은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할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께 이끌린다.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열쇠라는 점을 분명히 알자. 우리는 이 열쇠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이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어떤 종류의 가르침이나 은사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좋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많은 선물을 가지고 떠났다. 이 모든 선물들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도록 도와주었다. 이것이 은사의 참된 위치이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선물들을 받은 후 그 선물들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저는 이삭에게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 선물들을 즐기다가 이삭을 잊어버린 채로 여기에 머

물러 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을 만나러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한 후로는 더 이상 그 선물들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리브가는 날마다 이삭과 함께 사는 것이 즐거웠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방언보다 훨씬 더 낮고 예언과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분이시다!

내 손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모든 문을 열어서 온 집을 다 누릴 수 있다. 만일 열쇠가 없다면 열쇠 만드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러나 내게 열쇠가 있다면 열쇠공의 봉사가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열쇠공이 아닌 열쇠이다. 열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열쇠공이 필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열쇠를 찾으려고 어떤 교훈이나 은사들을 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깨닫는 열쇠가 우리 수중에 있다면 가르침과 은사는 깨끗이 잊어버리자. 우리의 영을 분별하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접촉하며 그분과 교통하는 데 모든 주의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쇠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은사와 가르침을 나누어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열쇠공에게만 집착하여 날마다 그에게 가서는 안 된다. 일단 열쇠를 얻었다면, 열쇠공에게 감사하고 그를 떠나라. 건물 안에 들어와서 그 풍성을 발견하기 위해 열쇠를 사용하라. 매일 매일 이 놀라운 삼일 하나님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만유를 포함하신 성령을 누리라. 영을 분별할 때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중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접촉함으로써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이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과 은사를 주실지라도 그 목표는 곧 만유를 포함한 완전하신 주님 자신이다. 그분 자신 이외의 어떤 것에도 정착하지 말자.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사시는 것이다. 온종일 우리는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키기를 구하며, 영을 분별하여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기를 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열쇠를 소유하게 된다.

제 5 장

하나님의 세 위격과 사람의 각 부분

고린도후서 4장 3-7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생각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들은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다. 대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두려워한다. 4절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과 일치한다. ‘보배’란 질그릇인 우리 안에 자신을 비추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경륜의 표적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해 놓으시는 것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세 위격을 통해 그분 자신을 우리 각 부분에 분배해 놓으신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수천 번, 수만 번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

고 있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분 자신을 사람 속에 분배해 넣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유일한 목적은 사람이 그분의 용기(容器, 담는 그릇)가 되는 것이다. 나는 용기라는 말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릇’이라는 단어보다 더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로마서 9장 21절, 23절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분명히 나타난다. 우리는 단지 빈 용기이며, 하나님은 이 용기의 유일한 내용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를 들어 보자. 병은 음료를 담는 데 필요하며 전구는 전기를 담는 데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음료수 병을 본다거나, 전기를 담는 전구를 본다면 이 ‘특별한’ 용기들이 특별한 용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아주 독특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 또한 ‘특별한’ 그릇들이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일단 전구로 제조되었으면 전기를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구는 의미가 없으며 아무 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병이 만일 음료를 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무의미하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도록 만들어졌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담지 않고 우리의 내용인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모순덩어리일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든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혹은 얼마나 많은 부(富)를 소유하고 있든지 우리는 여전히 무의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내용으로 담도록 지어진 용기이기 때문이다. 용기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온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을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이다.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바로 내용이시며 우리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진 용기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내용으로 넣으시려면 그분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셔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 위격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단수인 '나'가 아니라 복수인 '우리'가 사용되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 절에서는 ‘자기 형상’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단수인가, 복수인가? 누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는 데에 복수대명사를 사용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한 분 이상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단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복수대명사가 사용되어야 하는가?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복수라는 것을 안다.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말은 ‘엘로힘’인데, 이 단어는 복수이다. 그러나 히브리말로 ‘창조했다’의 단어는 단수 술어 동사이다. 이것은 매우 기이하다. 이 구절의 문법적인 구성은 주어는 복수로 되어 있으나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다. 아무도 이 문제를 논박할 사람은 없다. 그것은 히브리어에 의해 증명된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물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세 분이신가?

이제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 보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 그 이름은 …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구절은 전능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어린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린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의 예언에 동의한다. 여기에서 언급된 아기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를 말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태어난 어린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

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또는 영원한 아버지)라 불린다. 이것은 매우 기이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는 아들이 아들이신가, 하나님이신가?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리는 아들이 아들이신가, 아버지이신가?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은 다만 그것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된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린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아버지라고 불린 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다만 한 하나님이 계신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지금 주는 영이시니”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구절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 말씀은 또 주님을 영이시라고 말한다. 그 영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그 영이 분명히 성령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라 불리시고, 주님이신 그 아들은 또한 영이시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이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그분의 세 위격에 의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 세 위격이신 아버지의 위격과 아들의 위격과 성령의 위격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으실 수 없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말하고 있다. 이 구절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한 위격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이름들’ 이라고 하지도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단수)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 필요한가? 만일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본다면 이름에 대하여 사용된 전치사가 원래는 ‘안으로(into/unto)’

라는 전치사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읽어야 한다. 같은 단어가 로마서 6장 3절에서도 사용되는데,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보자. 여러분이 수박을 산다면 그 목적은 이 수박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의도는 이 수박이 여러분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은 수박을 산다. 그다음 그것을 여러 쪽으로 자른다. 그다음에는 이 수박이 여러분의 위(胃)로 들어가기 전에 씹어 줄 때까지 씹는다. 수박이 조각들이 되고, 이 조각들은 씹이 된다. 그러면 이것들은 각각 다른 세 가지인가, 아니면 한 가지인가? 나는 이것이 삼일성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수박은 대부분 여러분의 위보다 더 크다. 여러분의 입은 아주 작고, 여러분의 목구멍도 아주 가느다란데 어떻게 큰 수박을 삼킬 수 있겠는가? 그 수박을 여러분이 먹기에 알맞은 크기로 조각조각 잘라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박을 먹자마자 그것은 씹이 될 것이다. 그 조각들은 수박이 아닌가? 또 그 씹은 수박이 아닌가? 만일 그것들이 수박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가장 무지한 사람일 것이다.

아버지는 온전한 수박으로, 아들은 수박 조각들로, 성령은 수박 씹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은 요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또한 아들이시다. 그리고 아들은 아들이실 뿐 아니라 또한 영이시다. 바꿔 말하면 이 수박은 먹기 좋은 조각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씹이기도 하다. 일단 그 수박을 먹으면 수박은 없어진다. 본래 수박은 식탁 위에 있었지만, 온 가족이 그 수박을 먹은 후에는 그 수박이 온 가족들 안에 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는 1장에 계시고, 아버지의 표현이신 아들은 그 다음 장들에 계시며, 결국 아들의 호흡이신 성령께서 20장(22절)에 계신다. 이 하나의 복음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계시한다. 요한복음의 스물한 장을 모두 읽어 보라. 먼저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한다. 하나님 자신인 이 말씀이 어느 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곧 우리 ‘안

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때 그분은 33년 반 동안 이 땅 위에서 사셨고, 결국에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은 신비스럽고 기적적이고도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 부활하신 후 그분은 밤에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모든 문은 닫혀 있었는데, 그분은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우리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없다. 주님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신 것이다. 그분은 결국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호흡이 바로 수박의 즙과 같은 성령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다. 요한복음 이후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복음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끝 부분에서 이 놀라운 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수박처럼, 호흡인 성령을 통해 제자들 안에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 위격에 의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해 넣으시는 것이다. 신격의 세 위격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세 위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결코 분배되어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수박의 예와 같다. 수박이 조각조각 잘려 즙이 되지 않는다면 수박은 결코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서로 다른 세 위격에 의해서만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오실 수 있다.

생각과 마음과 형상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로 와서 그릇인 우리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의사들은 사람의 몸이 매우 복잡 미묘하다고 말할 것이다. 사람은 음료를 담은 병처럼 그렇게 단순한 용기가 아니다. 사람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에 명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위격뿐만 아니라 사람의 각 부분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의 세 위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은 우리 사람의 각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한다. 그러나 그 자동차의 부품을 모른다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적어도 운전엔 필수적인 부품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브레이크, 기어, 점화 장치 등과 같은 것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자동차의 각 부분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작동하는 법을 모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담는 길을 알려면 사람의 각 부분을 알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4장의 짧은 구절들에서 사람의 각 부분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생각해 보라. 4절에는 생각이 있고, 6절에는 마음이 있다. 적어도 두 부분, 즉 생각과 마음을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바로 이 시간까지도 생각과 마음의 차이를 모를 것이다. 우리는 생각이 대적에 의해 가려질 수 있고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진다는 것을 읽었다. 이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가리지만, 하나님은 믿는 이들의 마음 안으로 그분의 빛을 비추신다. 아마 여러분은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사람의 두 부분이 있다는 것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성경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정의하기 전에, 카메라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카메라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카메라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내가 도쿄(東京)를 방문했을 때 도쿄를 담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있었다. 내 의도는 카메라 밖에 있는 형상을 카메라 안에 담는 것이었다.

카메라에 하나의 사진을 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밖의 렌즈와 안의 필름 그리고 빛이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물체가 카메라 속에 담길 수 있다. 수년 전 나는 열차 여행을 할 때 사진을 몇 장 찍은 일이 있다. 그 필름을 현상해 보니 그중 여러 장에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다. 어찌 된 일이었을까? 그 원인은 사진을 찍을 때 너무 서두른 나머지 깜박 잊고 렌즈의 뚜껑을 열지 않은 데 있었다. 렌즈가 덮개로 가려 있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들으러 왔을 때 “아, 오늘 밤에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대적이 그의 생각을 가린 것이다. 생

각은 이해하는 기관인데, 사탄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이해력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그가 아무리 많이 들었더라도 그의 이해력이 어둡게 되고 가려진 것이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그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온 것이 없었다.

30년 전, 워치만 니 형제님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선(善)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형제님은 매우 강조했으므로, 그 사실은 아주 분명해졌다. 어떤 한 형제가 친구를 집회에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는 메시지를 듣는 동안 이해한다는 듯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 형제는 그의 친구가 메시지를 잘 듣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매우 기뻐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나중에 그 형제가 친구에게 “말씀을 들어 보니 어떤가?”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응, 모든 종교는 다 착한 일을 하라는 거지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니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결코 선을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였던 것이다. 이 사람의 대답은 그의 생각이 대적에 의해 가려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동안 이 세상 신이 그의 눈을 가리지 못하도록 대적을 묶어 달라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렌즈의 덮개를 벗기는 것을 의미한다.

렌즈의 덮개를 벗긴 후에는 올바른 필름이 필요하다. 알맞은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렌즈가 좋더라도 사진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맞지 않는 필름을 사용하면 올바른 사진을 만들 수 없다. 필름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해당된다. 생각은 렌즈와 같고 마음은 필름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적절히 조절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렌즈도 필요하고 필름도 필요하다. 이해하는 생각도 필요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필요하다.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올바르게 조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렌즈와 필름이 있다 하더라도 빛이 또한 필요하다. 렌즈를 통하여 필름에 비춰지는 빛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한 빛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넣어 주기 위해 우리에게 비친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인 것이다. 이 설명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루는지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카메라의 예와 똑같다. 우리는 렌즈를 조절하고 필름을 사용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만일 렌즈와 필름을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면 결코 사진을 잘 찍지 못할 것이다.

영적인 체험도 사진을 찍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 자신은 카메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진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카메라를 사용하는지 배워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실상 그들은 그들 자신이 카메라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요, 다만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오신 살아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주님께서 바로 물체이시요 형상이시며, 우리는 카메라이다. 물체이신 주님께서 렌즈를 통해 필름에 거룩한 빛을 비추심으로써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오셔야 한다. 우리가 매일 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성한 빛이 생각의 이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인 체험이란 무엇인가? 영적인 체험은 다만 그리스도의 사진이 카메라인 우리 안에 찍히고 우리의 영적인 필름 위에 새겨지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렌즈는 거의 항상 가려져 있으며 필름도 보통 부적절하게 조정되어 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의 필름을 본다면 거기에는 사진이 없다. 필름의 모든 사진은 텅 비어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카메라를 열어서 필름을 꺼내 본다면 사진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것은 렌즈를 어떻게 조절하며 필름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다. 즉,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다루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당하게 조정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잘할 때, 신성한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으로 비취질 것이고,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진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그 표적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각 부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각 부분에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 외에도 그 모든 다른 부분들을 계속해서 더 알아야

한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모든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며, 그 후에는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볼 것이다.

제 6 장

속 부분들과 감추어진 부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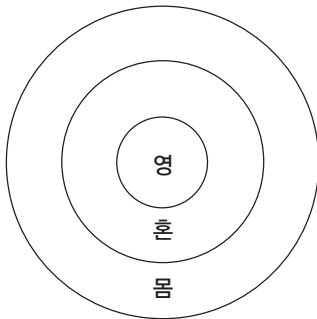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그릇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앞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내용으로 담은 그릇이 되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았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진 존재로 만드셨다. ‘부분들’이라는 용어를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 부분들(inner parts)에 두며”라고 말씀하신다. 속 부분들은 우리의 혼 안에 있으며 밖에 있는 몸의 지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무엇이 속 부분들이며, 마음이란 또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인 “내가 …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와 비교한다면 작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예레미야서는 “그들의 속 부분들에”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히브리서는 “저희 생각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생각이 속 부분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속 부분들’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시편 51편 6절에는 “속 부분들에 진리를 주께서 원하시오니”라고 되어 있다. 그 속 부분들은 진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시편의 이 구절에는 속 부분들 이외에도 ‘감추어진 부분’이라 불리는 부분이 또 있다. “감추인 부분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진리는 속 부분들 안에 있지만, 지혜는 감추어진 부분 안에 있다. 우리는 이 속 부분들이 무엇이며 감추어진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의 세 부분—영과 혼과 몸

다음에 언급되는 몇 구절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구절들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우리가 세 부분, 즉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세 개의 동심원을 그려 이것을 설명해 볼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또한 영과 혼을 언급하면서 이 두 부분의 분리를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알고, 좋은 땅이요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혼과 영을 분별해야 한다. 영은 우리 안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려면 우리의 혼과 영을 분별해야 한다. 이 구절은 영과 혼의 차이뿐만 아니라 몸의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의 차이도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산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분별시킨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실제적으로 알려면 이 모든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여기서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는가?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에도 영과 혼이 구분되었다.*

* 개역 성경에서 1장 46절의 '영혼'은 원문에서 '혼'이며 1장 47절의 '마음'은 '영'임—역자주

빌립보서 1장 27절은 한 영(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영)과 한 혼으로서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개역 성경에서 ‘일심’은 원문에서 ‘한 영’이며 ‘한 뜻’은 ‘한 혼’임—역자 주). 이 구절도 역시 영과 혼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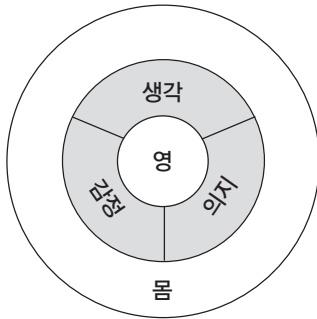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 30절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구절에는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 등 네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 모든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몸의 여러 부분 외에도 우리 안에 매우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테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음을 보여 주며, 시편 51편은 감추어진 부분과 속 부분들이 있음을 계시하고 있다. 속 부분들이란 혼의 부분들인데, 이것은 히브리서 8장 10절과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비교해 봄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히브리서에서는 ‘생각’이 ‘속 부분들’ 대신 사용되어 있다. 속 부분들이 분명히 혼의 부분들이듯이 감추어진 부분은 분명히 영이다. 우리의 모든 부분 중에서 영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이 감추어진 부분이다. 이 가장 깊은 부분은 단지 몸 안에만 감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혼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몸인 ‘외적인’ 부분들과 혼인 ‘속’ 부분과 영인 ‘감추어진’ 부분이 있다.

혼의 세 부분—생각과 의지와 감정

혼에 세 부분이 있고, 영에도 세 부분이 있다. 우리는 영과 혼의 세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마음이 무엇인지도 정의해야 한다. 테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지만 마음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음은 속 부분들이나 감추어진 부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혼이 생각과 의지와 감정, 세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해 준다. 다음 도표에서 어두운 부분은 혼의 각 부분을 설명해 준다.



잠언 2장 10절은 혼에 지식이 필요함을 암시한다(개역 성경에서 '영혼'은 원문에서 '혼' 임—역자 주). 잠언 19장 2절과 24장 14절도 주목해 보라(개역 성경에서 19장 2절의 '소원'과 24장 14절의 '영혼'은 원문에서 '혼' 임—역자 주). 지식은 생각의 기능이므로, 이것은 생각이 혼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잠언의 이 세 구절은 모두 혼 안에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편 139편 14절은 “내 혼이 잘 안다”라고 말한다. 아는 것은 생각에 속한 것이며, 그것은 생각이 혼의 일부임을 다시 증명해 준다. 시편 13편 2절은 혼이 경영하고 숙고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생각을 언급하는 것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0절은 '기억'이 혼에 속한 것임을 지적한다. 즉, 혼은 어떤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혼 안에 알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부분이 바로 생각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혼의 둘째 부분은 의지이다. 욥기 7장 15절은 혼이 선택한다고 말한다(개역 성경 욥기 7장 15절의 '마음'은 원문에서 '혼'이며 '원하오니'는 '선택하오니' 임—역자 주).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정이다. 이것은 의지가 혼의 일부임을 증명한다. 욥기 6장 7절은 혼이 거절한다고 말한다(개역 성경의 '마음'은 원문에서 '혼'이며 '싫어하나니'는 '거절하나니' 임—역자 주). 선택하는 것과 거절하는 것은 모두 의지의 기능이다. 역대상 22장 19절은 “너희는 마음과 혼을 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도록 하고”라고 말한다. 우

리는 생각을 정하여 사고(思考)하게 하는 것과 같이 또한 혼을 정하여 추구하게 한다. 물론 이것은 혼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서, 의지가 혼의 일부분임을 증명한다. 또한 민수기 30장에서는 “혼을 제어(制馱)한다”는 말이 열 번이나 언급된다. 우리가 이 장을 읽어 볼 때 혼을 제어한다는 것이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맹세한 서원의 문제를 다룬다. 혼을 제어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서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지는 혼의 일부분임이 증명된다. 시편 27편 12절, 41편 2절, 에스겔 16장 27절은 히브리어의 ‘혼’을 ‘뜻(의지)’으로 번역하고 있다(에스겔 16장 27절은 “... 부끄러워하는 자의 ‘뜻’에 너를 붙여”라고 번역해야 함—역자 주). 시편 기자는 “나를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기도한다. 이 구절의 원어의 의미는 “나를 내 대적의 혼에 맡기지 마소서”이다. 이것은 의지가 혼의 일부분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감정은 혼의 셋째 부분이다. 감정에는 여러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사랑, 미움, 기쁨, 슬픔 등이 모두 감정의 표현이다. 사랑에 대한 언급은 사무엘상 18장 1절과 아가서 1장 7절과 시편 42편 1절에서 발견된다(개역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과 아가서 1장 7절의 ‘마음’은 원문에서 ‘혼’이며, 시편 42편 1절에서 ‘영혼’은 ‘혼’임—역자 주). 이 구절들은 사랑이 혼 안에 있는 것임을 보여 주기 때문에 혼 안에는 감정과 같은 기관 혹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미움에 관해서는 사무엘하 5장 8절, 시편 107편 18절, 에스겔 36장 5절을 주목해 보라(개역 성경 사무엘하 5장 8절의 ‘마음’은 원문에서 ‘혼’이며, 에스겔 36장 5절에서 ‘심령’은 ‘혼’임—역자 주). 이 구절들은 미움이 혼에 속한 것임을 지적한다. 미움은 감정의 표현이므로 이 구절 또한 감정이 혼의 일부분임을 증명한다. 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은 에스겔 36장 5절에서 ‘혼의 떨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구절을 좀더 잘 번역하였다. 그것은 싫어함이나 미워함이 혼에 속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사야 61장 10절과 시편 86편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같이(개역 성경 이사야 61장 10절과 시편 86편 4절의 ‘영혼’은 원문에서 ‘혼’임—역자 주) 감정의 또 하나의 요소인 기쁨 또한 감정이 혼의 일부분임을 입증해 준다. 사무엘상 30장 6절과 사사기 10장 16절에서는 슬픔을 언급한다(개역 성경 사무엘상 30장 6절과 사사기 10장 16절의 마음은 원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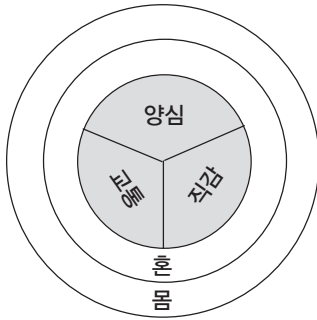
서 ‘혼’ 입—역자 주). 감정의 또 하나의 방면이 소원이다. 이것에 관한 구절은 사무엘상 20장 4절, 신명기 14장 26절 등이다(개역 성경 사무엘상 20장 4절, 신명기 14장 26절, 에스겔 24장 25절의 ‘마음’은 원문에서 ‘혼’ 입—역자 주). 에스겔 24장 25절과 예레미야 44장 14절에 관한 올바른 의미는 영 성구사전(Young’s Concordance)이나 스트롱 성구사전(Strong’s Concordance)을 참조하여 미국 표준역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절들은 감정의 한 요소인 소원이 혼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구절들은 혼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 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세 부분 이외에 혼에 속한 또 다른 부분을 발견해 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세 부분이 혼에 속한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은 인도하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는 의지와 감정이 수반된다. 이러한 구절들은 혼의 세 부분이 무엇인지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영의 세 부분—양심과 교통과 직감

하나님의 세 위격, 사람의 세 부분, 혼의 세 부분, 영의 세 부분을 주목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건축물인 장막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3’은 기본적인 숫자이다. 노아의 방주도 삼층으로 되어 있었다. 장막에서도 ‘3’이라는 숫자가 여러 차례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널판 하나의 넓이는 일 규빗 반이다. 두 개의 널판이 한 짝으로 연결될 때 그 넓이의 합은 삼 규빗이다. 이것은 ‘3’이라는 수가 완전한 하나의 단위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은 세 부분 또는 양심과 교통과 직감의 기능으로 구성된 완전한 하나의 단위이다. 다음 도표의 어두운 부분은 영의 각 부분을 보여 주고 있다.



양심을 이해하기는 쉽다. 우리는 모두 양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 큰 것과 옳은 것을 인지하는 것이 양심의 한 기능이다. 정죄하거나 의롭다 하는 것도 양심의 또 다른 기능이다. 교통신은 이해하기 쉽다. 교통신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교통신의 기능이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간단히 말하면, 교통신이란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다. 그러나 직감을 이해하기란 그다지 쉽지 않다. 직감은 직접적인 감각이나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영 안에는 이성(理性)이나 상황이나 배경과 관계없는 직접적인 감각이 있다. 그것은 이성 밖의 감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감각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직접적인 감각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직접적인 지식이다. 우리는 이 기능을 영의 직감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영은 양심과 교통신과 직감의 기능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이 세 부분이 성령 말씀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먼저 양심은 로마서 9장 1절의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에서 발견된다. 로마서 9장 1절과 로마서 8장 16절을 비교해 보면 양심이 사람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양심이 성령으로 더불어 증거한다. 이것은 양심이 우리 영의 한 기능임을 증명해 준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으로 죄 지은 사람을 판단했다고 말한다. 판단한다는 것은 정죄하거나 의롭다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것은 바로 양심의 행위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 안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정죄하거나 의롭다 하는 기능이 영 안에 있음을 확증해 준다. 그러므로 양심은 영 안에 있다. 시편 51편 10절은 “내 안에 정직한 영”, 즉 올바른 영을 말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은 양심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 역시 양심이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시편 34편 18절은 “영 안에서 통회하는 자”에 관하여 말한다. 통회하는 것은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서, 곧 양심의 기능이다. ‘영 안에서 통회하는 것’은 양심이 영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신명기 2장 30절은 “그 영을 무감각하게 하셨고”(원문 참조, 개역 성경 신명기 2장 30절의 ‘성품’은 원문에서 ‘영’ 임—역자 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양심이 무감각해졌음을 의미한다. 영 안에서 무감각한 것은 양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양심의 느낌을 던져 버릴 때 우리는 영 안에서 무감각하게 된다. 이 구절들은 양심의 기능이 사람의 영 안에 있다는 가장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

계속해서 교통에 관한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자. 첫째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영(spirit)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영 안에서 경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접촉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경배하거나 교통하는 기능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입증한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영(spirit)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의 또 다른 형태이다. 이것 또한 교통을 위한 기관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증명한다. 로마서 7장 6절은 “우리가 영(spirit)의 새로움 안에서 섬길 것이요”라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봉사란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자. 헬라어 행간역은 이 구절을 “항상 영(spirit)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번역했다. ‘영’ 앞에 아무 관사도 없고 대문자로 쓰여 있지도 않다.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의미한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는 “내 영(spirit)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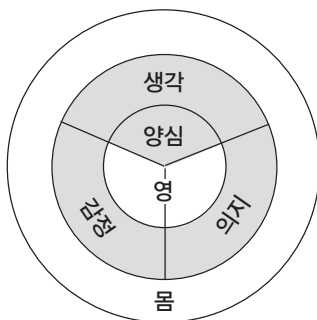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접촉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바로 영 안에 있는 기능이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 증거하시나니”라고 되어 있다. 이 구절은 매우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우리의 영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임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한다. 참된 교통은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통은 영 안에 있다. 이 모든 구절들은 교통의 기능이 사람의 영 안에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직감에 대해서는 어떤가? 비록 이 기능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지만, 근거가 되는 몇 구절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혼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사람의 영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영은 혼이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증명한다. 우리의 혼은 이성(理性)이나 환경의 경험으로 어떤 일들을 알 수 있지만, 사람의 영은 이런 것들 없이도 분별할 수 있다. 이 직접적인 감각은 직감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마가복음 2장 8절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곧 그분의 영(spirit) 안에서 아시고”라고 말한다. 또한 마가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그분의 영(spirit) 안에서 깊이 탄식하시며”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는 “영(spirit) 안에서 통분히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다. 영으로 알고, 탄식하고, 통분히 여기는 것은 이성을 의존하지 않고 직접 분별할 수 있는 감각에서 온 분별이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영의 셋째 기능인 직감이라고 부른다.

이제 우리는 이 여섯 부분, 즉 혼의 세 부분과 영의 세 부분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마음의 네 부분—생각, 의지, 감정, 양심

그러면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은 혼과 영 이외의 별개의 부분이 아니라 혼의 모든 부분과 영의 한 부분의 구성체이다. 마음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더하여 영의 한 부분인 양심을 포함한다. 다음 그림의 어두운 부분은 마음을 구성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



사람은 그의 전 존재를 구성하는 세 부분 이외의 또 다른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 사람으로서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넷째의 독립된 부분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혼의 한 부분인 생각이 마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9장 4절은 “너희가 … 마음에 …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고의 과정이 생각에 있으므로, 이것은 생각이 마음의 일부분임을 증명한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마음의 사상들’이라는 표현이 있다. 사상은 생각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6장 5절은 ‘마음의 사상들’에 관하여 언급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마음의 사상들’이라고 말하는 동일한 어구를 볼 수 있다. 이 세 구절들은 혼의 기관인 생각이 마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준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는 ‘마음의 목적’ 또는 ‘마음 안에 있는 목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개역 성경 사도행전 11장 23절의 ‘굳은 마음’은 원문에서 ‘마음의 목적’ 또는 ‘마음 안에 있는 목적’ 임—역자 주). 목적은 의지의 기능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이 마음에 속한다. 이것은 의지 역시 마음의 일부분임을 나타낸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마음의 뜻’을 말하고 있다. 뜻은 목적과 일치하는데, 그것은 의지에 속한 것이다. 이것 또한 의지가 마음의 일부분임을 증명한다. 그 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 두 구절로도 충분하다. 성경적인 표준에 따르면, 단지 두 명의 증인이면 충분하다.

감정은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에 나타나 있다. 기뻐한다는 것은 감정의 한 요소이지만 여기에서 주님은 마음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이것은 감정 또한 마음의 일부분임을 확증하고 있다. 같은 장(章)에서 주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하였도다”(6절)라고 말씀하신다. 근심은 감정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은 감정 또한 마음의 일부분임을 증명한다.

양심에 관하여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에 악을 깨닫고”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양심이 마음과 관계됨을 보게 된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면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져야 한다.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뿌림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의심할 바 없이 양심은 마음의 일부분이다. 요한 일서 3장 20절은 “마음이 ... 책망할 일이 있거든”이라고 말한다. 책망하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양심 또한 마음의 일부분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제시한 모든 성경적인 근거는 혼의 모든 부분과 영의 한 부분,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의 네 부분이 마음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제 7 장

속 부분들과 감추어진 부분들의 기능

계속해서 사람의 속 부분들과 감추어진 부분을 보기로 하자. 우리는 속 부분들과 감추어진 부분이라는 이 두 용어를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속 부분들은 혼의 각 부분을 말하며, 감추어진 부분은 바로 우리의 영을 가리킨다. 사람의 혼이나 영은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마음은 혼의 세 부분과 영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이 모든 부분을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마음의 기능이 무엇인지, 또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그다음은 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 분명히 보고, 사람의 모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깊은 인상을 받고, 더 나아가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 영과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알 수 있기 원한다. 이 장에서는 마음과 영과 혼의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영이나 혼보다도 마음이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 그 까닭은 마음이 바로 혼의 각 부분뿐만 아니라 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양심까지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양심에서 시작된다. 만일 우리의 양심이 잘못되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잘못되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양심은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보장되려면 먼저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기관인 마음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그러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고 말한다. 먼저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져야 한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다. 타락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돌이켜졌다.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일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음은 날마다, 항상 주님께 돌이켜져야 한다. 매일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긍휼과 은혜로 오늘 온종일 새롭게 제 마음을 당신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질 때 우리를 가리고 있는 수건이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왜 나는 인도를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주님의 뜻을 모르는가?”라고 탄식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져야 한다. 젊었을 때 나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제 마음을 당신께 항상 돌이키게 하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했다. 오, 그러한 기도는 효과가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라. 아침에 말씀을 읽기 전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라. 수건은 사라지고 빛이 올 것이다.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은 여러분과 그분 사이의 수건을 제하실 것이며 그로 인해 여러분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일단 마음을 주님께 돌이킨 다음에는 바로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네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라고 말한다. 믿음은 영이나 생각이나 의지를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사용하는 문제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동역하려면, 믿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킨 후에는 즉시 우리 마음속의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믿어야 한다.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 마음에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든 의심에서 지켜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마음은 악한 양심에서부터 피 뿌림을 받아야 한다(히 10:22). 마음 자체가 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양심이 뿌림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양심은 항상 주 예수님의 구속하는 피가 뿌려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많은 것들에서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의 양심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양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한다.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가 갖는 한 가지 느낌은 자신이 다 옳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그르고 자신만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질 때 우리는 자신만 볼 수 있을 뿐 남들은 볼 수 없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자녀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동료들에 대해 잘못되어 있음을 느낀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책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양심의 책망이다. 바로 이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양심의 내적인 책망에 따라 모든 것을 자백할 것이다. 우리가 자백하면 할수록 주 예수님의 피가 더욱더 우리의 양심에 적용될 것이다. 양심은 정화되고 청결하게 되어 거리낌이 없는 순수한 양심이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양심에서부터 피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아주 깨끗이 정화되어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정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주님 안의 기쁨으로 충만될 것이다.

더욱이 에스겔 36장 26절에 의하면 마음은 새로워져야 한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주님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모든 부정함이나 죄나 심지어 우상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방면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방면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음 절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하고 있다. 새 마음이란 옛 마음이 새로워진 것이다.

마음을 처리하는 것에는 네 단계가 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네 단계들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는 날마다 이 네 단계에 의해 마음을 새

롭게 해야 한다.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마음을 사용하여 주님을 믿으며, 악한 양심에서부터 뿌림을 받아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오늘 살아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또한 새롭게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즉시 이 네 단계를 모두 실행하여야 한다. 먼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주여, 제 마음을 당신께 돌이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다음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님,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이 저 자신과 제 환경을 처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주님을 믿어야 한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많은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 정결케 되고 뿌림을 받기 위하여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신선하고 새로워질 것이다.

이 네 단계는 우리의 마음이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마음의 기능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네 마음을 ...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준다. 마음은 주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마음이 없다면 사랑할 수 없다. 눈 없이 볼 수 있는가? 귀 없이 들을 수 있는가? 생각 없이 사고(思考)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마음이 없다면 결코 사랑할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기능을 모른다. 눈과 귀와 생각의 기능은 알지만 마음의 기능만은 모르고 있다.

사랑은 마음의 문제이다. 우리는 코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의 손으로도 사랑할 수 없다. 마음만이 사랑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자기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주님 자신이든 그 밖의 다른 것이든, 어떤 것을 사랑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우리는 주님을 믿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에서부터 더 많이 뿌림을 받고 더 많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역량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워진 마음의 기능이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영적 체험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 체험도 가질 수 없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첫 체험인 구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계가 있다.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들은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깊은 속에 달콤한 사랑의 느낌을 갖게 된다. 비록 그들은 모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첫 '체험' 은 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반향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돌이키고 훈련하며, 계속해서 악한 양심에서부터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타락하고 하락한 원인은 교회가 주님에 대한 신선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신선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타락한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새롭고 신선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받아들이는 기관인 영

우리는 마음의 기능을 알아보았으므로 이제는 영의 기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은 우리가 본래 죽어 있었지만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소생되어 살아났다고 말한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렸을 때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이렇게 여전히 살아 있는데도 내가 죽었다니?" 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물론 그 후 나는 그 말이 나의 영이 죽었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죽어서 기능을 상실한 것은 바로 나의 영이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영은 잠을 자는 것처럼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은 (우리는 '성령' 이라는 칭호가 사용될 때 그것이 만유를 포함하신 영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우리 영을 만지셨다. 그러한 접촉을 통해 우리의 영은 소생되었다. '소생되다' 라는 헬라어 단어

는 현대 언어로 합당하게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다. 헬리어로 그 단어는 다만 접촉함으로써 생명이 공급되고 나뉘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기(電氣)로 설명될 수 있다. 전기를 만지면 전기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의 영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고, 그러한 접촉에 의해 주님 자신인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죽어 있는, 잠자는 영이 즉시 살게 되었다. 이것은 기적 그 이상의 것이다. 많은 때 우리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놀랍고도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소생시키신 것은 훨씬 더 기적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속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한순간에 영 안에서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날 수 있다. 성령은 전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며 전기가 전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말한다. 우리는 죄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소생되어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의 영이 되살아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을 뜻한다. '거듭남'의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를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더해졌음을 의미한다. 이 생명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통해 성취하신 일에 근거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으로 이끌어 오셨다. 우리의 영 안에 더해진 이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 그 이상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은 영이 회복되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본질이 우리의 영 안에 더해진 것이다. 이 더해진 새 본질 또는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생인 거듭남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한다. 새로운 출생인 거듭남에 의하여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 이외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해졌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더해졌다."라고 거듭

거듭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었던 옛것이 새로워지고 소생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께서 신성한 생명의 본질로서 우리 안에 더해지셨다. 이것이 거듭남이요, 새 생명이다.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 영을 갖게 되었다(겔 36:26).

한 가지 물어보겠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자신을 새 생명으로 영접했는가?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다시 묻겠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아직도 그토록 빈곤한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 계시고 실재이신 이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다. 원자력은 다만 외적인 것일 뿐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심지어 종이 한 장 안에도 원자력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원자력보다도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영 안에 더해졌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펼쳐 뛰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칠 것이다. 여러분은 그토록 놀랍고, 만유를 포함한, 무궁무진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더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묘사할 알맞은 말이 없다. 다만 영원만이 그 이야기를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만유를 포함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신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것이다(겔 36:26, 27, 요 14:17). 이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살고 계신다(롬 8:11, 16). 우리의 영은 바로 성령의 거처이다. 이 성령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생각해 보라.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은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소생되어 거듭났고, 만유를 포함하신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영은 이제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되었다. 우리의 영과 성령이신 주님 자신이 한 영으로 연합되었다(고전 6:17). 인간의 어떤 말로도 이 비밀을 다 이야기할 수 없다.

영의 목적과 기능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며(요 4:24),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위격들과 교통하는 것이다.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고, 영은 접촉하며 받아들이는 기관이다. 우리의 영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그분

을 영으로 접촉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괴로워했던 한 자매를 잊을 수 없다. 그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영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영과 마음을 동의어(同義語)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후 이 자매는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영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까?”라고 물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자매님, 여기에 좋은 성경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시나요?”라고 물었다. “물론 사랑합니다.”라고 그 자매는 대답했다. 내가 “것을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하자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안 됩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성경을 사랑하는 한 그것으로 좋습니다. 성경을 갖기 위해 당신의 손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요점은 분명하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는 영이 필요하다.

내가 아침 식사를 사랑한다고 가정해 보자. 내 마음이 베이컨, 토스트, 우유, 주스 등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족한가? 절대로 아니다. 만일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며칠 후에는 죽어서 장사될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다. 그러나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관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에 따라 우리가 사용할 기관도 다르다. 음식을 받아들이려면 입을 사용해야 한다. 소리를 받아들이려면 귀를 사용해야 한다. 아름다운 경치를 받아들이려면 눈을 사용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므로 주님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기관을 사용해야 하는가? 눈을 사용해야 하는가? 눈으로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분은 더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할 수 있도록 오직 한 기관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다. 몸에서 위(胃)가 가진 기능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영적으로 위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 사람이 먼저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

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먼저 식욕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을 받아들이고 접촉하고 교체하며 그분과 교통할 것이다. 마음은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영은 받아들이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심과 소원을 갖게 되고, 영을 새롭게 할 때 주님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에 더해지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가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된 후, 우리의 영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하는 매우 예민한 기관이 된다.

반사하는 기관인 혼

이제 혼을 살펴보자. 혼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첫째로 혼을 부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두 단락은 우리가 자아(自我)인 혼을 부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앞 장에서 우리는 혼인 우리의 자아가 생각과 의지와 감정,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고난 생각과 타고난 의지와 타고난 감정을 부인하기를 배워야 한다.

둘째로 혼은 깨끗게 되어야 한다(벧전 1:22). 그것은 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이고 세상적이며 천연적인 수많은 것들에서부터 혼을 깨끗게 할 수 있다. 우리의 혼은 육적이고 세상적이며 천연적인 것들로 거의 손상되고 점유된 우리의 자아 또는 우리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혼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혼을 부인할수록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깨끗게 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의 혼은 변화되어야 한다(고후 3:18, 롬 12:2).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하는지는 지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는 혼에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생각은 혼을 주도하는 부분

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 후에는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야 한다.

혼은 부인되어야 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인가?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며, 영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혼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주님을 반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대부분의 성경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의 '반사하다'는 말을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반사하는 것'은 거울의 기능이다. 거울은 가려진 것이 없을 때 주목하고 반사한다. 혼은 정결케 되고 변화됨으로써 거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반사하고 표현하는 기관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하며, 변화된 혼으로 주님을 반사하고 표현한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해야 한다. 그때 우리의 생활은 여기에서 설명된 모든 것들이 참으로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제8장 마음과 영의 처리

우리는 마음과 영과 혼의 정의와 기능을 살펴보았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으로 유지된다. 물론 주님을 접촉하는 것은 영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마음에 의해 시작되고 또 유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전 존재의 입구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방이 있는 건물도 하나의 출입구가 있고, 사람들은 언제나 그 출입구로 들어오고 나간다. 입구가 닫히면 모든 사람이 건물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일단 입구가 열리면 모두 그 건물에 들어가 각 방을 사용하며 누릴 수 있다.

마음은 우리 존재와 분리된 또 하나의 독립적인 부분이 아니라 혼의 모든 부분과 영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다. 마음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 존재의 입구가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마음은 우리 존재의 입구도 되고 출구도 된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 마음을 통해 들어오고,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도 모두 마음을 통해 나간다.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깨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본질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그 내용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식사하는 동안이라도 우리에게 먹을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음식 맛을 모를 것이다. 이것은 마음이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건물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출입문을 열고 닫아야 한다. 이처럼 마음에는 우리 전 존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성

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만 만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닫는 이유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전할지라도 불신자들이 마음을 닫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만질 수 없고 아무것도 그들 속에 공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구'가 닫혀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입구를 헤치고 들어갈 길을 찾아야 한다.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은 마음을 여는 열쇠를 발견한 사람이다.

주님 자신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매혹하신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영을 분발시키시는 것이 아니다. 아가서의 첫 부분에 나오는 추구하는 여인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매혹시켜 달라고 주님께 간구한다. 주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위해 오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장)라고 물으신 이유이다. 주님의 사랑은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으로 마음을 여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일단 마음이 열리면 성령은 쉽게 그 사람의 영과 각 부분을 만지실 수 있다. 이것은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급하는 일 모두에 적용된다.

마음의 처리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다시 말하거나와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성경은 “마음이 순수한(pure) 자는 복이 있나니”(마 5:8)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번역자들은 ‘순수하다’는 말을 ‘깨끗하다’ 또는 ‘청결하다’로 바꿔 놓았다. 그러나 ‘깨끗하다’는 말은 합당치 않다. 그것은 마음의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함의 문제이다. 우리는 깨끗할지는 몰라도 혼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하지가 않다. 혼합되어 있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상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갖고 있는 문제이다. 그들은 자신들

이 깨끗하고 정죄감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마음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순수하지 않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한 가지 이상의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몇 가지 다른 것에도 마음을 향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목적 삼고 동시에 박사 학위도 목적 삼을 수 있다. 그들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혼합되고 복잡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동시에 두 가지를 볼 수 없다. 동시에 두 가지를 보려고 하면 두 가지가 모두 희미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두 가지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많은 일을 향하고 있다. 그렇다. 그들은 주님을 찾고 있지만 동시에 지위나 경력 같은 다른 어떤 것도 찾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갈피를 못 잡는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들은 주님 자신께서 그들의 유일한 목표가 되실 수 있도록 많은 야심에서 그들의 마음을 순수하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일꾼들 중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어떤 형제는 자신이 속한 교파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되려는 큰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간증했다. 그의 마음은 깨끗했지만 순수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오직 주님 자신만을 유일한 목표로 가질 때까지 계속 순수하게 되어야 한다. 어떤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 자신과 그의 일을 모두 목표로 삼고 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이다. 주님 자신만이 그들의 목표가 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은 순수해져야 한다. 그들의 목표, 그들의 목적,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자신이어야 한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주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은 순수한 것이다. 만일 그들이 것처럼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열릴 뿐 아니라 아주 맑게 될 것이다. 때때로 하늘은 열려 있지만 구름으로 가려져 있다. 영적 하늘에 왜 구름이 끼어 있는가? 마음이 혼합되어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이 여러 가지 목표들에서 순수하게 될 때 하늘이 맑을 것이다.

성경은 마음을 묘사하기 위하여 '단일함', 즉 '마음의 단일함'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어떤 번역본은 '단일함'을 '단순함'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마음의 단일함은 단순함을 의미한다. 단순함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보 같은 것이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목적 삼는 사람들은 일종의 바보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바보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나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만 압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예수만 압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영리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길, 곧 예수라는 좁은 길만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당신은 바보 같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바보가 되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이것이 단순함이다.

마음의 순수함을 언급하고 있는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은 시편 73편 1절과 마태복음 5장 8절과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다. 디모데후서의 말 씀은 교회들이 하락할 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추구하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함을 보여 준다. 마음의 단일함을 언급하는 구절은 적어도 사도행전 2장 46절과 에베 소서 6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22절, 이 세 구절이 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섬기려면 마음의 순수함과 단순함, 두 가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깨끗하고 옳은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처리한다면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께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입구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교리가 아니라, 다만 주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소유하시도록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는가에 관한 가르침이다.

양심의 처리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주님은 먼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 마음이 처리된 다음에는 즉시 양심이 처리되어야 한다. 주님의 임재는 먼저 마음을 처리하고 그다음으로는 양심을 처리한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단일하다면 우리의 양심의 기능은 즉시 매우 민감하고 깨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 자신이 틀렸든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마

음을 처리하여 순수하고 단일하게 할 때, 양심은 그 기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을 '거리낌 없게' 만들 것이다. 바울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말했다(행 24:16). 거리낌 없는 양심이란 어떠한 종류의 정죄나 비난을 받지 않는 양심을 의미한다.

영과 혼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민한 양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으로 이유를 따지고 있을 때에는 예민한 양심을 갖기가 어렵다. 여러분은 “나는 10을 잘못했는데 저 형제는 100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형제는 나에게 90의 잘못을 더 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이것은 다만 혼의 정신적인 계산일 뿐이다. 우리의 생각이 조리 있게 이유를 대지만,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언가가 “그 형제가 네게 얼마나 잘못했든지 간에 너는 10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영적 장부는 회계 장부와 같지 않다. 회계 장부에는 차변과 대변과 차액이 있지만 영적 장부에는 다만 한 가지, 차변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대변이 얼마인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조금의 차변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당신의 시계를 훔쳤고 당신은 나의 자동차를 훔쳤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가 서로에게 훔쳤다는 사실은 아주 명백하다. 그러나 어느 날 양심이 움직여 “너는 그 훔친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물론 내가 회계 장부의 균형을 맞춘다면 나는 이렇게 이유를 댈 것이다. “이 시계는 10만 원이고 저 자동차는 300만 원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나에게 290만 원을 빚진 거야. 나는 내 양심을 처리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내가 그 차액을 받아야 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적 장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적 장부는 다른 사람이 내게 얼마나 빚졌는가를 잊어버리고 10만 원을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나는 그 사람에게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훔친 것은 완전한 죄입니다. 여기 훔친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사과까지 해야 한다. 그 차(車)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말할 권리가 없다. 오직 성령만이 그것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장부에는 한 항목밖에 없다.

당신은 내 말의 요지를 알겠는가? 당신이 다투고 이유를 낸다면 당신은 생각에 있는 것이지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움직이신다 하자. 수많은 이유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홍수처럼 밀려온다. “아내는 어떻게 하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게다가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좀더 기다리는 게 낫겠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일 것이다.” 이것은 혼의 생각 안에서 따지고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옳지만 깊은 영 안에는 여전히 주님의 부름이 있다.

혼과 영의 차이를 이해하기는 쉬우나 문제는 우리의 전 존재가 여전히 닫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처리하여 순수하고 단일하게 하였을 때, 우리의 양심은 매우 예민하게 되어 많은 비난과 거리낌을 느끼게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은 자백하고 주님의 피의 뿌림, 곧 정결케 하심을 적용함으로 올바르게 될 것이다(히 9:14).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에 많은 거리낌이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피로 인해 정결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생생하게 살아 계심을 느낀다. 때로 하나님은 마치 실제로 살고 계시지 않은 듯하다. 다만 ‘하나님’이라는 호칭만 있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때는 우리의 양심이 무디고 허물로 가득한 때이다. 양심은 자백과 정결케 함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순수한 양심을 갖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다. 이것은 씻음받은 양심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혼합되지 않고 어떤 그늘도 없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이다(딤후 1:3). 우리의 양심에 있는 비난은 양심을 불순하고 불투명하게 만들어 주님과 교통을 방해한다.

순수한 양심은 선한 양심이기도 하다(딤후전 1:5, 19, 벰전 3:16, 21). 선

한 양심은 정결케 되고 순수하게 된 양심이다. 그것은 어떤 그늘도 없이 올바르게 투명한 것이다. 그렇게 선한 상태에 있는 양심은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 것이다. 양심이 정결케 되고 순수해졌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아무 장벽이 없을 것이다.

교통의 처리

양심을 처리한 다음에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볼 수 있듯이, 영 안에 있는 교통의 기능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은 선한 양심에 의하여 유지된다. 양심이 거리낌을 받을 때 그것은 하나의 장벽이 되어 주님과 우리의 교통을 손상시킨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와 같이 주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허물들과 실패와 죄들을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에는 주님과 교통을 방해하는 어떤 정죄도 없게 될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와 주님의 교통은 우리가 양심을 얼마나 처리했는가에 달려 있다. 주님과 교통은 순수한 양심을 통하여 유지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처리는 실제적으로는 한 가지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을 처리하는 것이 곧 교통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양심에 잘못된 것이 없다면 교통은 당연히 이루어진다.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양심이 순수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을 때 교통은 사라지고, 우리의 양심이 회복될 때만 다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직감의 처리

이제 직감에 대해 생각해 보자. 교통이 양심을 뒤따르듯 직감은 교통을 뒤따른다. 우리의 양심에 잘못이 있을 때 교통은 깨지고, 교통이 깨질 때 직감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심의 처리는 매우 근본적인 것이다. 투명한 양심은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주님과 생생한 교통을 나누게 할 것이다. 이 생생한 교통을 통해 우리의 영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쉽게 감지한다. 이것이 바로 직감의 기능이다. 직

감의 기능은 우리가 완전한 교통을 갖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의 교통이 완전할 때 직감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우리와 주님의 교통이 깨질 때 직감은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교통이 회복되어야만 직감이 다시 작동한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 말씀을 소홀히 한다. 그 성경 구절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한다.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움직임이다. 그 직접적인 느낌이 직감이다. 요한일서 1장은 교통이 피에 의해 유지되고 보존됨을 지적해 준다. 2장은 직감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 작동함을 말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움직이심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는 직감을 통해 직접적인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영 안에 있는 직감을 통하여 단지 생각 속의 이해가 아닌 내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 내적인 지식은 영 안에 있는 반면, 이해는 생각 속에 있다. 또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내적 인식은 항상 생각의 이해를 앞선다.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의 직감은 직접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직감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감지하는 내적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영 안에서 느낀 것을 이해하기 위해 여전히 생각이 필요하다. 때로 우리는 영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생각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언어처럼 들리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생각의 이해는 우리의 영이 느낀 내적 인식을 다만 해석하기 위해 작용한다. 밝아지고 새로 워진 우리의 생각은 영의 직감에서 느낀 것을 해석해 줄 것이다.

때로 우리는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깊고 무거운 부담이 우리의 깊은 영 안에서 느껴질 때가 있다. 우리가 이 부담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낮 동안에 우리는 영 안에 있는 것을 생각으로 점차 이해하기 시작한다. 아침에는 영의 직감으로 부담 또는 내적 인식을 느끼지만, 낮 동안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점차 해석하게 된다.

요약하면 요한일서 1장은 주님과 교통이 지속되어야 함을 계시하며, 요한일서 2장, 특별히 27절은 직감이 성령에 의해 분발되고 성령

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교통과 직감은 모두 양심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양심을 처리함으로써 투명하고 순수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양심이 우리에게 주님과과의 완전한 교통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또한 직감이 기능을 발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우리의 영에 기름을 부으실 입지를 얻으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매일 매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리는 마음과 양심과 교통과 직감을 날마다 처리해야 한다.

제9장 혼의 처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순서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 전 존재의 출입구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는 양심을 다루어야 하며, 셋째로는 주님과과의 교통을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순수한 양심, 즉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짐으로써 주님과 투명한 교통을 갖게 될 것이다. 직감, 즉 기름 부음의 순서는 그다음이며 언제나 피 뿌림에 근거하고 있다. 구약의 예표도 이 원칙을 제시한다. 피는 언제나 기름 부음을 앞선다. 피 뿌림은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긍정적인 것을 가져오고 하나님 자신의 요소와 본질과 실체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피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씻어 내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져온다. 하나님 자신은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신다. 영 안에 있는 이런 기름 부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느낌을 직감의 기능을 통해서 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의하면 마음과 양심과 교통과 직감의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바른 순서이다. 모든 처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영까지 계속된다. 이제 더 나아가 혼의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생각의 처리

영의 직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생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감은 내적인 인식을 느끼도록 해 준다. 그러나 영적인 일들을 느끼는 것과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영 안에서 느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의 기능이다.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인식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로 우리가 영 안에서 느낀 것을 2, 3주 내지는 수개월이 걸려야 비로소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을 해석하려면 생각의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우리 영의 직감의 기능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생각의 기능이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서 12장 2절은 생각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먼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흠정역의 '세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세대'를 의미하며, 헬라어의 '세대'라는 단어는 영어의 '현대(modern)'라는 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세대는 이 세상의 현재 또는 현대적인 흐름이다. 세상의 역사는 1세기, 2세기, 3세기 등과 같이 연속적인 세대들로 구분된다. 각 세기를 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세대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 오늘날의 세대는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조직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현대적이 된다는 뜻이며, 세상의 현재 흐름을 따른다는 뜻이다.

로마서 12장 2절은 계속하여 "생각(mind)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이 세대의 일들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나 현대적이다. 만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다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없다.

생각은 혼의 일부이므로 변화는 바로 혼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영 안에서 거듭났지만, 이제 문제는 혼이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은 성령에 의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소생되고 거듭났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어떠한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어떠한가? 영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지만,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는 아직도 그들

과 똑같은 것 같다. 거듭남은 영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거듭난 후 혼에는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다.

몇 가지의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해 보자. 우리가 의복을 입는 방식은 어떤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행을 따른다. 그들은 현세대를 본받아 옷을 입는다. 그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만 사람의 생각이요, 타고난 관념이다. 만일 그들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자 한다면 옷 입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사고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 금전을 쓰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금전을 쓰는 방법은 변하였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돈을 쓰고 있다. 그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실 근거를 더 드러야 비로소 그들은 금전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매우 많은 젊은 형제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얻는 것에 대하여 세상 젊은이들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주님께 일하실 근거를 드러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혼의 변화를 받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변화될 것이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업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관념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공부와 학위를 평가하는 또 다른 견해를 갖게 될 것이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혼이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영 안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께서 혼의 각 부분에 퍼져 모든 부분을 그분 자신으로 적시실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혼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반사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고려하든지, 우리의 새로워진 생각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표현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의 이해가 영적일 것이며, 우리의 생각은 매우 쉽게 우리가 영 안에서 느낀 것들을 이해할 것이다.

로마서 8장 6절의 올바른 번역은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은 생명과 평

안이니라” 또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이다. 로마서 7장에서 생각은 자신의 독립적인 노력으로 어떤 일들을 시도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실패이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생각은 영과 협력하며 영에 두어져 있다. 생각은 7장에 언급된 죄의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강력한 또 하나의 법을 발견하게 된다. 이 새 법은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다. 다시는 생각이 독립적으로 일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자신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영에 둔다. 생각은 육이 아닌 영에 두어진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과 생각을 영에 두고 영과 협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생각은 영과 함께 있을수록 더욱 더 영의 조절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영과 함께 있을 때 영은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을 적시어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되게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6절은 ‘영의 생각’을 말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4장 23절은 ‘생각의 영’을 말하고 있다. 영이 생각을 조절하고 생각에 스며들 때 영은 생각의 영이 된다. 에베소서 4장 23절의 문맥을 생각해 보자. 22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24절은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일이며 새사람을 입는 것은 부활의 일이다. 십자가의 일과 부활의 일 사이에 23절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는 말씀이 있다. 생각의 새로움은 부활과 함께 십자가의 일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각이 십자가에서 끝나고 부활 안에서 새로워져야 함을 의미한다.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결과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십자가로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활할 것이다. 부정적인 것들이 끝날 뿐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다. 타고난 생각은 죽음에 넘겨진 후 부활의 생각이 된다. 이때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다. 이 새로워진 생각은 영 안에 있으며 영의 통제 아래 있다. 생각은 영으로 가득 채워져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은 생각의 영이 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의 생각은 새로운 생각이 될 뿐 아니라 영적인 이해력을 가진 영적인 생각이 될 것이다. 그러한 영적인 생각은 우리의 직감이 느끼는 영적인 일들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의지의 처리

우리의 새로워진 생각이 직감이 느낀 것을 이해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럴 때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이해한 것을 복종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안돼!”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의지로 복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사실상 우리에게 복종하는 의지가 없다면 직감에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주님은 매우 지혜로우시다. 그분은 결코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복종할 의지가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실 필요가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실 것이다. 우리가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분께서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력을 허락하시겠는가? 새로워진 생각의 이해는 주님께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요 7:17), 우리의 순종적인 의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들이 문제를 상의하고자 내게 오지만 그들에게는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다. 나는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때로 내가 “진정이십니까? 만일 내가 당신의 문제에 대답해 드린다면 순종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보통,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만 배우고 싶고, 뭐가 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라고 대답한다. 의지는 완전히 복종되어야 한다. 다만 복종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눅 22:42, 약 4:7, 빌 2:13).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강요하시지 않고 항상 선택할 권리를 주신다. 그분께서 위대하시고 현명하실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가 복종하도록 힘을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으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사탄은 사람들을 강요하며 속이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제로 “네가 좋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싫다면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잊어버려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

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훈련해야 한다. 우리의 의지가 복종하도록 훈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시기 어렵다. 의지를 훈련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복종하도록 해야 하며 언제나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의지가 그런 정도까지 처리될 때 우리의 의지는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의지는 성령께서 확장되심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흠뻑 적셔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느낄 것이다.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은 그리스도의 표현일 것이다. 이것은 상상이나 교리가 아니다. 때로 우리가 주 안의 어떤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 또는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과 의지에서 변화됨으로 그리스도로 흠뻑 적셔졌음을 증명한다.

감정의 처리

혼을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는 골칫덩어리인 우리의 감정이다.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거의 모든 어려움은 감정과 관련된다. 감정은 성령의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권면한 이유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조절하시는 대로 사랑을 통제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면이다. 우리는 또한 적극적인 면, 즉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감정을 훈련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 너무나 많은 때 우리의 감정은 주님의 허락은 받지만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할 때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만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한번은 어떤 자매가 이런 경우에 처해 있었다. 그 자매는 주님께서 그녀의 감정이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주님께 돌이켜 “주여, 당신은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실지라도 저는 그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당신께서 기뻐

하시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녀는 달콤한 교통의 시간을 가졌고 평강과 기쁨이 충만했다. 그 자매는 그녀의 감정을 전적으로 주님과 그분의 기쁨의 통제 아래로 가져오는 교훈을 배웠다. 때로 우리는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 주님의 허락을 얻을 수는 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 일을 사랑할수록 더욱더 기쁨은 메말라 간다. 마침내 그 일은 기쁨이 아니라 점점 고통으로 변해 간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서 주님의 기쁨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에서 그들의 부모나 형제자매나 그들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은 다만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의미이다. 주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며, 그토록 잔인한 분도 아니시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모두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며 주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감정을 훈련해야 한다. 우리의 감정이 주님의 감정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며 결코 주님의 기쁨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자신의 길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쁨은 점점 더 사라질 것이고, 주님과 달콤하고 부드럽고 깊은 교통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아무도 우리를 잘못되었다고 정죄할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주님의 허락을 받았노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선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만일 우리의 감정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님의 통제 아래 두어진다면 우리의 감정은 영으로 적셔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한 단계의 영광에 이르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마음과 양심과 교통과 직감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처리함으로써 성숙하고 완전히 자라서 주님의 신장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다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만일 우리의 혼이 변화된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영적인 힘과 능력이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하고 죽을 몸을 적실 것이다. 우리는 영의 거듭남과 혼의 변화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연약하고 죽을 몸을 흠뻑 적시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변형될 것이며 우리의 전 존재, 즉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영광스런 형상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구속이 마지막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 적용은 세 단계로서 첫째는 영의 거듭남, 둘째는 혼의 변화, 셋째는 몸의 변형이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

혼에는 이러한 생각의 처리와 의지의 처리와 감정의 처리가 모두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한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모든 가르침과 은사는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부여하신 것이다. 우리는 오직 이 유일한 과정에 의해 교회의 건축을 위한 합당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제 10 장

속 부분들과 감추어진 부분들을 파냄

이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속 부분들에 영의 흐름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민수기 20장에서 매 맞고 찢기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매 맞은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다(고전 10:4). 그리고 21 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판 샘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다. 그러므로 동일한 책의 두 장에, 먼저는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갈라진 반석이 있고 그다음에는 물이 솟아오르도록 파인 우물이 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 본다면 반석과 물은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분을 두 가지 다른 방면으로 계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석은 생수이신 생명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매 맞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샘은 또 다른 면을 보여 준다. 반석은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이지만 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요 4:14).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반석에 있지 않고 샘에 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일을 이미 완성하셨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흐르시는 생수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샘이신 그리스도는 반석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파내는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 장의 목적은 더 많은 가르침을 주는 데 있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파내도록 권면하는 데 있다. 우리는 교리나 환경이나 장래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주님의 뜻에 관한 인도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들이 파내어져야 한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나는 우리들 대부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유로운 생수의 흐름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는 그다

지 자유롭지 못하며, 우리의 간증 또한 그다지 강하지 못하다. 우리는 많은 면에서 패배당했고 승리하지 못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 곧 영적인 생명의 흐름 또는 생수의 샘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파내야 할 많은 흠이 있다. 여러분은 “이 흠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 안에 있는 흠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파내야 할 많은 흠이 있으며, 우리의 영 안에도 처리해야 할 많은 흠이 있다.

양심을 파냄

여기서 ‘흠’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그다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순간에도 아직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우리 양심에 있을지 모른다. 이 죄가 바로 파내야 할 흠이다. 우리가 속에서 그다지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 양심의 참소 때문이다. 이 죄들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 알고 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옳지 않을 때 참소는 계속된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려 할 때, 이것은 여러분의 양심에 참소거리가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왜 자신이 매여 있고 자유가 없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즉각 여러분의 양심에 참소거리가 된다. 여러분의 양심은 참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허물들로 가득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그 영의 자유로운 내적 흐름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양심이 먼저 처리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그 흠은 매일 몇 차례씩 주님께 나아감으로써만 파내어질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거듭거듭 주님께 나아가기를 제안한다. 심지어 거리를 걷고 있는 동안에도 몇 번이고 주님께 나아가라. 우리는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파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흠을 파내야 한다.

마음을 파냄

양심의 참소를 처리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께서 정죄하신 많은 것들을 파내야 한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님 자신만을 찾는 순수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주님과 주님의 길을 찾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 자신 외의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자유롭지 못하며 순수하지도 못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파내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파낼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볼지 모른다. 첫째는 여러분의 장래와 주님의 인도에 대한 염려이다. 여러분은 이런 일로 인해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장래는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다. 사실상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 자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장래이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끈끈한지' 잘 모른다. 수년 전 파리를 잡는 데 '끈끈이'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얼마나 끈끈했는지! 무엇이든지 닿기만 하면 거기에 달라붙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끈끈이처럼 매우 끈끈하다. 무엇이든지 마음에 닿기만 하면 착 달라붙는다. 이런 것들이 모두 떨어져야 한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만 위해 살고 있으며 우리의 가정과 직업을 포기해 왔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을 수 있는가? 양심에서 흠을 파내기는 쉽지만 마음에서 흠을 파내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다. 우리는 매우 많은 일들에서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하여, 마음을 철저히 파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의 양심에서 참소를 파내기는 쉽지만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파내기란 그다지 쉽지 않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에 달라붙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는 ‘복잡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추구하고 있다. 우리 마음의 목적과 목표는 그다지 순수하지 않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목표들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 직장은? 학위는? 금년은 어떻게 지내고, 내년은 또 어떻게 지내나?”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이 모든 흠이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흐름을 막고 있다. 그것들을 파내어야 한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이래로 그분은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생수의 샘으로 계신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 너무나 많은 흠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을 파냄

우리는 깊은 우물을 팔 때 땅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층은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층은 단단한 흙으로 되어 있고, 또 한 층은 파기 어려운 돌로 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파내야 할 우리 속의 여러 층에 대해 예시해 주고 있다. 우리에게 는 양심의 층과 마음의 층과 생각의 층이 있다. 이 생각의 층에는 많은 흠이 있다. 오! 우리는 매일 매일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밤에 자면서 꿈을 꿀 뿐 아니라 깨어 있는 낮에도 여전히 꿈을 꾸다. 우리의 모든 상상들은 또 다른 꿈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각을 흥미하게 하는 사탄에 대하여 말하였다. 사탄은 우리의 상상을 통해 우리를 흥미하게 하는 일을 한다. 때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마도 여러분의 생각은 달나라로 여행을 갔을 것이다! 겉으로 보면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생각이 우주의 어떤 것을 상상하고 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은 목소리는 듣고 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상상에 의해 가려진 것이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들의 상상 속에서 세계일주를 한다. 사람들은 수초 만에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 그들은 가장 빠른 제트기보다도 더 빨리 극동 지역에 갈 수 있다. 오,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상상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많은 흠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

는 생수의 흐름이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막혀 있기 때문에 생수 역시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막혀 있는 것이다. 흠덩이라고 말할 때 그것들은 바로 여러분의 많은 생각과 상상과 꿈들이다. 그것들은 생수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파내져야 한다.

의지를 파냄

의지 역시 많은 흠을 담고 있다. 주님께 절대적이고도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우리의 의지는 더 복종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안배에 복종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주님께 아주 복종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 집어넣으실 때 우리의 어퍼함이 드러나고 만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 복종하기는 쉽지만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기는 어렵다. 여러분은 “저는 주님께 복종합니다.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라고 말한다. 그렇다. 거기에 큰 ‘그러나’가 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 오, 그들에게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여러분의 의지를 파쇄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교회 안에 넣으셨다.

자매들은 “만일 나의 남편이 매우 사랑스러운 형제님이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겠는데 …”라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가! 그러나 사실 여러분의 남편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주님은 당신에게 꼭 맞는 남편을 주셨다.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에게 꼭 필요한 남편인 것이다. 만일 당신이 꿈꾸던 남편을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은 결코 폭로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많은 상황과 환경은 다만 우리를 빛 속에서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박한지 알 수 있게 한다. 여러분은 어떤 형제가 강박하다고 지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강박하다. 우리는 가장 강박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의지를 파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영적인 지식을 쉽게 얻었지만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기질은 결코 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실패이다. 생수가 우리 안에 흐르도록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파내져야 한다. 생수가 흐르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요, 파내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다. 우리는 자신을 파내야 한다.

감정을 파냄

의지에서 흠을 파낸 후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골칫거리인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감정의 문제는 자매들에게뿐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해당된다. 우리는 감정적일 때 자신에게 사로잡힌다. 우리는 감정의 조종과 속박 아래 있게 된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양심을 파내고, 그다음에는 마음을, 그다음에는 생각을, 그다음에는 의지를 파내야 한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감정에 빠져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주 쉽게 이것은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한다. 우리는 어떤 형제와 쉽게 친해지지만 또한 다음날 아침 그를 쉽게 '원수'로 대할 것이다. 우리의 의지를 바꾸기는 그다지 쉽지 않지만 감정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우리의 감정은 날씨보다 훨씬 더 변덕스럽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다. 나의 깊은 관심은 여러분이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 데 있다. 여러분의 필요들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고 여러분을 주님의 빛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속의 흠을 파내기 위해 주님의 빛을 따르라. 여러분이 흠을 파내면 파낼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은 살아 있을 것이고, 강하게 될 것이며, 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여러분은 생수의 흐름, 즉 여러분 속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생명의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생수가 여러분 속에 자유롭게 흐를 때 승리가 온다. 모든 문제는 저절로 또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해결될 것이다. 비록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지라도, 생수의 흐름인 생명의 교통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이러한 생수의 흐름이 여러분 안에 흐를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파내는가에 달려 있다.

파내는 이 일은 기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인도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그 인도에 따라 자백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흠을 파내야 한다. 이제 우리

는 이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파내는 기도는 은밀히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주님과 더욱더 은밀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양심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속에 있는 모든 흠을 기도로 파내야 한다. 여러분은 “저는 너무나 바빠요.”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일과로 매우 바쁘더라도 주님을 만지고 흠을 파낼 수 있다. 많은 때 나는 일하면서도 파내는 것을 훈련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주님을 접촉하는 것과 우리 안의 모든 흠을 파내기를 배워야 한다.

주여, 파내소서 모든 장애물을
주의 흐름 나를 통해 흐르도록

반석인 주 깨져 생수 흐르지만
내 마음은 막혀 흐르지 못하네

기도로 파내리 흠 완전히 파리
흐름 흐르도록 영을 해방하리

반석인 주 다시 깨질 필요 없네
오직 파내는 데 나를 드려야 해

내 필요는 오직 성령 충만하여
나의 맘속에서 생수 솟는 걸세

파내소서, 주여 남김없이 모두
생명수의 흐름 흘러가기까지

주여, 파내소서 생수 흐르도록
주의 흐름 나를 통해 흐르도록

(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01장)

제 11 장

영과 혼의 분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14).

여기에서 ‘육에 속한’은 헬라어 원문에서 ‘혼적인(soulish)’이라는 중요한 단어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실제로 ‘혼적인 사람’이라고 번역되어야 맞다. 그다음 구절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영적인(spiritual)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고전 2:15). 혼적인 사람은 14절에서 나타나고 영적인 사람은 15절에서 나타난다. 이 구절들은 혼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해 준다.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4-26).

24절에는 세 가지가 강조된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다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는 것이다. ‘나’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25절과 26절에서 ‘목숨’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혼’과 같은 단어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혼을 구원코자 하

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혼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혼을 잃어버려야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눅 9:23-25).

여기에서 누가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 언급하지 않은 단어인 ‘날마다’를 추가하고 있다. 이것은 곧 사람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구절들은 또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대신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태복음의 ‘혼’이 누가복음의 ‘자아’와 같다는 것을 증명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spirit)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갈 6:1).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spirit)에 있을지어다 아멘”(갈 6: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spirit)과 함께 할지어다”(몬 25).

이 구절들은 ‘너희 영’에 대해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영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롬 8:10).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4).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6-17).

흠정역은 이 구절들에서 영을 대문자(Spirit)로 쓰고 있지만 헬라이어

행간역은 대문자로 쓰지 않고 있다. 이 구절들은 사람의 영을 언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재조명

나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표적을 다시 지적해 보고자 한다. 지난 몇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분배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길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성육신하시고, 아들은 그 영 안에 실재가 되시는 것이다. 바뀐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성령 안에 계신다. 성령 안에는 아들의 위격이 있을 뿐 아니라 아들께서 성취하신 일도 있다.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과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디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인생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과 부활 능력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성령 안에서 만유를 포함한 한 포의 약으로 연합되었다. 삼일 하나님의 충만은 바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분배된다.

이 만유를 포함한 영께서 이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계신다. 성막이나 성전의 예표를 보면, 성막이나 성전은 바깥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구약의 그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과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는 바깥마당이나 성소에 있지 않고 지성소에 있다. 성전의 세 부분은 사람의 세 부분인 몸과 혼과 영에 일치한다.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 것을 선포한다. “주께서 너희 영(spirit)에 함께 있을지어다”(딤후 4:22).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을 증명하는 두 구절이 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 6:17). 주님 자신이 영이시고 우리 각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으며, 두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되었다. 이것은 오늘 주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리고자 한다면 영을 분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의 영이 혼

과 나누어져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지성소, 즉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라고 권고한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룩한 분깃으로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성소인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수세기 동안 히브리서에 대한 많은 책들이 저술되었다. 나는 그중 제일 좋은 저서가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가 쓴 <지성소(The Holiest of All)>라는 책이라고 본다. 그 제목은 아주 정확하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지성소, 즉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의 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은 바로 영 안에서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것도 옳지만, 만일 그분께서 하늘에만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겠는가?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은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안에도 계신다.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온 전기는 우리의 가정과 멀리 떨어진 발전소에 있는 전기와 동일한 전기이다. 로마서 8장 3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우편에 계신다고 말하지만 같은 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한다. 만일 주님께서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겠는가? 주님을 찬양하자. 오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도 계신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만유를 포함한 삼일 하나님으로 사람 속에 분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킬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집 안에 설치된 전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론 스위치만 올리면 된다. 우리의 스위치는 바로 우리 사람의 영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면서도 디모데후서 4장 22절은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 영(spirit)에 함께하시지어다”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똑같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

로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다(요 1:12). 우리는 주님을 믿었고 영접했다. 그러나 그분은 어디에 계신가? 그분은 우리의 어느 부분에 들어오셨는가? 수년 동안 우리는 이 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 우리는 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혼을 부인함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과 매우 밀착되어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혼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골수는 뼈 속에 있으므로 골수를 보려면 뼈가 부서져야 하듯,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 속 깊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혼이 파쇄되어야 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혼을 잃을 것과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혼을 버리고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다. 혼은 부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을 철저히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골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뼈와 관절이 파쇄되고 부서지는 길 뿐이다.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은혜도 우리의 영 안에 있지만, 주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혼이 부서져야 한다.

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혼은 바로 자아이다. 자아는 바로 사람의 존재의 중심이며 사람 자신을 가리킨다. 우리는 이 자아를 십자가로 끝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혼을 십자가에 달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면 자신의 혼 생명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어제, 오늘날 아니라 매일 매일 십자가를 내 혼에 적용해야 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그들의 자아만 있을 뿐이다. 첫마디부터 마지막 말까지 다 “나, 나, 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어떻게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는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위에는 십자가가 있다. 나는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나' 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한다. 이제는 내가 감히 '나' 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 라는 말을 쓴다. 다만 '나' 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는 다음의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도 계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적용할 때 주님을 쉽게 따를 수 있다. '혼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부터 영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때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왜 사복음서는 소극적으로 혼을 부인하라고 말하고, 나중에 모든 서신들은 적극적으로 영 안에서 살며 행하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오늘날 주 예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그분의 은혜도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영과 관련된 문제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이다! 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경륜의 이 표적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 안에 분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모두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이루셨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영 안에서 모두 채워진다.

영 안에 거함

구원받은 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즉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 착한 일을 해야 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많은 가르침들이었다. 이러한 종교적 가르침들에 틀린 것은 없다. 어떤 의미에서 이 가르침들은 선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가령 우리는 선해야 하고, 겸손하며,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점잖아야 하며, 사랑스러워야 하고, 성질을 내지 말아야 하며,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윤리적 가르침들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라. 그분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가지들로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종교적인 가르침과 윤리적인 가르침들을 모두 잊어버리라. 다만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고자 한다면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오직 영 안에 거함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 주님 자신과 그분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한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은 우리 자신을 소유할 기회를 가지신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점유할 입지를 갖게 되실 것이다. 그분의 모든 풍성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며,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다.

이 책의 목적은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더 종교적이고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유일한 분깃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만유로 우리 안에 분배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그분을 우리의 만유로 누리자. 열쇠, 즉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다. 그토록 놀랍고 만유를 포함하고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기 위해 제한을 받으셨다. 우리는 얼마나 작고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되라고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만유가 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분별하고, 항상 혼을 부인하며, 지속적으로 영 안으로 돌이키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잊어버리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라. 그럴 때 우리의 영 안에 내적인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종교적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주여,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옳은 일만 하게 하시고 틀린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당신은 제 성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오니 제가 성질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인내심 있고 겸손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오, 주여! 참을성 있고 겸손하도록 도와주소서.” 여러분이 꼭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대개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여러분은 내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침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 당신의 영께서 내 영 안에 계시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주여, 당신을 앙망합니다. 당신을 주목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는 당신과 교통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으로 되려는 것과 선한 일을 하려는 것을 다 잊어버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온종일 하늘에 속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조심하라. 서두르지 말라. 성질 내지 말라.” 등등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다만 기도하라. “주여, 저는 성질도, 겸손도, 인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당신만 압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라. 그럴 때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다. 저녁 집회에 올 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주 쉽게 자신의 영을 해방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이다.

여러분의 책임은 이 표적을 잃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분명한 지침이

들어 있는 지도가 있다. 여러분은 길을 잃을 필요가 없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제트기도 있고 심지어 로켓 우주선도 있는데, 왜 노새가 끄는 마차를 고집하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로켓 우주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고 싶다. 이 로켓 우주선은 바로 여러분의 영 안에 있다. 여러분이 영으로 돌이킬 때 그것은 신형 포드 자동차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것은 제트기 안에 있는 것 같고 로켓 우주선 안에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은 삼층천으로 초월해 있다고 느낄 것이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체험들을 가져야 한다. 어려운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압력이 여러분의 힘에 지나칠 때, 영으로 돌이켜 예수를 주목하라.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의 위로 올라가 초월하고 승리할 것이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발밑에 있게 될 것이다.

많은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른 채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 상황을 분석하면 할수록 나는 더 혼동되고 복잡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소서. 내가 영으로 돌이켜 당신을 앙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빛은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만유를 포함하신 분께서 바로 이곳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비결이다. 우리가 영을 분별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분께서 만유를 포함한 삼일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놀랍고도 만유를 포함하며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성령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생명 안에 있으며, 능력 안에 있고, 하늘에 속해 있으며, 삼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삼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것은 한낱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항상 실제로 체험하고 누린 것의 간증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를 향하라. 결코 빛나가지 말라. 혼을 부인하고 영을 훈련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목하며 반사하는 이 표적을 항상 간직하라.

제 12 장 사람과 두 나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즉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다. 성경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람을 모든 창조물의 중심으로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사람이 온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것을 의도하셨다.

두 나무 사이의 중립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 첫 부분에서 우리는 두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본다(창 2장).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면 이 두 나무와 또 그 나무들이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를 이 두 나무 앞에 두셨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생활과 행함은 두 나무 중 어느 나무를 먹는가의 문제로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두 나무에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을 지시하셨다. 만일 사람이 올바른 방법으로 그 나무들을 대한다면 그는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 그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생명이나 아니면 사망이나의 문제였다. 사람이 창조된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사람이 이 두 나무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셨다. 즉 사람이 둘째 나무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참여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첫째 나무인 생명나무에 참여하면 그는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두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 전체의 계시에 의하면 생명나무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한다. 신·구약 성경은 여러 차례 주 예수님을 ‘나무’로 나타내거나 또는 나무의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스가랴서에서도 주님은 ‘가지’라는 특별한 칭호를 갖고 계신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분깃이시요 누림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많은 나무들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주 예수님은 아가서 2장에서 사과나무에 비유되신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3절).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아래, 즉 그늘이신 그리스도 아래 앉아 그분의 모든 풍성인 그 나무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는 그리스도를 나무로 상징한 또 하나의 예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5절).

둘째 나무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나무는 다름 아닌 사망의 근원인 사탄을 묘사한다. 둘째 나무는 사망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바로 사망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첫째 나무는 생명의 근원이요, 둘째 나무는 사망의 근원이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자신만이 생명의 근원이시요, 사탄만이 사망의 근원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말하는 시편 36편 9절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사탄이 사망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구절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2장 14절이다. 사망의 세력은 사탄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있던 이 두 나무는 두 근원을 묘사한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며, 다른 하나는 사망의 근원이다.

시작부터 세 편, 즉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수한 사람은 생명과 사망의 중간에 처해 있었다. 사람은 생명이나 사망 중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는 중간 입장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입장에서 계셨고 사탄은 사망의 입장에서 있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중립적인 위치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중립적인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었다. 그

럴 때 사람은 그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담고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럴 때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충만히 표현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둘째 나무, 곧 사망의 근원을 취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둘째 나무와 하나가 된다. 오, 우리 눈이 열려, 온 우주 가운데 문제는 우리가 윤리를 실천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사망인 사탄을 받아들이느냐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바란다. 우리는 윤리나 도덕적 수준의 이해 범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선행이나 악행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가, 사망인 사탄을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이다. 이 세 편을 분명히 보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에는 생명나무로 묘사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다른 한편에는 지식의 나무로 묘사되는 사망의 근원인 사탄이 서 있으며, 아담은 받아들일 수 있는 두 손을 가지고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다. 그는 이제 이 편에 계신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다른 편에 있는 사탄을 택할 수도 있다.

사망의 나무에 의해 타락된 사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은 유혹을 받아 둘째 나무인 지식의 나무를 자기 속에 받아들였다. 이것은 단지 잘못된 것을 행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다. 아담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곧 자신 속에 사탄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였다. 아담은 그 나무의 가지를 먹지 않았다. 그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열매에는 생명을 재생산하는 능력이 담겨 있다. 복숭아나무 열매가 땅에 심기면 또 하나의 작은 복숭아나무를 발아시킬 것이다. 아담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다. 그가 지식 나무의 열매를 흙으로 된 자신 속에 받아들인 것은 곧 사탄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때부터 사탄은 아담 속에서 자랐던 것이다. 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아담의 타락을 이렇게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 사탄의 열매는 하나의 씨로 흙인 아담 안에 뿌려졌다. 그리하여 사탄은 아담 안에서 자라 그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이 아담의 어느 부분에 들어왔는지 찾아보자.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사탄은 아담 속에 들어왔으며, 여전히 온 인류 안에 남아 있다. 그러면 사탄은 인류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에덴동산의 그림을 보라. 아담이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그의 존재 어느 부분에 그것이 들어왔는가? 그것은 그의 몸속에 들어왔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논리적이며 합리적이다. 그러나 사탄에 속한 것이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것을 확증할 성경적 근거가 필요하다. 로마서 7장 23절을 읽어보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여기서 ‘한 다른 법’이란 ‘다른 부류의 법’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같은’ 부류에 속한 세 가지 법들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 법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두 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헬라어는 대조되는 부류의 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지체들이란 몸의 각 부분이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즉 몸의 각 부분)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롬 7:20), “...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죄”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대조를 본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지만, 죄는 사탄의 체현이다. 로마서 7장의 ‘죄’라는 말은 대문자(Sin)로 기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격과 같다.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 뜻에 반대되는 것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롬 7:17, 20). 죄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죄가 너희 위에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 위에 주인이 되지 못하리니’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죄는 악한 자인 사탄임에 틀림없다. 타락을 통해 사탄은 사람 속에 죄로 들어와 사람을 다스리고 파괴하고 부패시키며 정복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가? 사탄은 바로 사람의 몸의 지체들 속에 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몸은 아주 선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육(肉)이 되었다. 몸은 선하게 창조되었으므로 순수했지만 사탄에 의해 부패되었을 때 몸은 육이 되었다.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롬 7:18)라고 말했다. 타락에 의해 사탄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의 몸을 육, 즉 파괴되고 부패된 몸으로 만들었다.

로마서에서는 ‘죄의 몸’(6:6)과 ‘사망의 몸’(7:24)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죄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은 ‘죄의 몸’이라고 불린다. 몸은 사탄의 체현인 죄의 거처가 되었다. 그렇다면 ‘사망의 몸’이란 무엇인가? 사탄은 사망의 근원이며 사망의 능력이요, 죄는 바로 이 사탄의 체현이며, 사망은 사탄의 유출 또는 결과이다. 이 부패하고 변질된 몸은 죄의 몸 혹은 사망의 몸이라 일컬어진다. 왜냐하면 이 몸이 바로 사탄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은 모두 사탄과 관련되며, ‘죄의 몸’은 몸에 죄가 있고 몸이 부패되었으며 죄에게 종노릇함을 의미한다. ‘사망의 몸’이란 몸이 약하고 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한다. 몸은 사탄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욕은 육이라 불리는 이 부패된 몸 안에 있다. 성경은 정욕이 ‘육체의 욕심’(갈 5:16)임을 보여 준다. 이 육체는 사탄이 그 안에 살고 있고 정욕으로 가득한 부패된 몸이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의 타락이 하나님께 어긋난 일을 범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그의 몸에 사탄을 받아들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타락한 순간부터 사탄은 사람 속에 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둘째 나무에 참여했을 때 발생한 일이다.

사탄과 사람은 둘째 나무를 통해 하나가 되었으므로, 사탄은 더 이상 사람 밖에 있지 않고 사람 속에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 자신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엡 2:2). 사탄은 사람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 것을 자랑하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사람 밖에 계셨지만 “나 또한 육신을 입게 될 것이다. 사탄이 자신을 사람 속으로 주입해 넣었다면 나도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여러분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알겠는가?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 사탄이 거하고 있는 이 사람을 입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셨을 때 그분이 입으신 사람은 바로 사탄에 의해 타락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을 때 사

람은 더 이상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 파괴되고 부패된 사람이었다. 로마서 8장 3절을 읽어보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여기서 육신은 흠정역에서처럼 ‘죄악된 육신’이 아니라 ‘죄의 육신’이다. 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을 때 그분은 ‘죄의 육신의 모양’이셨다. 타락한 사람 안에는 죄가 있었지만, 주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었다. 그분께는 다만 죄의 육신의 모양만 있었을 뿐이다. 구약은 장대에 달린 놋 뱀의 예표로 이것을 설명한다. 놋으로 만들어진 그 뱀은 그리스도의 예표였다(요 3:14).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뱀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셨다. 뱀은 사탄, 마귀,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성육신하셨을 때 사탄의 모양인 죄악된 육신의 ‘모양’까지 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실로 그것은 대단히 복잡한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사람은 순수하게 만들어졌지만 어느 날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을 소유했다. 사탄은 자기가 사람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에 사탄이 있는 사람을 입으신 것이다.

사망의 나무에서 해방된 사람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그 안에 사탄이 거하는 사람을 입으신 후, 그 사람을 십자가로 가져가셨다. 사탄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도리어 자기를 죽음에 넣는 쉬운 길을 주님께 제공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생쥐가 집 안에 있다면 집주인이 그것을 붙잡기가 어렵다. 그러나 만일 조그만 미끼가 있는 덫을 설치한다면 생쥐는 유혹을 받아 미끼를 따먹을 것이다. 처음에는 생쥐가 미끼를 따먹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제 생쥐가 덫에 걸렸으므로 집주인이 와서 덫에 걸린 쥐를 죽이기는 매우 쉬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사탄을 잡기 위한 덫이 되었다. 사탄은 온 우주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골칫거리’ 생쥐였다. 사탄은 사람을 소유했을 때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덫에 걸렸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사탄은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생각했지만 사람이 덫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는 사람을 자기의 음식으로 생각했지만

사람은 단지 미끼일 뿐이었다. 사람을 먹음으로써 그는 붙잡혀 사람 속에 갇히게 되었다.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사람을 입으시고 그 사람을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죽음을 통해 사망의 세력을 갖고 있는 자를 없애하셨다(히 2:14). 사람은 덧이었다. 그리고 마귀는 그 덧에 걸렸다.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은 친히 타락한 사람을 입으시고 이 사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끄셨다. 그때에 이 타락한 사람 안에 있던 사탄도 역시 죽은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이유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십자가는 사탄을 정복하는 유일한 무기이다.

사탄은 어디에 있는가? 사탄은 내 안, 곧 내 육신 안에 있다. 그러나 지금 내 육신은 어디에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탄이 있는 내 육체는 십자가 위에 있다. 그러므로 사탄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넣어졌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나 이것이 끝인가? 아니다. 죽음 다음에는 매장이다. 그러나 무덤조차도 끝은 아니다! 매장된 후 부활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군대와 함께 홍해로 들어갔다. 그러나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 속에 남겨 두고 이스라엘 백성만 죽음의 물에서 부활되었다. 바로와 그의 군대는 죽음의 물에 장사되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사탄과 함께 사망과 무덤으로 끌고 가셨다가 사탄은 남겨 둔 채 사람만 이끌어 내셨다. 그분은 사탄을 무덤 속에 매장한 채 남겨 두었다. 이제 이 부활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생명나무에 의해 부활한 사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는가? 1958년인가? 그것은 너무나 늦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거듭났다(벧전 1:3).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를 믿는 우리 역시 부활한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으로 증명될 수 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사탄이 그 안에 있는 이 사람을 입으셨으며, 또 이 사람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서 사탄을 포함한 이 사람을 죽음에 넘기시고 이 사람을 무덤 속에 장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활 안으로 이끄셨고,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성육신에 의해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오셨고, 부활에 의해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영 안에 계신다.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지만 지나쳐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마다 사탄이 다시 살아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므로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육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마귀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 안에 살면서 십자가를 육신에 적용해야 한다. 비록 사탄이 사람의 타락에 의해 사람 속에 들어왔지만 사탄은 주님에 의해 처리되었다. 이제 부활에 의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지금부터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선은 우리를 속이고 눈멀게 할 뿐이다. 우리는 다만 영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육신에 십자가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사탄은 자연스럽게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 양 방면을 가진 이 한 가지를 혼련하라. 영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사탄을 포함한 육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라.

그럴 때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한편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불 못이 있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삼일 하나님과 부활한 사람들의 연합이요, 불 못은 사탄의 마지막 멸망이다. 불 못은 사탄을 위해 존재한다. 삼일 하나님과 부활한 사람에게 관계되지 않는 모든 것은 사탄과 함께 불 못에 던져질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한 나무, 즉 생명나무만 있을 것이다. 다른 나무는 불 못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온 성경의 최종 결론이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세 편으로 시작했지만, 궁극적인 최종 완성은 성(城)의 중심에 오직 첫째 나무만 있고 삼일 하나님의 표현인 부활한 사람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둘째 나무는 불 못에 던져질 것이다. 둘째 나무와 관련된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운명과 같이 불 못에 있

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림의 의미는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선을 행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살며, 사탄이 있는 육체를 죽음에 넘기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며 육체를 죽음에 두는 것이다. 그럴 때 삼일 하나님과 부활한 사람이 한 표현, 곧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제 13장 십자가와 혼 생명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경륜의 표적에 관련된 기본 사항들을 다루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가르침들은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의 기본적인 항목들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도 단지 교리적인 방법이 아닌 체험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분배하실 것을 의도하셨고, 이미 그 일을 사람의 영 안에 성취하셨다.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세 부분, 즉 몸과 혼과 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성전 또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바깥마당과 성소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지성소, 이 세 부분이 있다. 우리의 세 부분은 성전의 세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몸은 바깥마당과, 혼은 성소와, 영은 지성소와 일치한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신다.

사람 안에서 퍼져 나가시는 삼일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거처인 우리의 영 안에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기지(基地)로 삼으시어,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온 존재에 확산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집과 처소이며, 하나님은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전 존재에까지 그분 자신을 확산하신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전 존재에 확산하십시오. 우리의 각 부분을 그분 자신으로 적시신다. 먼저 하나님은 우

리의 영과 완전히 연합되시며, 다음에는 혼과, 마지막으로는 몸과 연합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와 연합되기 시작하신다. 거듭남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의 영의 연합이다. 거듭난 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며 그분과 동역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혼으로 그분 자신을 확산시키어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일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삼일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자아와 연합된다. 우리의 혼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생각과 갈망과 결정은 항상 주님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의 첫 단계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둘째 단계는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변형시키는 것이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몸에 침투되시고 주님의 영광은 우리 전체를 적실 것이다. 이 변형이 그분과 우리의 연합의 궁극적인 완결이다. 그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공급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시는 세 단계를 기억하라. 다음 찬송은 이러한 최종적인 완결을 잘 나타내 준다.

내 생명 된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날 거듭나게 하고 또 적셔주시네
 정복의 능력으로 내 몸을 변케 해
 그 영광스런 몸으로 변케 해

후렴

주님 오네 날 영화롭게 하려
 나의 몸 주의 몸과 같이 변형되겠네
 주님 오네 구속을 이루려
 영광의 소망 주 올 때 우린 변형되리

하나님 비밀인 주님 영광의 소망
 하나님 충만 내 안에 나눠 주시네

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영광 영원히 누리리

완전한 구속인 주님 영광의 소망
 내 몸의 구속 이뤄져 사망 벗으리
 주 오셔 나의 몸 영화롭게 하실 때
 사망 다 삼켜 영원히 이기리

내 역사(歷史)인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주 그리스도의 체험 곧 나의 체험
 영광의 자유로 나를 이끄는 주님
 난 그와 하나 온전히 이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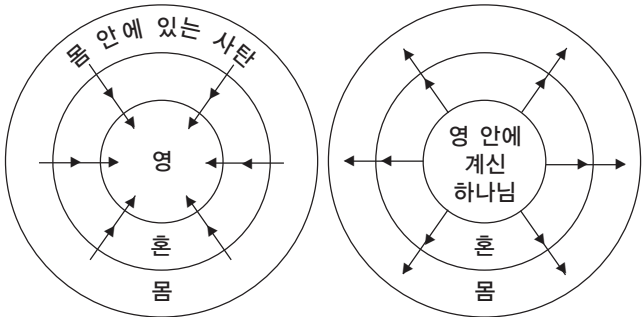
(한국복음서원 찬송가 763장)

혼을 얻기 위해 싸우는 두 편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슬픈 이야기를 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 안에 들어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아담이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마귀는 아담을 통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인격화된 죄가 우리의 몸의 지체 속에 살면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며 불법적인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것이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에서 언급된 죄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온 우주 가운데서 악하고 죄악 된 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대적이다. 그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은 본성이 변하여 육체가 되었다. 육체는 부패되고 파멸되고 손상된 몸으로서, 그 안에는 악한 자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육체는 혼을 지배하려고 위협한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확산시키는 기지가 되었듯, 사탄이 점령한 타락된 육신은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기지가 된다. 사탄은 육신에 거처를 정하여 혼에 영향을 끼치며, 혼을 통해 영을 죽이고자 한다. 사탄의 일은 언제나 밖에서 시작해 안쪽을 향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항상

중심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변으로 확산된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람의 혼은 사탄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탄은 혼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육신을 통해 혼에 독을 넣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의 우리의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생각과 양심에 빛 비춤을 받았을 때, 우리는 죄를 깊이 뉘우치고 영 안에서 통회하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었다. 그 후 주님은 영광스럽게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다. 비록 원수 사탄이 육신을 기지로 취하여 그곳에서부터 안으로 영을 향해 싸울지라도, 영광스러운 주님은 영을 기지로 사용하여 그곳에서부터 밖으로 육신을 향해 싸우신다.

우리는 매우 복잡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주적인 전쟁을 하기 위한 우주의 전쟁터이다. 사탄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탄은 매일 매일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 사탄은 중심을 향하여 싸우는 반면 하나님은 밖을 향하여 싸우고 계신다. 여기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는 중립적일 수 없다. 우리는 어느 편에든 속해야 한다. 사람의 바깥 부분에는 하나님의 대적이 있고, 속 부분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 그 둘 사이에 혼이 있다. 사탄은 타락한 몸 안에 있고 하나님은 거듭난 영 안에 있으며 우리는 중간인 사람의 혼 안에 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전체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사탄 편에 선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패배하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실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사탄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 자아를 부인하라! 바꿔 말해서, 혼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라. 왜냐하면 혼이 바로 자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음에 넘기며,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야 한다. 혼이 십자가로 제해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혼을 죽음에 넘기면 하나님과 사탄만 남는다. 우리는 혼을 십자가로 끝냄으로 대적을 위한 교두보를 태워버린다.

사탄은 육신 안에 있다. 왜냐하면 사탄은 육신을 입은 죄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아는 혼 안에 있다. 죄와 자아는 서로 불법적인 결혼을 했다. 이 둘은 사실상 이미 오래 전에 결혼했다. 우리 안의 모든 문제는 자아가 사탄과 결혼하여 하나된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다. 타락된 몸인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으며 위협받고 있는 혼 안에는 자아가 있다. 반면에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는 규제하는 생명과 능력이신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있다. 혼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의해 살고 행한다는 뜻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사탄과 결혼한다는 의미이다. 이 결혼은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죄의 속박 아래 둔다는 의미이다. 육신에 거하는 악한 자는 우리를 붙잡고 패배시켜 자신의 포로로 만들며 우리를 가장 곤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혼, 즉 자아를 부인하고 영에 의해 살고 행한다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전 존재를 규제하고 흠뻑 적셔 주실 것이다.

혼을 처리하는 십자가

거듭난 후 우리는 더 이상 홀로 행하거나 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홀로 산다면 우리는 사탄의 속박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은 “나는 혼자 살거나 혼자 일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영과 혼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얼마나 혼 안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혼자 살지도 않고 혼자 어떤 일을 하지도 않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육체에 의해서인가? 여러분은 아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육체에 의해 살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은 좀 의심스럽군요.”라고 여러분은 말한다. 만일 여러분이 육에 의해서도 살지 않고 영에 의해서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대답은 여러분이 다만 혼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오, 저는 어떤 죄도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육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탄과 협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길에서 행하고 싶습니다. 진정입니다. 진정으로 저는 주님의 길에서 행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혼 안에 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말해 보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매우 의심스러워한다. 만일 여러분이 육체에나 영에도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혼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은 애굽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유월절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애굽에서부터는 구출되었을지라도 아직 좋은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은 여전히 혼의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1) 인간의 사랑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과 혼을 분별할 수 있는가? 언제 영에 있고, 언제 혼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혼과 영을 분리시킬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

라”(마 10:37-39).

이 구절의 ‘목숨’은 헬리어 원문에서 ‘혼’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 이 구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것이다. 혼 안에 있는 인간적인 사랑은 십자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영과 혼을 분별하는 법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의 형이나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혼에서 영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을 점검할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은 십자가에 의해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돌보아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타고난 애정, 천연적인 사랑, 천연적인 관계들은 십자가의 처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에서 처리된 후에야 우리는 영 안에 있게 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부활 생명, 즉 타고난 생명이 아닌 영적 생명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혼이 얼마나 많이 파쇄되었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십자가의 처리를 받았는가에 달려 있다. 천연적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잘려나갈 때 우리는 혼을 잃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천연적인 사랑을 처리함으로 우리의 혼을 잃어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미워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6-27).

여기의 ‘목숨’이라는 단어도 헬리어 원문에서 ‘혼’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외에도 우리는 또한 ‘자기 사랑’, 즉 자신에 대한 사랑 또는 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자기 사랑’과 많은 관계가 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 미워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미워하는가? 우리의 대적인가?

우리는 대적을 미워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혼을 미워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곧 우리의 혼을 잃는 것과 관련된다. 우리는 자신을 미워함으로써 혼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로 제한할 수 있다.

(2) 세상을 사랑함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눅 9:23-25).

“룻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눅 17:32-33).

이 모든 구절에서 ‘목숨’은 헬라어 원문에서 ‘혼’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 이 구절들은 혼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곧 우리의 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이 잘릴 때 비로소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혼은 서로 관계가 있다.

“룻의 처를 생각하라”.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이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한 아내의 이야기이다. 여기서 주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한다면 나쁜 의미에서 우리의 혼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면 좋은 의미에서 우리의 혼을 잃게 될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3) 타고난 생명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요 12:24-25).

여기의 '생명'도 '혼'을 의미한다. 이 두 구절을 주의 깊게 읽고 생각한다면, 혼이 타고난 생명이나 타고난 힘과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힘은 혼을 잃어버림으로써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힘이 죽음에 넘겨질 때 우리의 혼은 파쇄될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영과 혼을 분별할 수 있는가? 다만 자아 생명을 십자가로 가져가 자신을 죽음 아래 둬으로써만 가능하다. 혼은 늘 속는다. 왜냐하면 혼은 죄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 위에 십자가를 둬으로써 혼을 점검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어떤 형제와 교통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의 교통이 영에 속한 것인지, 혼에 속한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우리 자신 위에 놓음으로써 우리가 영에 있는지 혼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악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형제와 교통할 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 교통이 좋더라도 혼에 있을지 모른다. 십자가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될 때 우리의 교통은 즉시 영에 있는지 혼에 있는지 분명해질 것이다. 선악의 판단에 의해 혼인가, 영인가를 점검하지 말라. 그러한 점검은 우리를 어둡게 할 뿐이다. 십자가 이외에는 혼과 영을 분별할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혼에 있는가 아니면 영에 있는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뿐이다. 내게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는 요소가 있는가? 내 활동은 자기 중심적인가?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적인 활동을 십자가에 두었는가?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라. 모든 결정과 모든 활동은 선악의 표준에 의해서가 아닌 십자가에 의해 점검되어야 한다. 모든 대화에서 자아가 제해졌는가? “내가 영 안에 있는 것인가, 혼 안에 있는 것인가? 나의 느낌이 얼마나 깊은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지. 만일 느낌이 그렇게 깊지 않다면 나는 틀림없이 혼 안에 있는 거야. 그러나 그 느낌이 깊어 보인다면 나는 영 안에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며 분석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다가 참으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만 한 가지를 점검해 봄으로써 분명해질 수 있다. 우리는 십자가에 두어져 있는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자아를 부인했는가? 십자가를 졌는가? 영 안에서 주님을 따랐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자

기를 부인할 때 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완전한 입지를 소유하시게 될 것이며, 우리는 쉽게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신약 성경에는 징계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이 훨씬 더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징계는 십자가와 함께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기다리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십자가를 지기를 배워야 한다. 매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혼에는 어떠한 입지도 주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과 실제로 하나가 될 것이며,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흠뻑 적셔 주실 입지를 소유하실 것이다.

제 14 장

십자가의 원칙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십자가의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십자가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두 번의 창조를 하셨다. 첫째 창조는 옛 창조라 불리며, 둘째 창조는 새 창조라 불린다. 새 창조는 옛 창조를 끝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함으로써 생겨났다. 새 창조는 옛 창조를 끝냄으로써만 나타날 수 있었다. 옛 창조를 끝낸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룬 것이었으며, 새 창조가 부활 안에서 시작된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였다.

옛 창조의 항목들

옛 창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옛 창조의 첫째 항목은 천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며, 둘째 항목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생명을 가진 두 종류의 존재들이다. 천사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사탄이 되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반역자'라는 뜻이다. 사탄은 자신이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을 이끌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주도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의하면 하늘의 별, 즉 천사들의 삼분의 일이 사탄을 따랐다. 반역한 이 천사들은 악한 군대, 즉 에베소서 1장과 2장과 6장에서 언급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이 되었다. 천사들의 반역은 옛 창조의 셋째와 넷째 항목인 '사탄'과 그의 '왕국'을 가져왔다.

계속해서 옛 창조의 나머지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 보자. 사람이 창조된 후, 하나님의 원수는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도록 만들었다. 사람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람 속에 무엇인가 주입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 즉 인격화 된 단수의 죄이다. 사탄의 죄악된 본성과 생각이 사람 속에 주입되었다. 타락한 천사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 안에 주입됨으로 이 우주 안에 죄라는 것이 생겨났다. 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불법적으로 연합함으로써 생겨났다. 그러므로 죄는 옛 창조의 다섯째 항목이다. 단수의 죄가 생겨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죄는 많은 죄들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거짓말, 살인, 교만, 간음 등과 같은 죄의 열매인 죄들이 옛 창조의 여섯째 항목이다. 이 모든 죄들은 죄에서 생겨났다.

세상은 일곱째 항목이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지만 사탄은 세상을 만들어냈다.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생겨났지만, 창세기 4장에 이를 때 비로소 죄에 무엇인가가 더해진 세상이 사탄에 의해 만들어졌다. 세상이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사탄 아래 있는 모든 인간 생활의 조직을 말한다.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그것은 '조직'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탄은 인류를 조직화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사탄에 의해 그리고 사탄을 위해 완전히 조직화되었다.

그 외에도 옛 창조에 속한 또 하나의 항목은 죄와 죄들의 결과인 사망이다. 육신, 즉 사탄에 의해 변질되고 독이 주입되어 파괴된 몸도 역시 옛 창조에 속한다. 몸은 죄인 사탄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었다. 옛 창조의 또 하나의 항목은 옛사람이다. 옛사람은 사탄이 망쳐놓은 사람의 전체를 지칭한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이제는 사탄에 의해 타락되었다.

그 다음은 자아이다. 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육신의 위협을 받는 타락한 자아가 되었다. 그것은 몸과 같다. 하나님은 원래 선하고 순수한 몸을 창조하셨지만, 이 몸은 사탄의 죄의 본성에 의하여 타락하게 되어 육체가 되었다. 동일한 원리가 혼에도 적용된다. 혼도 순수하고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이후에 육체의 영향을 받았다. 혼은

육체의 위협을 받고 더 나아가 육체가 통제하는 자아가 된 것이다. 죄로 인해 몸이 타락하여 육체가 된 것처럼, 혼은 육체의 영향과 통제로 인해 자아가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두째 항목은 모든 창조물이다. 모든 창조물은 천사의 반역과 인간의 범죄에 의해 손상되고 타락되었다. 이 때문에 모든 창조물은 썩어짐의 노예가 되어 깊이 탄식하게 되었다(롬 8장).

옛 창조의 중심

이 열두 항목들이 옛 창조이다. 옛 창조는 많은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이 바로 옛 창조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타락한 사람은 옛 창조의 열두 항목 하나하나와 관계를 갖고 있다. 먼저,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 사탄의 왕국은 사탄에게 포함된다. 따라서 사탄이 사람 속에 있으므로 사탄의 왕국 또한 사람 안에 있다.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므로 세상 또한 사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사람 안에도 역시 세상이 있다. 죄와 죄들도 물론 사람 안에서 체현되었고, 그 결과로 사망을 가져왔다. 육체와 옛사람과 자아도 역시 사람 안에 있다. 사람은 과거에 모든 창조물의 머리였고 현재에도 머리이다(창세기 1장에 의하면 사람은 모든 창조물의 머리로 정해졌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 전체와 관련되어 있고 창조 전체가 사람과 관계있으며 사람 안에 모여 있다. 사람은 모든 면에서 옛 창조의 중심이다.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다. 사탄을 만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특별한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 사람에게 가면 사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탄의 왕국에 가보고 싶으면 달나라로 갈 필요가 없다. 사람에게 가면 그 왕국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도 동일하다. 옛 창조를 대표하는 사람 속에는 사탄과 사탄의 왕국과 세상과 죄와 죄들과 사망과 육체와 옛사람 등이 있다. 우리는 작은 사람이 아니다. 나쁜 의미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큰 사람이다. 이제 창조물 전체가 사람 안에 모여 있다.

옛 창조의 종결

주님을 찬양하자! 어느 날 중대한 일이 있었다.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이 사람 안에서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짊어지셨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으셨을 때 이것은 옛 창조의 모든 것을 그분 위에 짊어지신 것이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복수의 죄들이 아닌 단수의 죄)로 삼으셨다고 말한다(고후 5:21).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셨고(사 53:6),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다”(벧전 2:24). 주님은 “죄의 육신의 모양”이셨다(롬 8:3). 그 모양은 육신의 모양이었고, 그 육신은 죄의 육신이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기록한다. 즉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주님께서 육신 안에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은 죄의 육신 안에서 사람이 되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죄가 사람의 육신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육신은 죄의 육신이 되었고, 주님은 이 육신 안에서 성육신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만일 그분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셨다고 말한다면 그분이 우리처럼 죄 있는 본성을 가지셨다는 의미가 되므로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절은 주님께서 죄의 육신의 죄악 된 본성이 아닌 단지 죄의 육신의 모양이 되셨다고 말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이 장대, 즉 십자가에 달린 낫 뱀으로 예표되었다고 친히 말씀하셨다. 낫 뱀은 뱀의 ‘모양’ 만 가지고 있을 뿐 뱀의 ‘독이 가득한 본성’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주 예수님은 죄의 육신의 모양을 갖기 위해 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육신의 죄악 된 본성에 있어서는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셨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은 죄의 모양 안에서 죄가 되신 것이다.

그분은 친히 사람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사탄과 사탄의 왕국과 세상과 죄와 죄들과 육신 등을 모두 자신 위에 두셨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한다. 주님은 뱀으로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성육신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뱀의 모양을 가진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사람은 사탄인 뱀과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뿐 아니라 침례자 요한까지도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들은 뱀의 자손이었다. 왜냐하면 뱀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속에는 뱀의 독성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 있는 사람들인 그들은 뱀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주님은 죄의 육신의 모양만 갖고 계셨을 뿐, 죄악 된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신 것이 아니다. 장대 위에 달린 낫 뱀처럼 주님은 뱀의 본성과 독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뱀의 모양만 가지고 계셨다.

이제 십자가를 보자. 그리스도는 먼저 옛 창조의 모든 것을 포함한 사람을 입으신 후 이 사람을 십자가로 데려가셨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사람이 못 박혔다.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칙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십자가로 이끌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사람과 세상과 사탄과 사탄의 왕국과 죄와 죄들과 옛사람 등 모든 것이 함께 못 박혔다. 옛 창조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끝났다.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이 죽음을 체험해야 한다.

다음 성경 구절들은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낸 십자가의 원칙을 보여 준다.

- 1) 천사의 생명—골 1:20
- 2) 인간의 생명—갈 2:20
- 3) 사탄—히 2:14, 요 12:31
- 4) 사탄의 왕국—골 2:15, 요 12:31
- 5) 죄—고후 5:21, 롬 8:3
- 6) 죄들—벧전 2:24, 사 53:6
- 7) 세상—갈 6:14, 요 12:31
- 8) 사망—히 2:14
- 9) 육신—갈 5:24
- 10) 옛사람—롬 6:6
- 11) 자아—갈 2:20
- 12) 만물 또는 창조물—골 1:20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세상과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고 쫓겨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 이일이 일어났는가? 24절에 의하면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났다. 히브

리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즉 마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혈육을 입고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없애 버리셨음을 계시한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람만 하나님과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만물도 하나님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목하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씀의 문맥에 따르면 모든 창조물이 십자가 위에서 처리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깊이 감동되어야 한다. 그 죽음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자신 전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십자가로 이끌렸다. 십자가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종결'이다. 모든 것은 처리되었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있어야 할 유일한 곳이다. 우리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 등을 십자가 위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칙이다. 우리가 있을 다른 곳은 없다. 우리는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젊다. 우리는 선하다. 우리는 나이든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선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져야 한다. 결코 선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선하든 악하든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못 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평가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옛 창조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교회는 새사람이요, 새 창조이다. 모든 것이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이것은 만물이 죽음 안에서 끝났으며 모든 것이 부활 안에서 새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원칙을 보았고, 다음 장에서는 부활의 원칙을 살펴 볼 것이다. 우리에게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다 죽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에게는 부활 안으로,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을 것이다.

제 15 장 부활의 원칙

앞 장에서 우리는 옛 창조의 열두 가지 항목들을 살펴보았는데, 그중 첫째 항목이 천사의 생명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옛 창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한때 그들이 모든 천사들의 우두머리였던 사탄의 인도 아래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사탄의 반역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옛 창조와 구별된다. 오직 사탄을 따라 반역한 천사들만 옛 창조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므로 옛 창조의 열두 가지 부정적인 항목들 가운데 첫째인 천사의 생명에는 선한 천사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타락한 천사들은 반역 후 정사와 권세와 주관하는 자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엡 1, 2, 6장, 골 2장). 에베소서 6장에 언급된 악한 영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다. 반역하지 않은 대다수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종결된 옛 창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는 그러한 예외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마귀의 반역 속에 빠져 들어갔기 때문이다. 인류의 반역은 첫 사람 아담으로 시작하여 아담의 모든 후예를 다 포함하고 있다. 천사들 가운데는 반역한 무리와 반역하지 않은 두 무리가 있지만, 사람은 다 한 무리일 뿐이다. 타락한 인류는 아담으로 대표되며 아담의 머리 됨 아래 있다. 그러므로 아담을 통해 인류 전체가 타락한 옛 창조 안에 포함된다.

반역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옛 창조 안에 포함된다. 사탄은 그에게 주어진 권위를 잘못 사용했다. 그는 자기의 왕국(마 12:26)을 이룩하기 위하여 그 권위를 이용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와 에스겔 28장 13절과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에

의하면 사탄은 처음부터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하나님께 임명받았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위를 받은 것이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던 주 예수님도 사탄에게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셨다. 사탄은 또한 능력과 권위를 잘못 사용한 한 무리의 천사들로 그의 왕국을 이루어 자신의 통치 아래 두었다.

사람이 창조된 후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 죄를 짓게 했고, 사람 속에 있는 죄는 죄들이라 일컬어지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 사람을 타락시킨 후 사탄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결혼과 주택 등과 같이 사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필수품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지만, 사탄은 그것을 온 인류를 조직화하는 데 이용했다. 우리는 이렇게 사탄이 만든 조직을 세상이라 부른다.

죄로 인하여 죄들과 세상과 사망이 인류 속에 들어왔다. 또한 타락에 의해서 사탄은 자기 본성에 속한 것을 사람의 몸속에 주입시켜 사람의 몸을 타락시키고 변질시켜 육체가 되게 했다. 타락의 또 다른 결과는 사람 전체가 옛사람으로 변한 것이다. 게다가 육체의 위협과 영향을 받는 사람의 혼은 자아가 되었다. 혼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을 통해 자아가 되었다.

사탄은 천사들의 머리였고, 아담은 나머지 창조물의 머리였다. 그러나 이 두 대표가 모두 배역을 했다. 결국 모든 창조물이 영향을 받았으므로(롬 8:20-22, 골 1:20),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화목될 필요가 있었다.

영원한 영 안에 있는 만유를 포함한 죽음

이 모든 항목들이 옛 창조를 구성하며, 우리가 본 대로 타락한 사람은 바로 옛 창조의 중심이 되었다. 온 우주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람 안에 모여 있게 되었다. 사탄은 그의 왕국과 세상 조직과 함께 사람 안에 있고, 죄와 죄들과 죽음과 자아와 육과 옛사람 또한 사람 안에 있다. 우주의 부정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옛 창조 전체가 타락한 사람 안에 모여 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셨다. 그리스도는 작고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옛 창조를 모두 포함한 사람을 입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시고 사람으로서 뱀의 모양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이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는 사람이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뱀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셨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다(고후 5:21).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분 위에 올려 놓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을 죄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불법과 죄들을 그리스도 위에 두셨고 또한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를 사탄의 모양 안에서 죄로 여기셨다. 우주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타락한 사람 안에 모여 있었으므로 그리스도는 이 사람 속에 들어와 이 사람을 십자가로 데려가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십자가로 끌고 가셨을 때 우주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끝내셨을 때 옛 창조도 역시 끝났다. 옛 창조의 열두 가지 항목은 모두 십자가 위에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끝난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조망과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는 펄쩍 뛰며 “할렐루야!”라고 외칠 것이다.

에스겔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건축물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우리가 성막의 전체 그림을 한 장의 종이 위에 그린다면 십자가의 예표인 제단이 정확하게 건축물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건축물의 수직과 수평의 치수를 볼 때 제단은 정확히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위치했다. 이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옛 창조 전체를 종결한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 만유를 포함한 죽음은 영원하신 영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일어났다.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한 번 사용되었다. 사람 안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포함한, 온 창조물의 중심이 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끄셨을 때, 그분은 영원하신 영 안에서 그것을 하셨다. 그리스도

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영 안에서 이 만유를 포함한 사람을 끝내셨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하신 영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끝낸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과 함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십자가로 이끌어 끝내셨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신다. 비록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끝났을지라도 그분의 영은 결코 끝나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영에 의해서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죽음으로 이끄셨다. 모든 것들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끝났다. 오직 영원하신 영만이 죽음을 통과하여 남아 계셨다. 그리스도는 이 영 안에서 그리고 이 영에 의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로마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의 영(the Spirit of holiness)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한다. 거룩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성령 대신 거룩함의 영이라고 기록했는가? 거룩함은 단순히 분별을 의미한다. 이 영원하신 영께서 죽음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분은 분별의 영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시다. 사망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지만 영원하신 영만은 끝낼 수 없다. 그분은 모든 것과는 달리 분별되어 계신다. 그분께서 거룩함의 영이신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입증되었다. 어떤 책이나 물건은 처분하려고 쓰레기통 속에 버릴 수 있겠지만, 사람을 쓰레기통에 넣는다면 그는 쟁충 뛰어 나올 것이다. 그는 그렇게 끝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책들과는 다르다. 그는 쟁충 뛰어 나옴으로써 다른 물건들과 자신을 분별시킨다. 그는 분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탄과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가서 끝났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가서 죽음 안으로 들어간 영원하신 영만은 끝날 수 없으셨다. 그분은 분별의 영이시다. 사망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이 영만은 붙잡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모든 것과 다른 이 영, 즉 분별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영원하신 영 안에 있는 부활의 실재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말하고 있다.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는가? 그것은 바로 동일한 분별의 영이시다.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영은 어떤 영이신가? 그분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부활의 영이시다. 이것은 부활의 실재와 부활의 원칙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의 원칙은 사망이 결코 끝낼 수 없는 이 영원하신 영께서 가져오신 분별이다.

부활의 원리가 영원하신 분별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영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할렐루야! 그분은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원칙 역시 우리 안에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사 십자가의 원칙과 부활의 원칙, 즉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났고 영원하신 영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바란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외칠 것이다. 우리는 울고 애걸하며 요구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항상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심을 말하고 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동생 마르다는 주님께서 너무 늦게 오신 것을 불평했다. 그녀에게는 부활과 생명이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았다. 마르다는 만일 주님께서 좀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사실상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제임을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다. 주님은 "내가 곧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부활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받은 이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원칙과 실재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영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영 안에 있다. 만일 우리가 이 영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의 실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이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부활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부활은 다만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원칙과 실재는 영원하신 영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영원하신 영께서 곧 부활의 원칙이요 실재이시다. 어떤 것이든 죽음 속에 들어가면 끝나게 된다. 오직 영원하신 영만이 사망에 붙잡히실 수 없고 끝나실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후, 부활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영원하신 영, 분별의 영인 그분의 호흡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부활의 원칙이자 실재이신 영원하신 영은 제자들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원칙과 실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다음 두 구절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울은 “나는 옥중에 있지만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부활의 원칙과 실재가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풍성하고 만유를 포함하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는 예수의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 … 을 알려 하여”라고 말한다.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의 영의 공급이다. 예수의 영의 풍성하고 만유를 포함하며 모든 것을 채우는 공급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다. 이 능력과 공급은 영원하신 영, 분별의 영이다. 그러나 이 영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이면 족하지 않은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릴 뿐 아니라 그분의 영을 인해서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의 십자가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끝냈고, 이제 그분의 영원하신 영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요약하면, 우리가 영원하신 영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의 실제적인 체험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말할 지라도 우리가 영원하신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결코 체험할 수 없다. 우리가 영원하신 분별의 영 안에서 살며 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의 죽이는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죽었다고 인정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영적인 자살을 하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영적인 자살을 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

리 안의 만유를 포함한 약이신 성령 안에서 살고 행한다면 십자가의 죽이는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의 원칙과 실재가 영원하신 영 안에 있으므로 부활은 또한 그분의 죽음의 효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영원하신 부활의 영 안에는 죽이는 요소인 십자가의 죽이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만유를 포함한 영 안에 있는 한, 십자가의 체험은 우리의 것이며 부활의 실재도 우리 안에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살아 있는 믿음으로 만유를 포함한 영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본다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외칠 것이다. 우리는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선포한다. 그때 십자가의 원칙과 부활의 원칙이 내주하시는 그 영 안에서 우리에게 실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다만 그분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며 누리라. 그러면 실제적인 생명의 성장을 체험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보아야 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상(異象)이다.

제 16장 부활의 증성

히브리서 8장 10-11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니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히브리서 8장과 요한일서 2장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람의 외적(外的)인 가르침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히브리서 8장 10 절은 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기름 바름(영어의 ‘어노인팅(anointing)’)이라는 단어가 왕, 제사장, 신언자 등 사람에게 쓰일 때는 ‘기름 부음’으로, 성막이나 기구나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에 쓰일 때는 ‘기름 바름’이라고 번역해 주는 것이 원문의 의미상 적절하다. 이 단락에서는 후자에 속하므로 ‘기름 바름’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역자 주)이 우리 안에 거하므로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필요 없다고 말한다. 한 구절은 법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또 한

구절은 기름 바름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인가? 여러 해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우리 안에는 놀라운 법이 새겨져 있고 비밀스러운 기름 바름이 거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또 가련한 일인가! 우리에게 사람의 외적인 가르침이 필요 없는 이유는 바로 내적인 법과 내적인 기름 바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 안의 내적인 법과 내적인 기름 바름은 부활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우주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의 종결이라는 십자가의 원칙을 보았고 또한 부활의 원칙과 실재도 보았다. 십자가가 옛 창조를 끝내는 것인 데 반하여, 부활은 새 창조의 풍성을 산출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옛 창조는 끝났다.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옛 창조에 속한 열두 가지 항목이 십자가로 이끌려 완전히 끝났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부활이 왔기 때문이다. 무엇이 부활했는가? 사탄인가? 사탄의 왕국인가? 죄인가? 육신인가? 우리는 수천 번 아니라고 대답해야 한다! 영원하신 영은 본래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의 본질만을 부활시키셨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일부분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본성을 창조하셨지만 사탄이 그것을 손상시켰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의 죽음으로 사탄이 손상시킨 본성을 죽음 안으로 가져가셨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을 부활시키셨다. 주님은 사람의 본성을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들어 올리셨다. 그러므로 새 창조는 영원하신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부활 안에서 회복되고 높이 올려진 사람의 본성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부활의 풍성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 첫째로, 구약의 의미가 아닌 신약의 의미에서 삼일 하나님께서 계신다. 다음으로는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는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과 신성한 생명의 차이는 전기와 빛의 차이와 동일하다. 전기

가 빛이고 빛이 전기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구별이 있다. 예를 들어, 전기는 빛뿐 아니라 동력과 열 등으로도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은 다른 많은 것들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되신다. 셋째 항목은 하나님의 본성이며(벧후 1:4), 넷째 항목은 생명의 법이고(롬 8:2, 히 8:10), 다섯째 항목은 기름 바름이다(요일 2:27). 이 다섯 항목들이 만유를 포함한 부활의 풍성이며, 그 밖의 긍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새 창조는 부활 안에 있는 이 모든 항목들을 상속받는다.

부활의 모든 풍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성한 본성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며, 생명의 법과 기름 바름 역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움직임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부활의 풍성의 항목에는 속하지 않지만 이 풍성에 의해 회복되고 높이 올려진 존재이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법과 내적 기름 바름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것을 소홀히 여겨왔다. 그러나 내적인 법과 내적인 기름 바름은 부활의 실제적인 풍성들이다. 만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부활을 실제적으로 알 수가 없다. 만일 우리가 생명의 법과 내적인 기름 바름을 알지 못한다면 부활을 객관적으로만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명의 법과 내적인 기름 바름을 알 때에만 부활을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율법과 선지자들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는 구약을 생각해 보자. 어떤 의미에서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도 불렸다(마 7:12, 22:40). 그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율법은 변경시킬 수 없는 확정된 규칙들이다. 예를 들어 율법의 한 항목은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변경시킬 수 없는 규칙이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안내자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 율법은 확정되었다. 또 “도적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다. 그것 또한 확정적으로 정해진 규칙이다. 우리는 “주님, 흠치는 것이 당신의 생각인지 아닌지 말

씀해 주십시오. 도적질에 대해서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안내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십계명의 나머지 항목들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확정된 규칙이다.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 없다. 그가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지자들은 어떤가? 선지자들은 개인적인 상황에 관해 말한다.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라고 묻는다면 그는 “가도 좋다.”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그러나 또 다른 때에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선지자들은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주님의 살아 있는 인도를 제시한다. 율법에는 변화가 없지만,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많이 변한다. 우리는 한번 율법을 가지면 항상 그것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그 계명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선지자들이 주는 안내는 그 상황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계속 만나야 한다. 예레미야에게 물어본 사람이 “그 선지자는 한 달 전에 내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에게 물어보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면 다시 한번 선지자에게서 안내를 구해야 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도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정된 율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하는 데에는 안내가 필요하다. 그의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해야 하는가 저렇게 공경해야 하는가의 문제에는 안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를 만나야 한다.

구약은 여인들이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들은 여인의 옷을 입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세우신 확정된 규칙이요 변할 수 없는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옷을 사러 갔을 때 한 벌은 30만 원이고, 다른 한 벌은 3만 원이다. 이것은 율법이 아닌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차이점이다. 확정된 율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지만 선지자들의 안내는 모든 사람에게 다를 수 있다. 때때로 동일한 사람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

내적인 법과 내적인 기름 바름

신약에는 어떤 법이 있는가? 신약에도 법이 있기는 있지만 문자로 된 법은 아니다. 신약에는 생명의 법만 있다. 이것은 밖에 있는 법이 아니라 안에 있는 법이다. 돌 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법이다. 신약에서 선지자는 어떠한가? 생명의 법이 문자로 된 율법을 대치한 것과 같이 내적인 기름 바름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치한다. 예를 들어 내가 이발을 하려고 할 때 “주님, 제가 머리를 카우보이처럼 깎아야 할지 영화배우처럼 깎아야 할지 알려 주시겠습니까?”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는 인도를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영화배우나 카우보이 스타일의 머리를 금지하는 법이 있기 때문이다. 내적인 생명의 법은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를 조절한다. 어떤 한 자매가 헤어스타일을 영화배우처럼 하려고 한다 하자. 그녀의 깊은 속의 무엇인가가 그녀를 조절하고 점검할 것이다. 이것은 생명의 법이 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천 장 이상이나 되는 성경에 머리를 영화배우처럼 손질하지 말라고 금지한 말씀은 하나도 없다. 성경에서는 영화배우라는 말조차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화배우를 모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내적인 법이 있다.

어떤 형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 할 때 “주님, 제가 카우보이 바지를 입어야 할까요?”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 만일 그가 그런 옷을 입으려 한다면 내적으로 조정하는 법이 억제하며 금지시킬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법이 지닌 고정된 원칙이다. 그는 머리를 카우보이처럼 깎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역시 인도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이발을 해야 할 것인가는 주님께서 인도하실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 오늘 제 머리를 깎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이발소에서 깎아야 합니까, 형제에게 깎아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까?”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내적인 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기름 바름의 문제이다. 내적인 기름 바름이 사람 안에 거하며 인도하는 ‘선지자’이다. 만일 그가 부주의하여 자신 안에 있는 ‘선지자’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면 성급하게 형제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는 속에 있는 기름 바름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요점을 보았

는가?

대부분의 여자들은 쇼핑하기를 좋아한다.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들은 돈이 부족할 때까지 아무런 제한도 규제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에 의해 살며 행하기를 배우는 자매들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 자매들이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집어들 때 속에서 어떤 것이 그들을 규제하며 “그것을 내려놓으라.”라고 말한다. 그래서 자매들은 그 물건을 도로 내려놓는다. 또 다시 다른 물건을 집어들면, 또다시 “그것을 만지지 말라. 내려놓으라.”라고 말한다. 이러한 내적인 거절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내적인 법, 생명의 법이다. 세상 여자들은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모양이 어떻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이나 고를 수 있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산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들은 이런저런 물건을 집어들 때 안에서 거리키는 내적 느낌을 갖게 된다. 이것이 내적인 법의 규제하심이다.

또 다른 방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살 필요가 있을 때 그 물건을 사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하는지에 관해 안에 있는 기름 바름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은 내적인 기름 바름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주님과 교통할 필요가 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말해 줄 수 없다. 만일 여러분이 내게 그 문제를 가져온다면 나는 “나에게 묻지 말고 당신 속에 계신 분에게 물어 보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기름 바름에 의해 돈을 어느 정도 지출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 줄 것이다. 다만, “주님, 20만 원을 쓸까요?”라고 물어 보라. 안에 있는 기름 바름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 “10만 원을 쓸까요?” “안 된다.” “7만 원은요?” “글쎄.” “5만 원은 어떨까요?” “좋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좋다’고 느끼는 것이다.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의 아내에게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4만 원짜리의 모자에 대해서 물어 본다면, “여보, 주님께 가서 내적인 기름 바름에 의해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다. 내적인 기름 바름이 그녀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접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주님, 당신께 경배합니다. 당신은 제 생명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 그 모자를 사기 위해 얼마

를 써야 할지 적절한 느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녀는 안에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느낄 것이다. “4만 원을 쓸까요?” “아니다.” “2만 원은요?” “안 된다.” “만 오천 원을 쓸까요?” “좋다.” 마침내 내적인 기쁨 바름은 적합한 느낌을 줄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염려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적인 기쁨 바름에 의해서이다.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이다. 우리는 부활 안에서 삼일 하나님 자신을 갖고 있으며,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으로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적인 생명의 법을 갖고 있으며, 우리 안에서 관유(灌漑)로서 일하시고 끊임없이 움직이시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바르시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기쁨 바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페인트공이 탁자에 페인트칠을 하는 것과 같다. 페인트공이 탁자에 칠을 하면 할수록 페인트가 탁자에 더 많이 더해진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 바름이 더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 바르시기를 더욱더 원한다면, 얼마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와 본질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은 페인트이시요, 성령은 페인트칠을 하는 분이시며, 기쁨 바름은 페인트칠이다. 성령은 페인트이신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 속에 페인트칠을 하신다. 이 페인트칠이 주님의 뜻에 대한 내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내적인 통제와 내적 기쁨 바름을 가져야 한다. 주님의 길에서 보존되려면 우리는 내적인 법에 의해 통제받아야 하며,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내적인 기쁨 바름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자신의 요소가 우리 안에서 항상 증가하게 된다. 성령께서 페인트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칠하실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더욱 더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적이고 내적으로 체험하는 부활의 풍성이다.

제 17 장

생명의 교통과 생명의 느낌

요한일서 1장 1-7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교통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지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교통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짧은 몇 구절 속에 첫째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영원한 생명에서 신성한 교통이 나오고 이 신성한 교통은 하나님 자신인 빛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여기에 생명과 교통과 빛이 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생명과 평안뿐 아니라 사망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사망이나 생명과 평안은 우리 깊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

리에게 사망이 있는지 혹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있는지 아니면 생명과 평강이 있는지를 안다. 이 구절에 ‘느낌’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 둘 때 사망을 느끼게 되므로 사망을 알며, 생각을 영에 둘 때 생명과 평강을 느끼므로 역시 생명과 평강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는 내적인 생명의 느낌이 있다. 이 구절은 요한일서와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실재와 관련해서 요한일서 1장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요한일서 1장에는 생명의 교통이 있고, 로마서 8장 6절에는 생명의 느낌이 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부활의 풍성들 중 생명의 법과 기쁨 바름에 관하여 보았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그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우리의 풍성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부활 안에 있는 풍성의 다섯 가지 주요 항목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 창조 안에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풍성들을 누릴 수 있는 위치와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다. 새 창조의 근거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분깃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신성한 본성과 생명의 법과 내적인 기쁨 바름을 포함한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생각해 보라!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는 매일 매일 부활 안에 있는 이 다섯 가지 항목의 풍성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이 풍성을 누리며 이 모든 풍성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생명의 교통

하나님 자신의 풍성과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과 생명의 법과 내적인 기쁨 바름에 두 가지 항목, 곧 생명의 교통과 생명의 느낌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부활의 풍성의 산물이다.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교통을 가져온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생명과 교통을 나눈다. 생명의 교통은 피의 순환과 똑같다. 우리 몸속의 피는 우리 몸의 생명이다. 몸에 피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몸 안에는 피의 순환이 있어서, 이 피의 순환이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몸에서 제거하

며 영양분을 몸의 각 부분으로 공급한다. 매일 매일 혈액 순환은 노폐물을 실어 내보내고 몸의 각 지체에 영양분을 운반해 공급하고 있다. 혈액 순환은 계속적으로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방면으로는 몸의 지체들을 씻어내고 노폐물을 실어 내보내며,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방면으로는 몸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러면 생명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피가 생명이듯이 우리의 영적 피는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영적 피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또한 순환하신다. 몸 안에 혈액이 계속 순환되듯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항상 흐르고 계신다. 이 생명의 흐름이 바로 생명의 교통이다. 이 생명의 흐름, 생명의 교통에 의해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계속해서 흐를 때,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방면으로는 우리의 영양분의 필요가 채워지고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방면으로는 깨끗하게 되고 배출해야 하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 의학 전문가만이 혈액 순환에 의해 얼마나 많은 영양 공급과 배출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생명의 교통이란 그리스도 자신인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다.

예를 들어 전구를 생각해 보자. 전구 속의 전기의 흐름은 계량기에 기록된다. 계량기에서 전류가 중단된다면 전구는 빛을 낼 수 없다. 모든 전자제품의 기능은 전기의 흐름에 달려 있다. 전기의 흐름이 끊어질 때 빛을 내는 전구의 기능도 중단된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이 전류의 흐름을 갖지 못했다. 나는 내 경험을 잘 기억하고 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살아 있는 어떤 것이 내 안에 흐른다는 느낌이 없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사랑하고 접촉하며 주님을 위해 살수록, 나는 내 안에 어떤 것이 흐르고, 흐르고 또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생명의 흐름이요 생명의 교통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것이다. 그것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고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요일 1:1-3). 이 생명을 받은 이후 우리는 생명의 교통과 생명의 흐름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쉽게 인도될 수 있다.

생명의 느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빛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내적인 흐름을 느낄 뿐 아니라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내적인 비춤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이다. 이런 체험들에 대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다. 말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후 틀림없이 그러한 빛 비춤을 체험했을 것이다. 반복해 말하자면, 우리 안에는 무엇인가가 움직이며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흐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 안에는 내적인 빛 비춤이 있고, 모든 것이 빛 가운데 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분명하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틀렸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사망에 속한 것인지 생명에 속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내적인 느낌에 의하여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생명의 느낌은 생명의 교통과 깊은 관계가 있다. 생명의 교통은 빛이신 하나님의 비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생명의 느낌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이 빛 비춤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 준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고 예민한 느낌을 준다. 아주 사소한 실수일지라도 이 느낌은 즉시 그것을 찾아낸다.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며 더 많은 빛 비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을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느낌에 의해서이다. 이 느낌이 모든 것을 찾아내고 알아낸다.

더욱이 생명의 내적인 느낌은 항상 우리와 주님의 내적인 관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 두는 것은 로마서 8장 6절이 지적한 대로 다만 자아를 육신에 두는 것이다. 생각을 육신에 두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육신과 협력한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이렇게 육신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잘못된 것이다. 사람의 세 부분을 설명하는 세 개의 동심원을 기억해 보라. 육

신은 사탄이 부패시킴으로 본성이 바뀐 몸(바깥 원)이요, 생각은 우리의 인간 존재, 곧 자아를 대표하는 혼(중간 원) 안에 있다. 삼일 하나님은 영(중심 원) 안에 거하신다. 육신과 영의 중간에 위치한 생각은 양편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 중 하나인 로마서 8장 6절을 결코 잊지 말라.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서 8장 6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하고 로마서 8장 6절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가련한 그리스도인일 뿐, 결단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지만, 로마서 8장 6절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알려 준다.

우리의 생각, 즉 우리의 자아를 육신에 두는 것은 사망이며, 우리의 생각, 즉 우리의 자아를 영에 두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에 사망과 생명의 열쇠가 있다. 생각은 매우 중립적이다. 그것은 어느 편에도 설 수 있다. 육신을 향할 수도 있고 영을 향할 수도 있다. 다시 에덴동산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인간의 자유 의지는 둘 중 어느 것이라도 택할 수 있다. 지식 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며, 생명 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두 나무 사이에 있다. 우리는 생명과 사망 그 중간에서 있다. 결과는 우리의 선택, 즉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사탄을 의미하는 인격화 된 죄는 육신 안에 있고, 삼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계신다. 또한 자아라는 것이 생각 속에 있다. 생명과 사망의 비결은 우리가 영과 협력하느냐 아니면 육신과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육신과 협력할 때 사망을 갖게 되고, 영과 협력할 때는 생명이신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1) 사망의 맛을 느낌

우리에게 사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느낌으로 안다. 사망은 우리에게 일종의 내적 느낌을 준다. 그러한 사망의 느낌 중 하나가 '공허함'이다. 우리가 속에서 공허함을 느낄 때 그것은 사망을 느끼는 것이다. 사망의 또 다른 느낌은 '흑암(黑暗)'이다. 우리 속이 어둡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사망이 있는 것이다. 사망은 또한 '불안함'을 느끼도록 한다. 불안한 것은 안식이 없고 혼란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속에 차분함이 전혀 없고 우리 속의 모든 것이 마찰을 일으키며, 평안도, 안식도, 위로도, 고요함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사망의 또 다른 느낌은 '약함'이다. 우리는 종종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에게는 좌절감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의지도, 책임감도 없다. 마지막으로 사망은 우리에게 '우울함과 억압감과 무력감'을 준다. 이 모든 느낌은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쉽게 약해지고 침체된다. 왜 그런가? 우리의 생각이 사망을 가져오는 육신에 두어졌기 때문이다. 공허함과 흑암과 불안함과 약함과 압박은 모두 사망의 느낌에 속한 맛들이다. 공허함과 흑암과 불안함과 약함과 압박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사망이 있음을 안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고 육신과 협력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러나 이 사망의 느낌은 실제로 생명의 느낌에서 온 것이다. 한 사람이 정말로 죽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공허함이나 흑암이나 불안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록 생명이 병들고 약하더라도, 여전히 공허함과 흑암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게 마련이다.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을 접촉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에게 사망의 느낌을 주는 것이다. 생명의 느낌의 기능과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사망의 맛을 느끼는 것이다.

(2) 생명과 평안의 맛을 느낌

그러나 사망의 느낌은 단지 소극적인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 있다. 그렇다면 생명과 평안의 느낌, 맛은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공허함과 대조되는 '만족'과 '충만함'이 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었다고 느낀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하며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다. 둘째로 흑암과 반대되는 '빛'의 느낌이다. 우리는 내적인 만족과 함께 우리 속을 비추는 빛을 갖게 된다. 우리 존재의 구석구석에 빛이 충만하다. 모든 부분이 투명하다. 불투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함과 대조되는 '평강'을 갖게 되어 우리의 모든 불안함이 고요해진다. 바로 안식과 위로와

편안함이 있는 평강이 우리 안에서 느껴진다. 마찰과 다툼은 느껴지지 않는다. 약함과 대조되는 '강함'은 생명의 느낌의 또 다른 맛이다. 우리는 생명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다고 느낀다. 우리 안에는 살아 있는 발전기가 있다. 그것은 하나의 모터만이 아니라 네 개의 모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때로는 백만 마력의 힘이 느껴지기도 한다. 오, 우리 안에는 모든 약함을 이기는 참된 능력이 있다! 우리는 아내의 침울한 얼굴을 걱정하지 않는다. 아내가 우리에게 잔소리를 해도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외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 속을 뒤집어 우리를 불쾌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볍거나 약하지 않다. 우리는 무게가 있고 능력으로 가득하다. 어떤 것도 우리를 뒤집을 수 없다! 주님을 찬양하자! 이것이 생명과 평안의 내적인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억압감과 대조되는 '자유'가 있다. 생명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압박을 초월한다. 아무것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 억압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다만 느낌으로 그것들을 인식하며,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안의 이 생명은 흐르는 생명이다. 우리는 생명의 흐름을 통하여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족하고, 밝아지고, 강해지고, 위로받고, 높이 솟아오르고, 자유롭게 되며, 초월한다는 깊은 내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우리가 생명의 교통 안에 더 많이 있을수록 우리는 생명을 더 많이 느낄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더 많이 느낄수록 증가된 생명의 교통을 더욱더 누릴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순환적으로 체험된다. 즉 생명의 교통이 많을수록 생명의 느낌이 많아지고, 생명의 느낌이 많을수록 생명의 교통이 많아진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주님을 찬양하자!

생명의 교통과 생명의 느낌은 부활의 산물이다. 부활의 주된 풍성은 하나님 자신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신성한 본성과 생명의 법과 성령의 기쁨 바름이다. 이러한 풍성들에서 부차적이지만 매우 실제적인 생명의 교통과 생명의 느낌이 산출된다.

제 18 장

영의 훈련과 영 안에 들어감

제17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영접한 신성한 생명이 생명의 교통 또는 생명의 순환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 생명의 순환이 내적 느낌, 즉 더 깊은 생명의 의식을 낳는다는 것을 보았다. 이제 혼과 영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우리는 먼저 성막과 성전이 바깥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은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예표이기도 하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살전 5:23). 이 세 부분은 성막의 세 부분과 일치한다. 즉 바깥마당은 몸과 일치하고 성소는 혼과, 지성소는 영과 일치한다.

성막의 예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과 그리스도의 예표인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것은 이 예표가 신약에서 적용되고 성취된 것이다. 오늘날 주님은 지성소, 곧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에 계신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가 본 대로 4장 12절은 혼에서부터 영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혼과 영을 분별해야 한다. 이것은 신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사복음서는 혼을 부인하고 포기할 것을 권면하며, 서신서들은 영을 따라 행하며 사람의 영 안에서 살 것을 권고한다. 신성한 영이신 주 예수님은 바로 이 영 안에 거하신다(딤후 4:22). 그러므로 우리는 혼을 부인하

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따름으로써 혼과 영을 분별해야 한다.

제단의 체험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한번은 어떤 자매가 내게 와서 “만일 우리가 지성소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몸이나 혼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을 훈련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그 질문은 상당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몸 안에나 혼 안에만 있고 영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영을 훈련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몸이나 혼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영에서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손이나 발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손이나 발이 머리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몸과 혼과 영 전체로 구성된 존재이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를 각기 세 부분으로 분리할 수 없다. 나는 그 자매에게 그녀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녀의 회개가 바로 영을 사용한 것이었다고 말해 주었다. 참된 회개는 통회하는 영을 요구한다. 단지 머리 속에서 이루어진 회개는 깊고도 참된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우리의 깊은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비록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영을 사용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각 단계는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이르렀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구속된 곳이다. 성막의 예표에서 십자가는 바깥마당에 있는 제단으로 예표되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실제로 영을 사용했던 것이다. 우리가 영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지고 느끼고 접촉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는 영에 의해 살지 않고, 심지어 혼에 의해서도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바깥마당에 있는 제단을 지나갔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후 우리는 영에 의해 살지 않고, 혼에 의해서도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은 세상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을지 모른다. 나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판사였던 '썬(Sun)' 이라는 형제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어느 날 그는 복음 집회에 인도되었다. 나는 그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 집회가 끝나자 그는 내게 와서 “이 선생님, 하나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라고 세상적인 질문을 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조금 말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나의 말에 참으로 '감동'을 받았지만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성령이신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시니 다만 자신을 열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집에 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께 활짝 여십시오. 당신은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라고 말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날 밤 그는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버렸다. 그의 아내와 아들은 그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는 특별한 일이 있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은 창문 틈으로 엿보면서 왜 그가 무릎을 꿇고 있는지 생각하며 그를 비웃었다. 기도가 끝난 후 그는 어떤 일이 갑자기 그에게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날 그는 아침 식사를 한 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야 했다. 그리고 법정에 가던 중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는 나에게 온 우주가 변했다고 말해 주었다. 하늘과 땅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전에는 아주 싫어했던 작은 개와 고양이까지도 이제는 그에게 아주 즐거운 것이 되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웃기 시작했다. 그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생각도 해보았다. 법정에 들어가 사건을 다루면서도 그는 웃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사건을 처리한 후 더욱더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돈을 받았나요? 왜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라고 물었다. 그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즐거울 뿐이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변했어.”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날 그는 그가 정말로 구원받았음을 깨닫도록 도와준 한 젊은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며 살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바깥마당에 있었다. 그의 모든 느낌은 예전처럼 변함이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또 다시 집회로 인도되었다. 나는 집회에서 그를 보았을 때 정말 반가웠다. 집회가 끝나자 그는 “이 선생님, 당신은 훌륭한 강사이십니다. 정말로 말을 잘 하시는군요.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죠?” 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의 말은 그가 세상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때 그는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도 나와 대화를 나누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셨습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죠? 정당처럼 광고나 선전을 하셨습니까?” 라고 그는 물었다. 이것은 어떤 일들을 완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더니 또 내게 “이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게 그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신청서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는 또 나에게 “제가 만일 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면 일 년에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합니까? 제 가족은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가 저희 가족을 다 통제할 겁니까?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많은 규정을 제시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다. 이 사람은 참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모든 것은 그가 여전히 바깥마당에, 여전히 애굽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유월절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물질적인 세상에 머물러 있었다.

첫째 휘장의 체험

이 형제를 예로 들어 계속 설명해 보겠다. 그는 1938년에 구원받았다. 그 다음 해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참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전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었다. 삼 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1941년에 그는 비로소 소생되었다. 무엇인가가 그를 크게 변화시켰다. 어느 날 그는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떨쳐 버렸다. 그는 “오, 주님! 판사인 저의 직업과 저의 지식과 저의 가족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오, 주님! 이제부터는 당

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삼 년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세상을 포기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형제는 바깥마당에서부터 첫째 회장을 통과하여 성소에 들어갔다. 바로 그날부터 그는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매일의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에게 아주 소중하고 달콤하게 되었다. 그는 날마다 성경 말씀에서 양식 연기를 즐겨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진설병(陳設餅)을 누렸을 뿐 아니라 내적인 빛에 의해 밝아졌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즐거움도 갖게 되었다. 그는 내게 “오, 이 형제님!(그는 더 이상 나를 이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분향단의 달콤한 향기였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매일의 만나로 누리고 내적인 빛과 달콤한 부활의 향기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어디에서 체험할 수 있는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는 첫 회장을 통과함으로써 바깥마당에서 성소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아직 둘째 회장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처음에 그의 죄들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처리되었지만 세상과 세상적인 것들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다. 삼 년 후 그는 첫째 회장을 통과함으로써 세상과 세상적인 것들을 떨쳐버리고 성소로 들어갔다. 매일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과 양식과 빛과 부활의 달콤한 향기로 체험하기 시작했다.

둘째 회장의 체험

그러나 그는 아직도 지성소에 있지는 않았다. 죄들과 세상적인 것들은 없어졌지만 한 가지, 육체라는 것이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분리시키는 또 하나의 회장이 여전히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극동에서 온 최근의 서신을 통해 지난 일 이 년 동안 그 형제가 걸사람의 파쇄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걸사람을 파쇄하는 것은 둘째 회장을 찢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육체를 파쇄하는 것이다. 그 편지는

그가 걸사람의 파쇄를 체험함으로 영을 참되게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영을 분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도 분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영 안에 더 많이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바깥마당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죄들이 처리되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세상이 죽음에 들어갔다. 그러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자아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놀라운 만나로 누리며 하늘에 속한 빛과 부활의 달콤한 향기로 누릴 수 있지만 이런 누리조차도 아직은 얇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공개된 것이기 때문이다. 진설병은 '감추어진' 만나가 아니고, 빛은 '감추어진' 율법이 아니며, 향기는 '감추어진' 부활의 지팡이가 아니다. 집회에 온 모든 사람은 우리가 만나를 진열하고 빛을 발하며 분향단의 달콤한 향기를 퍼뜨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하다면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분향단의 달콤한 향기를 갖고 집회에 올 때 형제자매들은 "오, 얼마나 좋은 형제들인가! 참으로 달콤한 자매들이군.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니!"라고 종종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감추어진 만나도, 감추어진 율법도 아니며, 감추어진 싹 난 지팡이도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소의 좋은 체험들을 무시하지 말고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주님을 찬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매일의 만나로 누리며 그들의 빛과 부활의 달콤한 향기로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목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가난한 땅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광야일 뿐이다. 광야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산 반석이 있고, 매일의 만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급하신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에 참여하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애굽, 즉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지금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에 있지는 않다. 그것은 거룩하지만 가장 거룩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계속 전진해야 한다.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소극적인 것을 처리하는 일면일

뿐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이 있다. 우리는 좋은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 땅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애굽에서의 유월절(逾越節) 양도, 광야에서의 매일의 만나도, 좋은 땅인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다. 좋은 땅인 가나안은 그리스도의 어떤 한 면이나 일부분을 포함하신 것이 아니라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다.

또 다시 지적하거니와 구원받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제 우리는 성소에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 주님을 접촉하며, 빛 비춤을 체험한다. 비록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혼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해야 한다. 아마도 우리는 아침마다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읽고, 매일 매일 우리의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아직도 영 안에 있지 않고 혼 안에 있다. 결국 우리는 어느 날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고 부서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것이며, 자아가 장사된 것을 체험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영 안에 옮겨질 것이다. 그때 우리는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접촉할 뿐 아니라 우리 전 존재가 영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통과해야 할 중요한 세 지점이 있다. 우리는 제단과 첫째 휘장과 둘째 휘장을 통과해야 한다. 제단에서는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고, 첫째 휘장에서는 세상이 처리되었다. 그리고 둘째 휘장에서는 우리 자신, 즉 혼 생명, 옛사람, 겉사람, 육신, 자아 등이 처리된다. 그때 우리는 영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주님께 속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 단순히 영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홍해의 체험과 요단 강의 체험

이스라엘의 지리(地理)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歷史)를 좀더 살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의 죄를 처리하는 유월절에 동참했다. 그들의 죄가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 처리되었을 때 그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나 애굽 군대, 즉 바로와 그의 군대는 여전히 그들을 노

예로 삼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홍해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때 바로의 군대는 홍해의 물밑에 장사되었다. 바로의 군대는 수많은 사람들과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포함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경 하나가 애굽 군대의 병사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적인 물건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옷 문제가 단지 애굽 군대의 한 병사가 아닌 일개 사단이다! 세상의 많은 물건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그들의 폭정 아래 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때 온 세상이 처리되었다. 애굽 군대는 홍해의 물속에 장사되었다. 홍해의 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의 첫째 방향을 예표한다.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처리되고 매장되었다.

애굽을 떠난 후 이스라엘은 광야를 방황하며 날마다 만나를 누렸다. 만나는 다름 아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였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누린 것에 대해 간증하면서도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요단 강을 건넜다. 요단 강 속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열두 개의 돌이 파묻혔다. 홍해의 물 속에는 애굽 군대가 장사되었지만, 요단 강 물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아와 옛사람이 장사되었다. 그 일이 있는 다음에야 그들은 셋째 장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것을 포함한 그 땅의 풍성을 누리게 되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마당에 있었다.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성소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야 그들은 비로소 지성소에 있었다. 홍해는 첫 휘장과 일치하고, 요단 강은 둘째 휘장과 일치한다. 이 두 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두 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십자가의 첫째 방향은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처리하고, 둘째 방향은 혼에 있는 자아를 처리한다. 바꿔 말해서, 십자가가 두 휘장을 찢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물을 거쳐야 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두 휘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애굽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가나안에 있는가? 바꿔 말해서 바깥마당에 있는가, 성소에 있는가, 지성소에 있는가? 우리는 해 아래

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세상적인 환경에 있는가?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성소의 빛이 없고 다만 해만 있을 뿐이다.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해 아래 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닌가? 아니면 성소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만나로 누리며 하늘에 속한 빛과, 달콤한 부활의 향기로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보다 더 깊은 데 있는가? 지성소에서 우리는 바깥마당에 있는 아론이 아닌 하늘에 속한 지성소에 있는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 곧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감추어진 만나로, 감추어진 율법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감추어진 부활의 권위로 누릴 수 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제 가장 깊은 속에서 체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제 19 장

영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성막이나 성전은 바깥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바깥마당 안에 있는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기 전, 먼저 바깥마당과 성소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바깥마당

바깥마당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두 가지가 있다. 모든 성경 연구가는 번제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라는 것과 물두멍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예표라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이런 번제단과 물두멍을 체험한 일이 있는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드려 지셨다. 그분은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유월절이시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믿었던 날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이다. 우리가 그날에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양으로 누린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인 번제단을 경험하자마자, 물두멍으로 상징된 것과 같이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물두멍은 하나님의 백성이 씻겨지고 정결케 되는 장소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로 받아들인 후 성령은 우리의 안팎에서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하신다.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가지고 번제단을 지나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물두멍에서 먼지가 묻은 그들의 손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 매일 매일 생활 중의 세상 먼지를 씻어 내신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 더 이상 바깥마당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우리가 바깥마당 안쪽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와 영역 내에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속받아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이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씻음 받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외적(外的)으로는 기독교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는 것이다.

성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첫걸음일 뿐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성막의 정문으로 들어갔지만 아직도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의 휘장 또는 문이 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들어왔던 바깥마당에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성소 안의 첫째 항목은 '진설대', 즉 '떡이 진열된 탁자' 이다(구약 성경에서 이 떡은 진설병이라 불린다—역자 주). 진설병은 우리의 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다(요 6:35).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활의 공급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매일의 만나이시다. 진설대에는 한 조각의 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떡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풍성한 생명 공급을 체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침마다 풍성한 만나의 공급이 있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과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일로 체험한 후에도, 매일의 만나로 계속 체험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진설대를 생생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진설대 다음에는 둘째 항목인 등대가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생

명이실 뿐 아니라 빛이심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8장 12절도 이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면 주님은 분명 우리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우리를 밝히는 내적인 빛 비춤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의해 정결케 된 후부터, 그리고 그리스도를 매일의 만나로 먹고 사는 법을 안 다음부터 우리는 내적인 빛 비춤을 느낄 수 있다.

셋째 항목인 분향단은 진설대와 등대 다음에 온다. 이것은 우리가 향기, 즉 향기로운 냄새를 느낄 때 체험한다.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을 향하여 퍼져 올라간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음식으로 누리며 그분의 생명의 빛 속에 거할 때 부활 안에 있게 된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퍼져 올라가는 향기로운 어떤 것이 있다. 이것은 결코 지식이나 교리로 확증할 수 없고 우리의 체험으로 점검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그러한 체험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러한 체험이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런 체험들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삼십삼 년 전, 나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이 성소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는 나의 매일의 만나이셨고, 나는 주님으로 충만했으며 빛으로 충만했다. 나는 하나님을 매우 기뻐했고 하나님도 나를 매우 기뻐하셨으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을 향해 퍼져 올라갔다.

지성소 안의 법궤

그러나 이것이 끝인가? 이것은 거룩한 것이지만 가장 거룩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계속 나아가야 한다. 첫째 휘장은 통과해야 하지만 둘째 휘장은 찢기어야 한다. 이 휘장은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찢기어야 하는 육체이다(히 10:20).

지성소에는 단 한 가지, 법궤밖에 없다. 모든 성경 연구가들은 법궤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데 동의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

으로, 우리의 빛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냄새로 누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자신은 지성소 안에 계신다. 성소 안에는 양식과 빛과 달콤한 향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접촉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떤 항목으로 접촉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접촉해야 한다. 이것은 더 깊은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접촉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과 성령의 씻으심으로 누려왔다. 또 그리스도를 생명과 빛과 달콤한 향기로 체험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자신을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 자신인 법궤를 만지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이다.

이제는 법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만나가 법궤 안에 있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다. 그것은 공개된 만나가 아니라 감추어진 만나요, 진열된 만나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 있는 만나이다. 감추어진 만나는 분명 진설병과 상응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진설병은 나타난 것이지만 법궤 안에 있는 만나는 감추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진설병은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있지만, 법궤 안에 있는 만나는 금으로 된 향아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 만나가 금으로 된 향아리 안에 감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 향아리도 법궤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것은 이중으로 감추어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누렸지만 그들이 누린 만나는 공개된 만나였다. 그것은 땅에 떨어진 만나요, 하늘에 감추어진 만나가 아니었다. 감추어진 만나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는 더 깊은 그리스도, 더 은밀한 곳에 계신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이다. 아론은 바깥마당에 있으면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쳤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러한 누림은 다만 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체험한 것은 모두 많은 사람들이 즉시 알게된다. 때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체험의 소식은 온 나라에 퍼지기도 한다. 이것은 공개된 진설병의 체험일 뿐이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을 만지기 위해 전능하신 분이 계신 은밀한 곳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한다.

법궤 안에는 또한 통제하고 빛 비추는 ‘법’이 있다. 그 법은 성소에 있는 등대와 상응한다. 그 법은 하나님의 증거요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등대 또한 하나님의 증거이다. 비록 그 법이 등대와 상응하지만 등대는 공개적인 빛이요, 이 법은 내적으로 감추어진 더 깊은 빛이다. 많은 경우, 형제자매들에게 등대의 빛만 있다. 오, 그들은 참으로 빛을 받는다! 한 면으로 그것은 좋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그것은 여전히 얕은 것이다. 모든 것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서 법이 되셔야 한다.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 감추어진 살아 있는 법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밖으로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깊이 알고 있다.

셋째로 법궤 안에는 썩 난 지팡이가 있다. 썩이 돌아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것은 분향단의 향기와 상응하는데, 이는 둘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분향단의 향은 공개적으로 표현된 반면 썩 난 지팡이는 은밀하고 더 깊은 방식으로 체험된다.

양식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달콤한 향기이신 그리스도, 이 셋은 모두 성소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지성소의 법궤 속에 있는 세 가지는 이보다 더 깊다. 진설병은 나타난 것이다. 등대도 빛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분향단도 향기를 퍼트리는 것이다. 모두가 밖으로 전시된 것이다. 그러나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는 내적으로 깊이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감

성소는 한편으로 광야를 나타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혼을 나타낸다. 고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애굽에 있었다. 그들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체험했으므로 애굽이 그들의 바깥마당이었다. 유월절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려 왔다. 바깥 말하면, 바깥마당에서 성소로 나아간 것이다.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에 해당되지만, 고린도인들과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혼과 일치한다. 예를 들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유월절로 체험했고(고전 5:7), 그 후에 체험적으로

광야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그들의 만나와 생수로 누렸다(고전 10:1-5). 고린도의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의 광야는 바로 그들의 혼이었다. 고린도전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들이 혼적이며 육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양식과 빛으로 누렸고,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체험도 많았지만, 그들의 누림은 혼 안에 있었다. 그들의 육체, 즉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은 찢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혼은 처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인 영 안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어떤 것을 누렸지만 그리스도 자신을 누리지는 못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표되었다(히 3:6-8).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뿐 아니라 히브리 성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상황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지적했다.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 은혜의 보좌를 만지는 것이며,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지성소에 계신다는 것을 알려 준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침들에 의해 그리스도께 속한 어떤 것을 누렸다. 고린도전서는 은사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반해, 히브리서는 교리들의 문제를 다룬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혼 안에’ 있으면서 은사를 누렸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혼 안에’ 있으면서 교리를 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깊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고린도인들과 히브리인들은 모두 그들의 은사나 초등 교리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혼 안에서 광야를 겪어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영을 알고, 혼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간절히 권면했던 이유이다(고전 2:11-15).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도 동일한 것, 즉 그들이 혼에서 영을 분리하거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 이 두 서신서의 원칙은 동일하다. 신약에서 이 두 서신서만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한다. 그 이유는 고린도인들은 은사에 있어서 혼적이었고 히브리인들은 교리에 있어서 혼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은사에 있어서 혼적이며 교리에 있어서 혼적이다. 물론 교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왔고, 은사는 고린도인들을 도왔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혼 안에 있었다. 성소인 혼은 그리스도 자신을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지성소, 곧 영이 아니다.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접

축하려면 우리의 혼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혼에 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어떤 것을 누립니다. 당신은 왜 이런 교리들을 초보적인 것이라고만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교리로 인해 주님께 관한 어떤 것을 알고 누리는데요. 당신은 이 은사들이 너무 강조되었다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은사로 인해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누리고 있어요.”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광야의 그림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삼십팔 년 이상 방황하면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다. 하나님은 그토록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요, 지극히 관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틀렸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는 사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삼십팔 년 동안 만나 이상의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한 것이 그들이 얼마나 갓난아이 같고 육적인가를 입증했다. 짧은 기간에는 만나가 좋지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누리려면 만나를 떠나야만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만 이것이다. 잠시 동안 은사를 갖는 것은 허용되지만 항상 은사를 갖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만 어린아이임을 증명할 뿐이다.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하며 더 빨리 나아가야 한다. 은사들은 우리의 기업이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신 기업이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를 다루기 전에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지적했다. 우리는 은사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전 1:9).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속되었다(고전 1:30).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인해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은사는 잠시 동안 도움이 될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만나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지만 만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시적인 양식이 되었을 뿐이다. 그들은 삼십팔 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사를 인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도울 매일의 만나와 은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그런 과정에 머무는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어리며 갓난아이 같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전진한다면 더 이상 만나를 누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즉시 가나안의 좋은 땅의 산물을 누릴 수 있다. 좋은 땅의 산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 안에, 즉 영 안에 있음을 증명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혼인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다면, 십자가가 우리의 육과 혼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히브리서 4장과 5장과 6장은 우리에게 계속 전진하라고 권면하며, 고린도전서 9장은 경주를 하라고 권고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만지기 위해 계속 영 안으로 들어가 감추어진 만나와 내적인 법과 비밀한 싹 난 지팡이를 체험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에 있어서 자신들을 통제하고 제한하라고 충고했다. 그들은 은사를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배워야 했다(고전 14장). 만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주의 깊게 객관적으로 읽는다면 필자의 의도가 성도들에게 은사를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도록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합당한 경주를 위하여, 우리는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더 깊은 것들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모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번제단에 있는가, 물두멍에 있는가? 어찌면 우리들은 성막 문 바깥에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바깥마당에 있는 두 가지 항목들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체험하고 진설대와 빛과 달콤한 향기가 있는 곳으로 나아갔는가? 아니면 성소를 통과하고 이제 지성소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영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자신을 가장 깊이 만지고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제 20 장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임을 또다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세 부분으로 만들어졌다. 즉 밖의 몸과 속의 영과 그 사이의 혼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의 영 안에 분배하시고 그런 다음 그분 자신을 사람의 혼 안으로 분배해 넣으시는 것이다.

세 인격에 의해 복잡해진 세 부분으로 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전,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 자신을 사람의 몸 안으로 주입해 넣었다. 그러므로 몸의 지체 속에는 인격화 된 죄가 있다. 사탄은 불법적인 왕이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도록 통치하고 강요할 수 있다. 사탄 자신이 악한 본성과 죄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몸을 부패시킨다. 육체는 사탄에 의해 독이 주입된 몸이며, 우리 속, 즉 우리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롬 7:18).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반대로 죄의 법을 섬긴다(롬 7:15, 20).

사탄은 죄의 법으로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다. 이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그러면 혼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혼 안에는 우리의 자아가 있다. 여러분은 아담과 사탄과 하나님, 이 세 존재가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사람

아담이 우리 안에 있고, 마귀 사탄도 우리 안에 있다. 또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자신도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에덴동산이 된 것이다.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생명나무와 사탄을 대표하는 지식의 나무는 에덴동산에 있던 세 편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두 우리 안에 있다. 아담인 자아는 우리의 혼 안에 있고, 마귀인 사탄은 우리의 몸 안에 있으며,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작은 동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거대한 전쟁터이다. 사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며 싸우고 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서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고 계신다. 사탄은 육체인 우리 몸을 전쟁의 기지로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전쟁을 위한 기지로 차지하고 계신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라고 말한다. 헬리어 행간역에는 영이 소문자(spirit)로 되어 있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영을 거스르며 우리의 영이 육체를 거스르고 있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 타락한 육체는 영을 거슬러 싸우고, 영은 육체를 거슬러 싸운다. 이 두 부분이 항상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사탄은 죄로서 우리의 육체 안에 있고, 삼일 하나님은 생명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전쟁터에는 매일 매일 둘 사이의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것이다.

생각으로 대표되는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우리가 본 대로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세 부분이 있다. 혼의 사고(思考)하는 기관인 생각은 자아를 대표한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행동보다 앞선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은 우리 ‘자신’을 대표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과 8장과 12장에서 생각을 다룬 이유이다. 로마서 7장은 생각이 하나님의 법의 편에서 있다고 말한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롬 7:25). 그러나 내 자신을 대표하는 나의 생각은 너무나 연약하다. 내 자신은 너무나 약하다.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결심할 때마다 나에게는 자신보다, 내 생각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육체 안에 있

는 악한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할 때마다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악한 자가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 나를 패배시키고 나를 사로잡아 간다(롬 7:23). 내 자신을 대표하는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나의 생각이 단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패배한다.

로마서 7장의 생각은 혼자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독립적인 생각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8장으로 이끌어 생각이 무엇을 의존해야 하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애쓰는 독립된 생각은 패배 당할 것이다. 그러면 생각은 무엇을 의존해야 하는가?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한다. 생각은 육신을 의존할 수도 있고 영을 의존할 수도 있다. 만일 생각이 육신을 의존한다면 그 결과는 사망일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영을 의존한다면 생명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7장에서 보여 준 독립된 생각과 8장에 나오는 의존적인 생각의 차이점을 보았는가? 독립된 생각은 실패할 것이지만 영을 의존하는 생각은 승리할 것이다. 우리 안에는 두 편, 즉 지체 안에 있는 사탄과 영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이 계시므로 우리는 사실상 더 이상 독립적일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독립적이라면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다. 우리가 적을 패배시키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적에게 패배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적이지 말고 우리 영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 승리의 열쇠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데 있다.

우리는 모두 이 분명한 그림을 깊이 새겨야 한다. 사탄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시며 자아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 원수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 대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또 나는 주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을 행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유혹이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해 선한 일을 행하려고 결심할 때 우리는 유혹을 받는 것이며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다.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삼일 반이 되면 계속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없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해 어떤 일을 하려고 애쓰는 대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대적에게, “아니다. 사탄아,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런 길로 가지도 않겠다. 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뿐이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데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와 생명과 평안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간단한 것이다.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분배해 주셨다. 그러므로 어떤 일도 독립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로마서 7장과 8장을 마치기 전, 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우리는 죄가 육체 안에 있고, 죄에게는 죄의 악한 법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모두 법이 무엇인지를 안다. 만일 책 한 권을 집어 들어 공중으로 던지면 그것은 분명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중력의 법칙이다. 그러나 내 손으로 그 책을 두세 시간 동안 들고 서서 이 법에 대항하는 일을 해보자. 잠시 동안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런가? 나의 노력이 중력의 법칙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개인의 노력이 자연 법칙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아침에 자신에게 “이제부터는 참아야지. 성질을 내지 말아야지. 며칠 동안 참아야지.”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틀까지는 참을 수 있을지 모르나, 셋째 날에는 ‘크게’ 성질을 내고야 말 것이다. 성질을 내는 것은 죄의 법이요, 성질을 안 내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다. 교만 역시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법이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교만을 가르치는 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지만 어린아이까지도 자랑할 줄 안다. 부모님들이 교만하기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은 교만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본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죄악된 ‘본성’은 법,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다.

책을 들고 있는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만일 내가 앞에 있는 탁자를 보고서도 여전히 책을 들고 있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 탁자는 또 다른 법, 즉 중력의 법칙에 대항하는 견고하게 지탱하는 법칙을 나타낸다. 나는 그 책을 탁자 위에 놓고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다. 나는 그 책을 탁자에 놓고 평안히 있을 수 있다. 그 책은 탁자에 있으면 안전하다. 왜냐하면 견고하게 지탱하는 법칙이 중력의 법칙을 이기기 때문이다. 그 탁자의 실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어디에 계신가?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책을 탁자 위에 놓아두듯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수 있다. 모든 노력을 잊어버리자. 결코 선한 일을 하려고 결심하지 말라. “전에는 남편(아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매우 사나웠었지만 이제부터는 친절하리라.”고 결심하지 말라. 하루나 이틀은 친절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더 지속될 수 없다. 어떤 결심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것은 되지 않는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 즉 ‘탁자’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두며, 우리 자신을 반석 위에 놓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요 해방의 길이다.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할 때 다만 그분께 “주여, 저에게는 희망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것도 하려고 결심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을 당신께 드립니다. 제 생각을 당신께 둡니다.”라고만 말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확산하실 근거와 기회를 갖게 되시며,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흠뻑 적셔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가!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 몸의 생활을 실현함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12장으로 계속 나아간다. 9장과 10장과 11장은 삽입된 장들이므로 12장은 8장의 연속이다. 7장에서는 생각이 독립적이었지만 8장에서는 생각이 영을 의존하고 있다. 7장에 있는 생각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싸우는 독립적인 자아를 대표하는데, 그 결과는 언제나 실패뿐이다. 8장에 있는 생각은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자아를 대표한다. 이것은 주님께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흠뻑 적시실 기회를 드림으로 우리를 그분의 몸의 ‘살아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한다. 이제 우리는 12장에 왔다. 로마서 12장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몸과 혼의 주요 부분인 생각과 영, 세 가지 것을 다룬다.

(1)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림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소유

하시면 우리의 몸은 대적의 강탈하는 손에서 해방된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때는 사탄이 우리의 몸을 소유하여 우리의 뜻에 위배되는 다른 일들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강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은 대적의 강탈하는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롬 12:1).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이전에는 죄의 몸이었고 사망 아래 있었던 저의 몸을 살아 있게 하고 해방시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몸을 당신의 몸을 위해 당신께 드립니다. 제가 제 몸을 붙잡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실현하려면 우리의 몸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최근에 나는 해안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몸의 생활에 대하여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어떤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몸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몸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붙잡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몸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의 해방된 몸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 몸은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산 제물로 바쳐야 한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집회에 ‘마음’을 가지고 오는가, ‘몸’을 가지고 오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 저는 교회 생활을 위해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몸은 교회 생활을 위하지 않는다. 그들의 몸은 집에 남아 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한 마음뿐 아니라, 교회 생활을 위한 몸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교회를 위하고 우리의 몸은 개인 생활을 위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해 “모든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매우 근사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것은 다만 ‘허공’에 있고 마음속에만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실현하려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 “주님, 이전에 제 몸은 대적

의 강탈하는 손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 몸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제 몸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 몸은 더 이상 제 몸이 아니라 당신께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됨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린 후 교회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단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롬 12:2). 이전에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 홀로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이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 생각은 새로워지며, 빛 비춤 받고,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자. 참으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한 형제가 자기 몸을 주님과 교회에 산 제물로 기꺼이 드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드린 후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다. 그가 교회 생활에 무관심했을 때는 교회가 평안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몸이 교회에 드러질 때 그의 생각도 교회에 함께 오지만, 그의 생각은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다. 그에게 있던 기독교의 낡은 것들이 없어지거나 제거되지 않았다. 그가 그의 몸을 드러지 않았을 때는 교회에 대해 냉담했다. 그는 “나는 시간이 있으면 집회에 오지만 시간이 없으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므로 자신을 주님과 교회에 드렸다. 자신을 완전히 교회에 내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몸이 올 때, 많은 의견과 가르침과 생각과 이유들로 가득한 골치 아픈 생각도 함께 와서 교회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몸’이 드러진 후에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가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며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재교육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옛 생각과 타고난 생각과 전통적인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관념들을 떨쳐버려야 한다. 이것이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이다. 그럴 때만이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몇몇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많은 문제들도 함께 가져왔다.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가 아주 평화롭고 하나였지만, 그들이 들어온 이후로 그들의 생각은 교회에 시끄러운 일들을 야기했다. 그들은 '마음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각은 끔찍하다. 그들의 생각이 변화를 받으려면 많은 낡은 것들이 그들에게서 벗어져야 한다.

(3)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영이 불타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몸이 드러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혼을 대표하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영이 뜨겁게 불타올라야 한다. 자신의 몸을 주님과 교회에 드리고 낡은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 생각이 온전히 새로워졌을지라도 영은 냉랭할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짐이 된다. 그는 집회에 올 때마다 무덤처럼 싸늘하게 앉아 있다. 그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고 언제나 조용하지만 교회는 그를 짐처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로 집회나 봉사 집회에 참석해도 그는 그냥 앉아 있기만 한다. 그의 태도는 "저는 완전히 당신과 함께 있으며 교회를 위하여 있습니다. 저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형제님들이 뭐라고 하시든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것이다. 책임 형제들이 함께 모일 때 모두 이렇게 한다고 가정해 보라. 누가 교회의 짐을 짊어질 것인가? 그런 형제들은 그들의 몫의 교회 봉사를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게 짐이 된다. 한 면에서 우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하면, 다른 형제들과 불화나 대립이 없어야 하지만 불타는 마음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불타고 또 불타올라야 한다. 영 안에서 불타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개인적이고 사적(私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체의 생활, 즉 몸의 생활이다. 한 사람만으로는 몸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은 하나의 지체이다. 교회 생활을 실현하려면 여러분에게는 지체들인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기 혼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던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배우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살아 있는 지체가 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로 준비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영을

불타게 함으로써 교회 생활을 실현해야 한다. 몸이 드러지고, 혼이 변화되며, 영이 불탈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까다롭고 냉랭하고 죽은 지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살아 있는 지체가 될 것이다. 기능이 마비된 지체가 아니라 역동적이며 적극적으로 기능을 다하는 지체가 될 것이다. 자연히 우리는 교회 생활의 실재를 갖게 될 것이다.

제 21 장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

영과 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항목들이 더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많이 강조했다. 성막은 바깥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다. 이 세 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자.

바깥마당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번제단과 성령께서 쉬으시는 일을 예표하는 물두멍이 있다.

성소에는 진설대와 등대와 분향단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을 예표한다. 진설대는 우리의 매일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 촛대, 즉 등대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 공급은 우리 안에서 빛나는 빛이 된다. 다음으로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예표한다.

지성소는 한 가지, 즉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는 법궤가 있는 곳이다. 법궤 안에는 내적인 생명과 내적인 생명 공급인 감추어진 만나와 우리 안에서 내적인 빛이 되는 감추어진 법과 우리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권위가 되는 싹 난 지팡이, 세 가지가 있다. 감추어진 만나와 감추어진 법과 감추어진 권위는 모두 부활 안에 있으며, 이것과 상응하는 성소의 항목들보다 훨씬 더 깊다.

성막의 내용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의 내용물이다. 바깥마당과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여덟 가지 모든 항목에 대한 체험들이 하나님의 참된 건축물인 교회의 실제 내용이다.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와 성령의 정결케 하심으로 성취하신 것들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빛과 부활의 향기로 충분히 체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감추어진 만나와 감추어진 법과 감추어진 권위로 참되게 체험해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체험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실제 내용을 구성하며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공급한다.

이 몇 년 동안 사람들은 신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어떤 일정한 형태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체험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만일 “저 사람의 모양대로 한 사람을 만들어 보자.”라고 말한다 하자. 그래서 우리는 초로 팔을, 대리석으로 머리를, 나무로 몸을, 진흙으로 다리를 만든다. 이 모든 부분들이 정확한 크기와 모양으로 결합되고 거기에 정확한 색깔을 칠한다면 그 사람의 참된 ‘모양’은 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실재는 갖지 못한다. 실제 사람은 어떤 틀에 따라 ‘제조’될 수 없고, 출생과 생명의 성장에 의해 ‘태어나고 성숙한다’. 이 사람은 먼저 살아 있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그 후에 매일 영양분을 받음으로 자란다. 결국 그는 어떤 모양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사람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사람은 없는 것이다.

언젠가 우리가 피츠버그에 있었을 때 나는 한 친구에게 “모양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오직 생명만 주의하세요.”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어린 아들이 있다 하자. 여러분은 그 아이의 모양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특별한 방법을 써서 날마다 그의 모양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다. 먼저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다음,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젖과 이유식으로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럴 때 그 아이는 계속 자라서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갖게 된다. 그 형태는 그의 출생과 생명의 성장에서 온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만들 수 없듯이 신약의 교회도 만들 수 없다. 우리가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만 생명 없는 어떤 형태만 소유하게 될 것이다. 교회를 어떤 형태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에 속한 교회는 만들어 낼 수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변론하며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역설해 왔다. 사람들이 만든 것은 어떤 것이든지 모두 실제 교회가 아니다. 지난 육천 년 동안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도 만들 어지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의 성장을 거쳤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떤 사람도 교회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많은 것 을 만들 수 있지만 살아 있는 지체들로 구성된 살아 있는 몸을 만들 수 는 없다. 신약에는 결코 교회를 만들라는 명령이나 가르침이 없다. 그 러나 신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 게 공급하며, 영적인 출생으로 많은 자녀들을 낳을 것을 권고한다. 그 리스도의 몸인 참된 교회는 오직 생명의 출생과 성장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은 그 내용물을 체험함으로 산출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바깥마당의 분별

이제 이런 원칙에 근거하여 성막의 주요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로 바깥마당의 ‘분별’ 이 있다(출 27:9-19, 38:9-20). 우리는 그것 이 소유지를 둘러싸는 담장과 같기 때문에 ‘분별’ 이라는 표현을 썼다. 바깥마당의 분별은 세 가지 중요한 것들, 즉 1) 늦 받침, 2) 기둥, 3) 세 마포장으로 이루어진다. 분리하는 담의 기초는 늦 받침들로 이루어진 다. 북편에 20개, 남편에 20개가 있고, 뒤편인 서쪽에 10개, 앞편에 10 개의 늦 받침이 있다(출 27장). 모두 합하여 60개의 늦 받침이 있다. 이 각각의 받침들 위에는 기둥이 한 개씩 세워지는데 그 모든 기둥은 같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기둥 위의 세마포 장은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들 어졌다. 그러므로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은 늦 받침과 기둥과 가는 베실 로 짠 세마포장이다.

분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늦은 바깥마당에서 볼 수 있는 늦 제단과 늦 물두명의 재료와 같은 것이다. 그 영적 의미는 늦 받침이 번제단과 물두명의 체험에서 온다는 것이다. 번제단과 물두명은 모두 늦으로 만 들어졌다. 그러므로 분별의 모든 받침들도 늦으로 만들어져 있다. 바 깥마당 안에는 늦 번제단과 늦 물두명과 늦 받침들이 있다. 사람들이 바깥마당에 들어설 때 받는 첫 인상은 분별의 기초가 번제단과 물두명

의 재료와 동일한 놋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체험과 성령의 씻음심이 주님의 건축물을 분별시키는 기초가 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놋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심판을 받기 위해 번제단 위에 두어져야 한다. 번제단, 달리 말하면 십자가는 심판하기 위한 첫째 장소였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셨다. 민수기 16장에 따르면, 이 번제단을 둘러싼 놋은 250명의 반역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놋 향로로 만든 것이다.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하여 반역했던 사람들이 불로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의 모든 놋 향로를 모아 번제단을 둘러싸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민 16:38). 교회를 건축하려면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어퍼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분별시키는 반침의 기초이다.

이제 우리는 분별의 원칙에 관해서는 분명해졌지만 아직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라 하자. 나는 복음 전파를 통해 내가 죄인이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임을 인정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가 용서 받았음을 인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라고 나는 기도했다. 물론 나는 나의 좋은 친구인 어떤 목사에게 가서 침례를 받았다. 침례 받은 후 나는 그의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하셨다. 주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과 건축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 나는 나의 지방에서 한 무리의 믿는 이들이 몸의 생활과 교회의 건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과 함께 몸의 생활 안에서 건축되기를 기꺼이 원하게 되었다. 마침내 성령은 나에게 “너는 와서 건축되겠느냐? 너는 교회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겠느냐? 그렇다면 먼저 십자가로 가야 한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너의 온 존재, 너의 모든 소유는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럴 때 나는 “주여, 내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당신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의 건축을 위해 유익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심판 받아야 합니다.”라고 자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했다. 만일 내가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건축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교만한 상태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나는 조직될 수는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건축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건축물의 분별의 밑받침에서 보는 대로, 기초는 늦제단을 체험하는 것에서 온다.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견고한 기초는 십자가의 체험에서 온다. 다른 길은 없다. 모든 것이 번제단 위에 두어져 태워지고 심판받아야 한다. 교회 입구에는 십자가가 있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면 자신을 십자가의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십자가 위에 놓일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우며,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간증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성령의 씻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느 날 내 속에는 물두멍에 뛰어들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주님, 저를 씻어 주소서! 저에게는 죄가 많습니다. 저는 세상적입니다. 저의 각 부분이 더럽습니다. 저에게는 성령의 씻으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러한 부담에 따라 기도함으로 십자가와 물두멍을 체험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음에 넣고, 물두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의 씻으심 아래 놓는다. 이것은 우리를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든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정결케 하심으로 겸손히 교회에 오게 될 것이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체험하고 모든 교만과 자기 의에서 정결케 된 후에 우리는 기둥을 세우는 기초인 늦 받침을 갖게 된다.

성경은 기둥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둥을 연결하는 갈고리와 끈 그리고 기둥을 감싸는 기둥머리를 모두 은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은은 구속을 예표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우리가 모두 함께 연결되어 하나가 되고, 주님의 구속으로 덮인 것을 의미한다.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분별되도록 주님의 구속이 우리들을 연합되게 하였고 이 구속이 우리들을 덮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기둥 위에는 교회가 그 행사와 행위에서 지극히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가는 베로 짠 세마포장이 있다. 이것은 분별하는 선(線)이다. 분별하는 선으로 둘러싸인 성막이 세워질 때 사람들은 멀리서도 성막을 모든 것에서 구별해 주는 흰 세마포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추는 교회의 간증이다. 온 세상은 검지만, 여기에 교회가 정결하고 순수하며 희다는 것을 간증하는 어떤 것이 세워졌다. 이러한 간증은 번제단의 심판과 물두명의 씻음에서부터 오며, 그 결과로 세상 앞에서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행동을 가져온다. 이것이 늦 받침 위에 세워진 기둥에 펼쳐놓은 가늘게 꼰 베실로 짠 세마포장이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분별된 것을 간증하는 분별의 선이다. 이 선 밖에는 모든 것이 검지만 이 선 안에는 모든 것이 희다.

성막의 널판들

앞에서 언급된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다만 바깥마당의 체험일 뿐이다. 바깥마당에는 늦과 은과 흰 세마포와 같은 매우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을 예표하는 금은 없다. 이것은, 우리가 바깥마당에 있을 때에는 신성한 본성에 속한 것이 전혀 우리 안으로 분배해 들어와 우리를 통해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깥마당에는 다만 심판과 부정적인 것을 씻는 것만 있을 뿐이다. 한때 교만했던 한 형제가 우리에게 온 후로 아주 겸손하게 되었고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이나 교만이 없어졌다고 하자.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처신과 정결케 하는 일일 뿐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혀 그 안에 분배되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혀 표현될 수 없다. 거기에는 금이 나타나지 않았다. 바깥 마당에 있는 것도 좋지만, 그곳은 다만 바깥마당일 뿐 건축물이 아니다. 이것은 아직도 밖에 드러나 있을 뿐, 안식처도, 덮개도, 건축물도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성과 연합할 신성한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깥마당에서 성소로, 또 지성소로 나아가야 한다.

주님의 공훈과 은혜로 우리가 성소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면 거의 모든 곳에서 금 진설대, 금등대, 금향단, 금궐, 금널판 등과 같은 금

을 볼 수 있다. 사방이 금이요, 내용도 금이요, 모든 도구도 다 금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을 찬양하자. 나무 널판(출 26:15)은 인성, 즉 사람의 본성을 의미하고, 널판을 싸고 있는 금은 신성, 즉 신성한 본성을 뜻한다. 이제 신성과 인성이 하나되었다! 한 면에서 그것은 나무요, 다른 한 면에서는 금이다. 여기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틀림없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두 곳을 각각 성소와 지성소라고 부르는 것이다. 바깥마당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지만 거룩하지는 않다. 바깥마당에서 우리의 행동과 행위는 옳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물두멍에서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의(義)가 있다. 그러나 사람 안으로 분배해 들어온 신성한 본성인 거룩함은 없다.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금으로 덮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것과 모든 부분이 나무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금으로 덮여 있다. 거기에 인성이 있지만, 그 인성은 신성한 본성과 연합되었다.

만일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온 신성한 것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는 널판들이 될 수 없다. 교회는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으로 건축된다. '하나님 자신과 우리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재료가 된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되었더라도 다만 흰 세마포가 될 수 있을 뿐 성막을 건축하는 널판은 될 수 없다. 그러나 금으로 입혀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안에 들어가고, 영을 훈련하고, 영을 따라 행하며, 언제나 영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야 한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다.

금으로 입힌 성소와 지성소의 널판들은 은 받침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기초요 터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널판을 싸고 있는 그 금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그것은 금으로 된 진설대와 등대와 분향단과 법궤를 체험한 데서 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빛과 부활의 향기로 체험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자신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으로 더 많이 분배되어 들어오게 된다. 널판들에 입힌 금은 성소와 지성소의 내용물을 체험하는 데서 온다. 우리의 인성과 연합된 신성은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빛과 부활의 향기로 체험한 것에서부터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를 구성한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나와 빛과 부활의 향기로 누려야 하며 신성한 연합을 갖기 위해 가장 깊은 방식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체험해야 한다.

건축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각 널판의 넓이는 1규빗 반이다(출 26:16). 우리는 꼭 1규빗 반이요, 더 이상은 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한다. 성막에는 48개의 널판이 있는데 그것들은 두 개씩 짝을 지어 결합되어 있고, 각 짝의 넓이는 3규빗이다. 각 널판은 완전한 넓이의 반인 1규빗 반이기 때문에 다른 널판과 짝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다만 반쪽임을 깨달아야 한다.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언제나 둘씩 보내셨다. 베드로에게는 요한이 필요했고 요한에게는 베드로가 필요했다. 우리는 다만 반쪽일 뿐이다. 우리가 완전케 되려면 또 하나의 반쪽이 필요하다. 우리는 독립하여 개인적으로 행동하거나 일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의 모든 봉사과 기능은 단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두 개의 널판을 합쳐져야 한다. 우리는 다른 반쪽이 필요하다. 당신의 다른 반쪽은 누구인가?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이 3규빗이 아니라 다만 1규빗 반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혼자서 갈 수 없고, 개인적으로 봉사할 수 없으며,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거나 일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조화된 지체가 되어야 한다.

더욱이 각 널판에는 받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두 개의 축이 있다(출 26:19). 왜 한 널판에 축이 한 개씩 있지 않고 두 개씩 있는가? 축이 하나라면 널판이 움직일 수 있지만 두 개의 축은 널판을 확고하게 잡아 준다. 둘은 '확고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람의 두 다리라 같다. 사람이 한 다리로 선다면 쉽게 돌거나 쓰러진다. 그러나 두 다리로서면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도는 것이 어색하다. 우리는 그토록 많이 '방향전환'을 하는 형제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침에 이쪽으로 행했다가 오후에는 저쪽으로 돌아가고, 또 다음날 아침에는 또 다른 길로 돌아서며 항상 돌고 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결코 그를 붙잡을 수 없다. 그는 항상 한 개의 축으로 빙빙 돌고 있다. 이렇게 굳게 서지 못한 형제자매들에게는 건축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은 견고하게

되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죽기까지 서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기꺼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자 할 때 교회 건축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우리를 확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모든 널판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결합시키는 금띠와 금고리가 있다. 금고리는 성령을 의미한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성령을 고리로 받아들였다(눅 15:22, 창 24:47). 고리들은 띠로 꿰어져 있다. 띠 또한 성령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금띠 속에는 조각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본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 그분은 이제 예수의 영이시다.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를 결합하고 연합시키신다. 이 띠로 말미암아 모든 널판들이 하나가 된다. 널판과 고리와 띠에서 금을 다 제거한다고 가정해 보라. 금이 다 벗어져 나가면 모든 널판들은 연결되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널판들은 나무로 하나되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하나된다. 금이 없어진다면 연합시키는 요소가 없고 널판들은 분리된 나무 조각들이 될 것이다. 이 그림을 볼 때 연합과 하나됨과 건축은 나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금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은 교회의 건축이 인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신성 안에서 함께 건축된다. 우리를 연결시키고 연합시키며 하나로 함께 붙들어주는 것은 바로 신성한 본성이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다만 반쪽임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확증 없이 독립적이고 개인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성 안에서 행동하고 살며 봉사해야 한다. 이 신성한 본성 안에서 널판들인 우리는 하나로 함께 연합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다시 반복하거니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진설병과 등대와 부활의 향기와 감추어진 만나와 감추어진 율법과 감추어진 지팡이를 포함하고 있는 법궤로 체험할 때 이루어진다. 이것은 얼마나 의미 깊은 것인가! 주님께서 이 그림으로 우리를 완전하고 깊고 철저히 감동시키시길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는 올바른 길이다. 교회는 모양의 문제가 아니

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참되게 체험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 가운데서 건축되는 유일한 길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제 22 장

하나님의 건축물의 덮개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열 폭을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 놓아 만들지니”(출 26:1).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양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7절).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지니라”(14절).

위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성막의 덮개가 네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층은 가는 베실로 된 열 폭의 양장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둘째 층은 염소털로 되어 있고, 셋째 층은 숫양의 가죽으로, 넷째 층은 해달의 가죽으로 된 옷덮개이다. 이 네 층의 덮개가 성막의 지붕을 이룬다. 성막과 그 덮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저술하였지만, 나의 부담은 이 덮개들이 주님의 건축물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건축된 교회

앞 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건축물은 모형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오시는 문제임을 보았다. 교회의 건축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어떤 모형을 모방하거나 조직을 구성함으로 될 수 없다. 사람의 신장과 모양이 출생과 생명의 성장 과정을 통해 자라고 이루어지듯이, 모든 모형은 출생과 생명의 자람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누구도 어떤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하거나 만들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건축은 사람이 만든 형태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자연스러운 성장이다.

성막의 각 부분과 각 방면은 그리스도의 '인격' 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을 예표한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분배되어 들어오셔야 함을 보여 준다. 바깥마당에 있는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예표한다.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한다. 그럴 때, 물두멍이 예표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의 씻으시고 제하시신 일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해 넣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신다.

이 두 항목 다음에 우리는 건축물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즉시 그 건축물의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성소와 지성소의 거의 모든 곳에는 금으로 입힌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인성이 신성으로 싸이고 신성이 인성 안으로 또 인성 위에 분배되었음을 의미한다. 진설대와 등대와 분향단과 법궤와 성막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널판들과 심지어 성막 덮개의 네 층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오셨다는 이 한 가지를 계시하고 강조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 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단지 사도행전에서 어떤 모형을 찾아내고 장로와 집사를 세운 후에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교회를 모방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태어났고 그렇게 키가 크게 되었는지를 물어 본다면, 그는 "저는 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영양분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만큼까지 성장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장난감이나 인형은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교회는 참 사람이다. 아무도 교회를

만들 수 없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한 결과이어야 한다. 형제들이여, 손을 떼라! 우리는 어떤 것을 만들거나 조직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나는 지난 수 년 동안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전해 왔지만 내가 전한 것을 깨닫는 형제들은 많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교회도 만들지 않고, 아무것도 조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다만 한 가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만 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삼켜져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먹을수록, 우리는 그분께 더 많이 삼켜진다. 우리는 우리가 다만 그리스도를 먹고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먹을수록 그리스도께 더 많이 삼켜진다. 교회는 만들어지거나 조직될 수 없다. 교회는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몸이어야 한다. 그럴 때 결국에는 어떤 모양과 형태가 자동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성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

바깥마당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체험하며, 우리가 체험한 이 일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체험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생명 공급을 위한 양식과 생명의 빛과 부활의 향기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으로 체험한다. 일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오시면 우리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유용한 재료들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금고리와 금띠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성령을 통해 하나로 연합되어 건축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이다. 다시 반복하거나와 교회의 건축은 성장의 문제이며, 그리스도께서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분배되어 들어오시는 것이다. 이것만이 교회 건축을 위한 재료를 산출한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과할 때 이 모든 재료들은 서로 알맞게 맞추어지고 연결되어 온전한 전체를 이룰 것이다. 하나 안에 있는 이 건축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거처이다.

그리스도로 덮여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교회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르러서도 성막에는 그것을 덮은 지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연합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얼마나 분배되어 들어오셨든지 우리는 널판들일 뿐이다. 우리 중 누구도 덮개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만일 덮개라면 교회는 사람의 표현이 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덮개가 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의 표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막의 예표에서 본 대로 지붕은 네 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 층이 모두 그리스도의 한 방면을 나타낸다. 지붕 전체는 유일한 덮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다. 성막은 이 덮개로 그리스도의 표현이 된다. 왜냐하면 그 덮개가 성막을 온전히 덮고 있기 때문이다. 덮개가 성막 위에 놓이면 밖에서 볼 때는 덮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널판들과 기구들은 덮개 안에 있다. 이 덮개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널판들과 기구들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성막 전체의 '표현'이었다. 사실상 이 표현이 모든 널판들과 기구들을 보호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현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현이 되셔야 한다.

어떤 곳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덮여 있지 않고 어떤 교리로 덮여 있는 것 같다. 어떤 은사의 표현이 덮개가 된 곳도 있다. 그것은 은사가 지붕이 된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덮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이나 은사의 덮개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사와 가르침은 결코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 어떤 은사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교리도 믿는 이들을 덮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스도만이 높여져야 하고, 그리스도만이 찬송을 받으셔야 하며,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덮는 지붕으로서 표현되셔야 한다.

성막의 척량(尺量)을 볼 때, 우리는 덮개가 지붕뿐만 아니라 양 옆 부분까지도 덮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밖에서는 덮개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받침도, 널판도 안의 내용물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교회의 덮개이신 그리스도만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사람의 연합만을 보게 된다. 밖에도 그리스도뿐이고, 안에도 인성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오셔서 인성과 연합되신 그리스도뿐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밖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게 되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참된 교회이다. 밖에서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 속에 분배되어 들어오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이것은 놀라운 그림이다. 나에게 로마서와 같은 서신이 열 개 이상 있고, 고린도서와 같은 서신이 열두 개 이상 있고, 에베소서와 같은 서신이 육십 개 이상 있더라도, 이 그림이 없다면 나는 이렇게 분명할 수 없다. 나는 아직도 그림이 필요한 단순한 어린아이이다.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그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양이’라는 글자는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지 못한다. 그럴 때는 고양이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어린이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 성막의 그림을 봄으로써 우리는 실제적인 교회 건축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형태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요, 인간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많은 사람들 속에 분배되어 들어오신 ‘그리스도’ 일 뿐이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 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들 자신을 덮고 보호하도록 그리스도를 그들의 표현으로 입고 있다.

이제 덮개의 네 층을 보자. 덮개를 안에서 볼 때 가장 섬세한 재료로 만들어진 첫째 층이 있다. 이 첫째 층은 가는 베실을 꼬아 만든 양장으로 되어 있고, 이 양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 청색은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하며, 자색은 왕권을 의미하고, 홍색은 구속을 상징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재료는 가는 베실인데, 그것은 섬세한 성격과 행동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 사복음서는 가는 베실과 같은 인성과 행동을 지닌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다. 그것은 아주 섬세하지만 매우 튼튼하다. 그것은 꼬아서 만든 베실이므로 두 배로 강하다. 주 예수님은 매우 섬세한 분이시지만 아주 강하시다. 그분 안에는 거칠거나 약한 것이 없다.

그룹을 수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창조물 안에서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하며 고운 베 위에

그룹을 수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성과 그분의 창조물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갔음을 뜻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섬세한 인성과 성격을 지닌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이 그분의 창조물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간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섬세한 인성과 행동을 가진 참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간 하나님의 영광의 체현이다. 사람이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바꿔 말하면 그분 위에는 수놓아진 그룹이 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다. 그분의 인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이 무궁무진하지만, 우리는 다음 단계로 계속 전진해야 한다.

둘째 층은 염소 털로 되어 있다. 성경의 예표에 따르면 염소는 죄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염소와 양을 나누는 것에 대해 말하며 염소는 죄 있는 사람들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셨다. 그러므로 염소 털로 만들어진 양장 층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비록 그분은 고운 베이시지만, 염소 털이 되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염소 털로 된 층 다음에는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된 층이 있다. 붉은 색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일 가운데 흘리신 피를 의미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죄가 되셨다. 이 간단한 문장은 처음 세 층을 설명해 준다. 첫째 층은 죄 없는 그분을 예표하고, 둘째 층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셋째 층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한다.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 다음에는 바깥 덮개인 넷째 층이 있다. 이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매우 튼튼하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날씨도, 어떤 종류의 공격도 견딜 수 있다. 밖의 덮개는 외관상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고 다소 거칠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외적인 모습을 볼 때 그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분은 마치 튼튼한 해달의 가죽 같아서 외관상으로는 별로 호감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밖으로는 그다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속 부분은 아름답

답고 놀랍고 하늘에 속해 있다. 그분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가진 오늘날의 기독교와 다르시다. 기독교는 겉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내적인 영적 상태는 추하고 텅 비었고 심지어 부패되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조직들은 정말로 추하다. 하나님의 건축물인 합당한 교회 안에는 하늘에 속하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초라하고 거칠며 아름다움이 없다.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자신을 감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신문에 우리 자신의 사진을 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하여 세상적이 된 기독교에서나 할 일이다. 오, 형제들이여,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신문에 실으려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주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광고하지 않으셨다.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항상 자신을 숨기고 감추고자 하셨음을 볼 수 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만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자량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집회소 건물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 하고 싶다. 형제들이여,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집회소는 외관이 아주 검소하고 간단해야 한다.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집회소를 짓지 말라. 아름다운 외적인 건물들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다. 내가 로마에 갔었을 때 베드로 대성당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그 건물이 몇 백만 달러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곳으로 인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내가 거기 있었을 때 베드로 대성당은 초만원이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겠는가? 그런 수단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종류의 건물은 치워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일은 주님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는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지극히 단순하고 수수한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것이다.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간증과 표현이 되셔야 하며 교회의 덮개가 되셔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견해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 주고 있는 그림이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표현으로 내세워서 안 된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건축

물의 덮개이신 우리의 놀라운 그리스도, 내적으로 신성한 아름다움이 충만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외적으로 지극히 단순하고 볼품없는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 어떤 공격도 견딜 수 있고 어떠한 유혹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교회뿐이다. 소위 기독교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적의 공격이 올 때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다. 어떤 외적인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자신들 안에 하늘에 속하고 신성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만이 끝까지 견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내용과 덮개가 되신다. 그러한 그리스도로 덮이고 건축된 교회를 아무것도 파괴하거나 이길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영 안에서 주님을 추구하기를 배우자. 우리의 영을 분별하며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기를 배우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을 갖게 되고 유용한 재료가 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축되어, 그리스도로 덮여서 그분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건축물이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광을 위하여 어떤 공격도 참아낼 수 있고,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으며,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합당하고 강한 교회가 있게 될 것이다.

제 23 장

교회—육신을 입고 나타내신 하나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딤후 3:15-16).

15절에 언급된 교회의 세 방면은 “하나님의 집”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계속해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서 나타내신 경건의 큰 비밀에 대하여 말한다. 이 두 구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몇몇 사람들은 15절 마지막에 문장의 종결을 의미하는 마침표(개역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마침표가 있음—역자 주)보다 세미콜론(‘;’, 마침표보다는 약하며 쉼표보다는 강한 의미임—역자 주)을 쓰는 것이 더 낫다는 올바른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므로 15절의 하나님의 교회와 16절의 경건의 비밀은 서로 연관이 있다.

교회—하나님의 집

왜 교회가 육신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과 함께 언급되는가? 그것은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거하고 살며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의미이

다. 이것은 마음대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यो, 그분이 사시는 곳이며,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런 곳이다.

이 집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여기에서 다만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것을 주의하라.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지금 교회 안에 거하시고,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사시며, 교회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신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집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이 집 안에서 사시고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교회—진리의 기둥과 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사시며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도 하다.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가 교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구절에서 ‘진리’라는 말은 실재를 의미한다. 우주 가운데 어느 것도 실재가 아니다. 그 어느 것도 진리가 아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림자일 뿐이다. 보이는 모든 것, 만질 수 있는 모든 것,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실재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다.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모두 그림자요, 실재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실재이신 ‘그리스도’이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도 참 음식이 아니라 참 음식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된 음식은 그리스도이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음식의 실재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한 사람의 생명을 실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도 한낱 그림자일 뿐이다.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요일 5:12).

만일 어떤 형제가 당신에게 그의 사진을 보낸다면 당신은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아무개 형제야.”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실지로 그것은 아무개 형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사진일 뿐이다. 사실상 모든

사진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사진에서는 실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 우주는 하나의 사진에 불과하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표와 상징과 그림자들은 장차 오실 실재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사진일 뿐이다. 그리스도는 진리요, 온 우주의 실재요, 구약과 신약의 실재이시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실재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시요, 그분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다(요 14:17, 15:26, 16:13, 요일 5:7). 그분 자신이 실재시요 그분의 영은 실재의 영이시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사시고 움직이시는 교회는 실재가 서 있는 기둥과 터이다. 교회는 실재를 가지고 있다. 이 교회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이 교회 위에 진리, 즉 실재가 서 있다. 우리는 교리를 위하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재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친구들이여, 와서 보라. 교회에 와서 우주의 실재를 보라. 생명의 실재를 보라. 사랑의 실재를 보라. 인내의 실재와 다른 많은 것들의 실재를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1933년의 어느 날 오후 내가 워치만 니 형제님을 방문했을 때 그는 갑자기 나에게 “형제님, 인내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그전에 나는 그것을 어린애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러나 그 질문이 그의 입에서 나왔으므로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나는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마침내 나는 “인내란 다른 사람들의 나쁜 대우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형제님, 인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다시 물었다. 그는 계속 흔들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음, 인내가 무엇인가? 인내가 무엇인가?”라고 계속 말하였다.

한참이 지난 후 갑자기 그는 “인내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아주 짧고도 간단했다. “인내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런 종류의 ‘낮선 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형제님, 저는 그러한 말을 처음 듣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또 물었다. 그는 반복해서 “인내는 그리스도입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려

고 하지 않았다. 오후 내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더 혼동되었다.

서너 시간 후 나는 아주 실망한 채 그곳을 떠났다. 내 방으로 돌아와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인내는 그리스도’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인내이심을 보여 주셨다. 인내는 곧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사시는 그리스도이다. 아, 그것은 참된 계시였다. 나는 정말로 기뻐다.

사람의 인내, 즉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인내는 참된 인내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의 인내는 껍데기요 그림자일 뿐이다. 참된 인내는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즉 인내와 겸손과 친절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까지도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십계명까지도 다 그림자일 뿐이요, 그리스도만이 실재이다. 만일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살며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십계명의 모든 요구의 실재와 성취를 갖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는 진리, 즉 실재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인 우주적인 실재의 기둥과 터이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와서 실재의 인내와 실재의 겸손을 보라. 우리에게 와서 신실함과 정직함의 실재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시고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며, 간증과 실재는 ‘교회 위에’ 서 있다. 우리는 이 두 방면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고, 외적으로 교회는 간증과 실재를 지닌다. 이 두 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연합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교회, 즉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한 무리의 사람들 안에 거하시고, 또한 이 한 무리의 사람들 위에 우주의 실재가 있다. 우주의 모든 실재는 이 한 무리의 사람들 안에 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회에 와서 보아야 한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도 역시 교회에 와서 보아야 한다. 교회야말로 겸손과 친절의 실재를 알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실재를 볼

수 있다. 교회의 간증은 교리를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지 않고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내적인 실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면 그리스도는 더욱더 사라진다. 우리는 다만 외칠 때와 말할 때와 가르칠 때에만 그리스도를 갖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적인 생명'으로 소유하지 못했고, 매일 우리의 '바깥 생활'과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다. 교회는 만유의 유일한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지닌 기둥과 터이어야 한다.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교회에 왔을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육신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터'의 올바른 의미이다. 이 교회는 '육신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연장과 증거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두 절을 함께 놓은 이유이다. 육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과 많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증거'이자 '확장'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또다시 육신 안에서 나타내시지만, 이번에는 더 폭넓게 나타내신다. 신약의 원칙은 성육신의 원칙이다. 성육신의 원칙이란 하나님 자신이 육신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외적으로가 아닌 내적으로 연합되시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지 교리나 은사의 나타남이 아니다. 교회는 그 영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교리나 은사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외적인 교정으로 건축되지 않음

우리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새로운 운동을 '형성'하려고 하거나 또는 교회를 위한 새로운 모형을 '형성'하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킨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할까 두렵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염려한다.

우리는 모두 이런 종류의 생각과 이해를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한다. 교회는 백 퍼센트 우리의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운동을 형성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수백 번 말하고 싶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교회는 어떤 유형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거듭거듭 강조해야 한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매일의 행함을 볼 때, 내적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깨닫거나 어떤 방법을 배우면 그들이 사는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애쓴다. 이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밖의 옷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바뀌는 것이다. 타고난 생명이 바뀌어야 한다. 외적인 방법을 바꿀 뿐 아니라 내적인 생명을 바꿔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전에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성직자였다 하자. 아마 그때 그는 검은색의 목사 가운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빛을 받게 되었다. 그는 목사와 성직자라는 그 직함들이 틀렸고 검은색의 목사 가운도 그릇되었다는 빛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치워 버렸다. 그는 성직자라는 명칭을 버리고 평범한 옷을 입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그는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방식으로, 직함이나 특별한 옷 없이 주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이 옳은지 틀렸는지를 말하고 싶지 않지만 다만 한 가지를 말하고 싶다.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찾아내야 한다. 그는 틀림없이 이전 모든 것들을 떨쳐 버렸지만 이런 변화는 너무나 외적인 것이다. 이전에 그는 타고난 생명으로 혼자 주님의 일을 하였다. 이제 그는 외적인 일들에서는 변화되었지만, 그의 내적인 생명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는 이전에 직함을 가졌을 때 가졌던 동일한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 일을 할 가능성이 많다. 비록 외적으로는 그에게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내적으로 그는 여전히 동일하다. 이런 변화는 다만 외적인 운동일 뿐이다. 이전에는 투표를 하고 임직원을

구성하여 ‘교회’를 운영해 갔지만 이제는 그것을 떨쳐 버리고 한 무리의 장로들을 모은다. 비록 이것이 참으로 바뀐 모습이지만 내적인 생명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한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생명의 변화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 운동이 될 뿐이다.

더욱이 우리는 내적인 생명의 변화를 알 뿐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도 깨달아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우리가 혼과 영과 마음에 대해 그처럼 많이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용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또한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담고 심지어 그분을 소화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녁식사로 불고기를 먹는다 하자. 이 불고기가 네 시간 동안 여러분의 위(胃)에 있는 동안, 그것은 소화되어 바로 여러분의 몸의 조성 성분이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참된 그림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생명의 실재라기보다는 하나의 종교이다. 오늘날 문제는 밖의 형식이 바뀌지 않은 데 있지 않고 내적인 생명이 변화되지 않은 데에 있다.

가르침으로만 건축되지 않음

더욱이 우리는 가르침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설명을 하겠다. 나는 소년이었을 때 많은 친구들과 함께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하며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또한 성경 이야기도 배웠다. 우리는 비록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대부분이 기독교 안으로 인도되어 많은 교리를 배웠다. 우리는 여러 번 기독교가 올바른 종교라는 것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과 언쟁도 벌였다.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모든 교리와 가르침을 전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세 위격의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라는 것도 배웠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살고 행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배웠고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까지 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대

답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오직 용어일 뿐이었다. 나는 그 당시 내가 있던 교회에 수백 명의 교인들이 있었지만, 그중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다고 간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때때로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거리에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라고 노래하며 행진도 했다. 나는 단순한 가르침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 자유 의지, 절대 은총, 영원 보증과 같은 가르침들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분은 그 모든 가르침을 공급할 수 있지만, 사람들 속의 생명과 영은 만져지지 않을 것이다. 내 간증을 계속하자면, 어느 날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그 후에 나도 구원받았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만졌고, 생명이 우리의 깊은 속을 만져 참된 변화를 가져왔다. 심지어 밖의 생활과 행동까지도 변화되었다. 참되게 변화된 우리의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어 그들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가르침 이상의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다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전달해 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만일 가르침들이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게 될 것이다.

은사만으로 건축되지 않음

동일한 원칙이 은사의 문제에도 적용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갖는 것을 아주 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읽는다면 고린도의 성도들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들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은사를 갖고 있었다(고전 14:18-20). 그러나 그들의 생명이 실제로 성장했는가? 아니다. 그들은 육에 속해 있었고 어린아이 같았다(고전 3:1-3). 그러므로 가르침이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수단이어야 하듯 은사도 역시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수단이어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이나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공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자. 나는 성경 지식이 가득한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대해 말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마태복음과 열 처녀에 대해서 삼십 분 동안 말한 후, 그는 “용서하십시오. 저는 담배를 좀 피워야 하겠습니다. 제가 틀린 줄 압니다만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열 뿔과 일곱 머리와 마흔 두 달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는 가르칠 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용서하십시오. 저는 담배를 좀 피워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주 강했지만 영적인 생명에서는 매우 연약했다.

나는 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방언을 한 후,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거칠게 행동했다. 그들은 집에서 매우 쉽게 성질을 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가르침이나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분, 곧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라는 이 한 가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 합당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사용하신다. 또 때때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어떤 은사를 사용하기도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 계신 삼일 하나님을 알고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은 구약에서 사람의 말을 했던 당나귀를 기억하는가? 그것이 야말로 진정한 방언이었다. 나는 오늘날의 모든 방언들이 그것처럼 참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나는 최근에 어떤 필자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백 명 이상 만났다고 쓴 기사를 읽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자기가 말한 방언이 진짜인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필자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의 체험을 계속하기를 격려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은 후, “오순절날 베드로는 자신이 한 방언이 진짜인지를 의심했을까? 그때에도 그런 의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혼자 말해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의 방언이 참된 것인지 의심하는가? 가장 간단한 답변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방언들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된 방언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사울 왕에게도 성령

이 부어졌다(삼상 19:22-24). 그러나 그가 생명을 경험했다고는 생각지 말라. 반대로 그것은 다만 그를 드러냈을 뿐이다. 사울은 성령의 부어짐을 받은 후에, 스스로 벌거벗었다! 이것은 성령의 부어짐이 생명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생명은 다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그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비판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님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기를 간청한다. 나는 참으로 나의 부담 때문에 병이 났다. 나는 주의 백성들의 비참한 상태를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교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호응을 잘한다. 은사를 말할 때에는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 그러나 내적인 생명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 우리에게 내적인 계시가 얼마나 필요한지! 교리와 은사는 밖에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안에 감추어 계신다. 오, 주님의 백성들은 그들 안에 거하시고 생생하게 살아 계시며 능력 있는 이 내주하시는 분을 알아야 한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조정해 주며 강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며 항상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적셔 주시는 이분을 알아야 한다.

지위로 건축되지 않음

교회 건축은 또한 위치의 문제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 존재 안에 있는 생명의 문제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어떤 위치에 두는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내적인 존재 안에 하나님의 내적인 운행하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지위를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욱더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명의 성장을 깨닫도록 계속 돕는다면 생명은 더욱더 번성할 것이다. 내적인 생명의 성장만이 교회가 건축되는 확실한 길이다. 우리의 생명이 성숙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 다시 반복하거니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만유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 가르침을 사용하고 은사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을 보기 위해서는 내적인 계시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 함께 모이든지,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집일 것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고 일하신다. 우리는 온 우주의 실재이신 예수의 간증을 지닌다. 그때 우리는 육체 안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타나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다. 우리가 교회의 실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적인 은혜를 구하며 그분을 앙망하자.

제 24 장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의 이상

하나님의 경륜과 그 표적은 이 책의 첫 부분에서 제시되었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장들을 다 읽은 후에도 여전히 그 표적을 붙잡지 못했을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해 넣으시는 것이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 세 위격 안에서 이 일을 하셔야만 한다. 이 책 처음부터 우리는 이러한 삼일 하나님의 경륜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삼일성의 교리를 주고자 하지 않으신다. 교리는 우리를 여러 가지 다른 관념에 연루되게 할 뿐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세 위격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완성하셨는가를 분명히 제시한다.

우리는 헬리어로 ‘경륜’이라는 단어가 행정, 청지기 직분, 또는 통치, 배열, 분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여기서 분배(dispensation)라는 단어는 일정 기간의 시간, 즉 시대라는 의미가 없이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한다는 의미로 쓰였다(영어 단어 ‘dispensation’은 분배와 시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음—역자 주). 다시 반복하거니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이다. 이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중심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분배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영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하는 것이다.

결국 창조와 구속과 변화의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모든 일의 궁극적인 최종 완결은 하나님과 사람의 우주적인 연합이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일의 궁극적인 결과로 새 예루살렘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결과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사람의 우주적인 연합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자신과 사람들의 단체적인 한 몸의 연합이다.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천연적이지 않고, 그들의 각 부분과 각 방면이 하나님에 의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다. 그들은 본성이 변화될 뿐 아니라 외양까지도 하나님을 본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이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원래 있었던 이상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일과 생활과 활동을 통제하는 이상이어야 한다.

네 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표적

이 경륜의 표적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넣어지셨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충만과 함께 아들의 위격 안에서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요, 표현이시다. 아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네 단계에 의해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이 네 단계는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성육신으로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께서 인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땅 위에서 삼십삼 년 반 동안을 사셨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다. 단지 예수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고난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다음 단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사탄과 타락한 사람과 죄와 세상과 사망 등을 포함한 열두 가지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십자가로 이끌려서 끝났다. 부정적인 것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끝났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어 부활이 왔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성의 표준을 회복하고 높였으며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었다. 성육

신에 의해 신성한 본성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으며, 부활로 인성은 하나님 안으로 이끌렸다. 이제 사람은 창조된 인성보다 뛰어난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본성은 거둬나고 높여져서 하나님 안으로 이끌렸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 하나의 '모형'으로 나타나셨다. 이 모형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부정적인 것들은 모두 십자가에 의해 처리되고 끝났으므로 이 모형 안에는 부정적인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다음 이 본은 하늘로 승천하여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셨다. 사람의 생각은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된 이 모형은 시간과 공간 안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승천하셨다. 그분은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셨다.

그 후 영광을 받으신 이분에게서, 마치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 액체가 흘러나오듯이 성령께서 오셨다. 신성과 인성, 인간 생활, 인생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보좌에 앉으심,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본 대로 이 놀라운 흐름은 '만유를 포함한 약'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 '약' 속에 들어 있다. 이렇게 흘러 나온 성령은 우리 안으로 부어지셨다. 부활의 날과 오순절날에, 예수의 성령, 곧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 영께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안으로' 그리고 그들 '위로' 오셨다. 한 면으로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며 또 한 면으로는 우리 위에 임하신다. 세 위격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신다.

사람의 영 안에서 운행하는 표적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은 세 위격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신약은 그 영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오신 것보다도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더 많이 다루고 있다. 이 작은 단어 '안에' 라는 말은 신약에서 여러 번 나타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형상을 이루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분의 거처를 삼

으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등 ‘안에’ 라는 말이 매우 여러 번 나타난다. 시간이 있으면 신약에서 이 작은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헤아려 보라. 하나님은 그분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사람이 그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의도적으로 사람을 세 부분으로 지으셨다. 우리가 본 대로 사람은 몸과 혼과 영,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깥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된 성막과 일치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과 그리스도의 예표인 법궤는 가장 깊은 부분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거하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우리의 영은 지성소처럼 가장 안에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주께서 네 영(spirit)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6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로마서 8장 11절은 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위격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 안에 계시다는 것이다. 오, 지난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얼마나 소홀히 여겨왔던가!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표적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중심으로 삼으시어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에 서부터 밖으로 분배해 나가신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중심에 계신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인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성을 신성 안으로 이끄셨으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끝내셨다. 이제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과 만유로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삼일 하나님은 이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확산하시면서 우리의 속 부분들을 그분 자신으로 적시신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이 있는 지점이다. 만일 이 지점을 놓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을 놓칠 수밖에 없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적을 소홀히 여겨왔다. 그들은 여러 가지

성경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면서도 이 지점을 맞추지는 못했다. 사실상 성경 66권의 모든 가르침은 이 표적을 위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은사와 기능은 이 표적을 위한 것이며 이 표적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심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내주하시는 이 영을 어떻게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빌 2:13). 그분은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 우리 위에서보다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운행하신다. '운행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힘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또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다'. 바꿔 말하면, 삼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계신다. 이 생명에는 내적인 법, 즉 살아 있는 법이 있다. 이것은 문자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다. 이 생명의 신성한 법은 언제나 안에서부터 우리를 규제한다(히 8:10). 내주하시는 삼일 하나님은 내적으로 우리를 규제하실 뿐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서 '기름 바르신다'(요일 2:27).

운행하심과 사심과 규제하심과 기름 바르심에 대해 더 생각해 보자. 교회에게 이 네 가지 것들에 대한 내적인 계시와 체험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들을 가르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사시고, 규제하시고, 기름 바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말과 태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규제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우리의 먹는 것과 입는 것까지도 그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교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교리는 소용이 없다. 이것이 실행된다면 놀라운 변혁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사시고, 우리를 규제하시며 기름 바르시는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교회를 건축하는 표적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건축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은 아담에게서 나와 존재하게 된 하와의 예표로 설명할 수 있다(창 2:21-24, 엡 5:30-32). 하와는 아담의 일부 분이요 아담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다. 오직 아담 '에게서' 나온 것만이 아담의 아내가 될 수 있었다. 하와의 각 부분과 각 방면은 모두 아담에 속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으로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음을 확증해 준다. 교리와 은사는 교회를 건축하지 못한다.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 이시다. 만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체험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뿐 아니라 우리의 양식인 생명의 떡으로 체험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음식 공급이 되신다. 우리는 매일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에게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낱 가르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매일 매시간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주님은 그분을 먹는 사람은 그분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가깝고 실제적인 분이 되실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러한 예를 들어보자. 아마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는 몸무게가 3-4킬로그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60킬로그램이 넘는다. 여러분의 몸은 건축되었다. 그러나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식당에 가서 메뉴만 쳐다보았기 때문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은 것들, 즉 많은 달걀, 닭고기, 감자, 사과, 바나나 등으로 건축되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건축될 수 있겠는가? 가르침으로써 건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 계속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점점 쇠약해질 것이다. 여러분이 먹는 기술만 배운다면 머지않아 장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최고의 영양학자가 되더라도 먹지 않으면 곧 죽게 된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아주 좋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영적인 가르침을 모두 알고 있더라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어린 지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어머니들’이다.

여러분이 나에게 요즘 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 본다면, 나는 다만 두 가지를 말할 것이다. 첫째로, 나는 사랑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독교의 부정적인 일들을 보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하심을 실제로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외적인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여러분은 “이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돌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그만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양식이신 주님께 속한 어떤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것이다.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은 신약 전체를 읽어볼 때 거기에서 한 가지 방법도 발견할 수 없다. 내게 방법을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첫째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아야 하고, 둘째로 매일 매일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며, 셋째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영양공급을 받아 충만케 될 때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양육해야 한다. 그럴 때 교회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로 가고, 그리스도를 먹으며,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로 양육하는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또 하나는 이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그토록 많이 말해 왔지만 이것을 다만 메시지로만, 용어로만, 제목으로만 알고 있을까 두렵다. 우리에게는 매일 매일, 순간순간의 체험이 필요하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규제하심과 기쁨 바름을 받아야 한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통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의 규제를 받고, 그리스도의 기쁨 바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내적인 생명, 즉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의 <그리스도의 영(The Spirit of Christ)>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다. 그 책은 지식을 얻기보다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매일의 양식이 되시게 할 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온 우주에 증거할 수 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맛보고 있다. 나는 매 시간마다 주님과 친밀하고도 생생한 교통을 하고 있다. 나는 항상 주님의 규제하심과 기름 바름 아래 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이다. 만일 우리가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겠는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기름을 넣어야 하며, 어디에서 시동을 걸어야 할지를 안다. 그것이 차를 운전하는 것의 표적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 표적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차를 운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4장 12절과 같은 말씀을 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살아 있고 예리하여 영과 혼을 분리한다. 우리는 영을 분별함으로 히브리서에서 가르친 모든 체험을 실제로 가져야 한다. 좋은 땅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는 영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것 또한 영 안에 있는 문제이다. 만일 여러분이 혼과 영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표적을 잃게 되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게 된다. 매일 매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매우 주관적이며,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아주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이다. 주님을 먹고 마시고, 매일의 자양분으로 그분을 누릴 때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주님의 끊임없는 규제하심과 기름 바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나눠 주려면 이것을 항상 체험해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먹게 된다면, 주님은 그들 속에서 재료가 되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은 점차적으로 자라고 건축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이 우리 영 안에 살아 계시고 내주하시며 주관적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이상과 내적인 계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주님의 두 중에 관하여

저희는 워치만 니와 그의 동역자 위트니스 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전한 말씀이 80년 이상 전세계, 육대주의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 왔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저서는 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저희에게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에 이 두 형제님의 삶과 봉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워치만 니

워치만 니는 17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믿는 이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생명과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의 관계에 대한 그의 저서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동일하게 교회 생활의 실행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강조한 그의 사역의 또 다른 비중 있는 방향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모두에 관하여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워치만 니는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계시를 열어 보여 주기 위해 사용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본토에서 주님을 위해 20년 동안 옥고를 치른 후에 주 예수의 충성스런 증인으로서 1972년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위트니스 리

위트니스 리는 위치만 니와 가장 가까웠고 깊은 신뢰를 받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1925년, 19세 때에 역동적으로 거듭남을 체험했고 자신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위트니스 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처음 7년 동안 그는 플리머스 형제회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그는 위치만 니를 만났고, 그 이후로 1949년까지 17년 동안 중국에서 니 형제님의 동역자로 수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는 일본군에 의해 투옥되어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이유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종의 사역과 일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부흥을 가져와 중국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었고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49년 위치만 니는, 중국에서 주님을 섬기던 그의 모든 동역자들을 함께 모은 자리에서 위트니스 리에게 중국 대륙 밖의 대만 섬에서 사역을 계속하라는 위임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대만과 동남아시아에 백 개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1960년대 초기에 위트니스 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위트니스 리는 35년 이상 주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1974년부터 1997년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수년 동안의 수고의 열매로서 300권 이상의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위트니스 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성경 전체의 신성한 계시를 열어 보여 주었고, 이것을 통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사랑 안에서 몸이 스스로 건축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직 이 건축이 완성될 때 주님의 목적이 완성되고 그분의 마음이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형제님의 사역의 주된 특징은 그들이 성경의 순수한 말씀에 따

라 진리를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워치만 니와 워트니스 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1. 성경은 완전하고 신성한 계시로서 무오(無誤)하며, 하나님께서 호혜해 내신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다.

2. 하나님은 유일하신 삼일 하나님—아버지, 아들, 영—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함께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신다.

3.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구속자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육체가 되셔서 예수라 불리는 한 사람이 되었다.

4.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삼십삼 년 반을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다.

5.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

6. 예수 그리스도는 삼 일 동안 매장되신 후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고, 사십 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분을 모든 것의 주가 되게 하셨다.

7. 그리스도는 승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지체들을 한 몸 안으로 침례 주셨다. 오늘날 이 영은 이 땅에서 운행하시며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선민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심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신다.

8.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믿는 이들을 휴거시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소유하시며,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9. 이기는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신성한 축복에 영원토록 참여할 것이다.